

하나됨의 비전

Vision for Unity

목 차

머리말	3
추천사	6
제1장 서론: 분열, 교회의 아킬레스건	8
제2장 교회 분열의 원인들	15
제3장 하나됨의 근거	23
제4장 하나됨의 비전(1): 한국 교회	35
제5장 하나됨의 비전(2): 독일 쾰른 한빛교회	43
제6장 하나됨의 비전(3): 독일 및 유럽 내 교회들과의 연합	60
제7장 하나됨의 비전(4): 유럽 및 세계 교회의 연합 움직임	71
제8장 하나됨의 비전(5): 신, 구교, 동방 정교회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80
제9장 결론: 하나됨의 완성	90
English Summary	95
부록 1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	98
부록 2 네덜란드 개혁교회 통합 선언문	99
부록 3 하나됨의 비전에 관한 설교들	100
주요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58

머리말

영국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마틴 크레세이(Martin Cressey) 목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시적으로 하나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이미 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인 실체가 된 것을 눈에 나타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¹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2005년 사순절 기간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기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요 11:52).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이 책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무조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제도적인 하나됨(institutional unity)’만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기독교회는 현재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로 나누어져 있고 나아가 개신교는 수도 셀 수 없는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권의 ‘하나됨’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주장하는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하나됨(spiritual unity)’이다. 이것은 교파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됨을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이나 교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간에 보이지 않는 담이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간에 놓여져 있는 장벽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경우 너무나 어이없고 명분 없는 분열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영적 하나됨은 제도적 하나됨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적 하나됨이 없는 제도적 하나됨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영적 하나됨이 있을 때 제도적 하나됨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러한 사실을

¹ Martin Cressey, “Living Today Towards Visible Unity”, *Living Today Towards Visible Unity: Fif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f United and Uniting Churches*, ed. by Thomas F. Best, Faith and Order Paper No. 142, (Geneva: WCC Publications, 1988), xi.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visible unit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not an impossible dream. It is grounded in the purpose of God and the gift of unity which God has already bestowed on the body of Christ by the Holy Spirit. Christians are called to make visible what is already a spiritual reality.”

실증하고 싶다. 즉 개개 그리스도인들과 개 교회적 차원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나아가 교회와 교회 간 그리고 교단이나 교파간의 연합 운동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 하나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공허한 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신 실체(reality)인 동시에 간절히 원하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연합과 일치란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 진리 안에서 이 하나됨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본 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집필 되었다.

본서는 학문적인 신학서라기 보다는 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역사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사를 하나됨과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됨의 근거도 제시하겠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면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실천적인 면을 좀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분열’임을 밝히려고 한다. 개 교회의 분열, 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 그리고 교단의 분열 등 국내외 한국 교회 분열의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소개한 후 이 분열은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도 강조할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간, 가정, 사회, 국가에도 분열은 우리 전체의 삶을 파괴한다. 현대 교회, 특히 국내외 한국 교회들은 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교회간에 그리고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것이다. 이러한 통탄할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한 후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겠다.

이어 제2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열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서구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나누어 다루면서 과연 무엇이 분열의 주된 원인들인지 밝혀내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분열 현상이 단순히 인간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지도 살펴 보겠다.

제3장은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동시에 그 분의 간절한 증보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됨을 바라는 간곡한 권면들을 살펴 보겠다. 나아가 교회의 본질적 특성에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보겠고 그 하나됨

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제4장에서는 한국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교회사에 일어난 연합 운동 및 비전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그 후 최근 ‘한목협’을 중심으로 ‘한교협’과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간 하나됨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서술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는데 이 부분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일치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도 짚어 보겠다.

다음 제5장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유럽으로 돌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쾰른 한빛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단적 배경이 다른 네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비전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각 나라, 지역 및 교회 별로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개 교회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들 간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우선 쾰른 내 외국인교회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 내의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되어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하겠다. 그 후, 같은 지역의 외국인 교회들이 하나된 외국인교회 협의회(ACMK: 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n Migrationskirchen in Nordrhein-Westfalen, e.V)의 탄생 경위 및 사역을 나누고 나아가 유럽 한인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하나되는 역사를 이룬 유럽한인교회 연합(KCTE: Korean Church Together in Europe)의 탄생 배경 및 행사를 소개한 후,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하나됨을 위한 특별 캠페인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하나됨의 비전을 좀더 확장하고 구체화시켜 보려고 한다.

나아가 제7장에서는 유럽 교회의 영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유럽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이러한 운동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각 교파의 신앙고백 및 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로이엔베르그 협정,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의 순으로 다룬 후 기타 다른 대륙들의 교단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겠다. 이것은 주로 교단 및 교파 간의 연합을 위한 노력들이다.

제8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개신 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과연 다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와 가톨릭이 분열된 독일에서 역사상 최초로 양 교회가 하나되어 베를린에서 모였던 2003년 5월말의 교회의 날(Kirchentag)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글로

별한 관점에서 하나됨의 비전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통일을 이룬 독일과 이를 위해 공헌한 서독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및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어떤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인지 살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 ‘하나됨의 비전’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마지막 제8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됨은 단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하나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됨(cosmic unity)’을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 드리는 감격스러운 하나됨이다.

본 서가 출간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배후에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쉼튼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개인적으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세분(최창학 장로, 한춘자 권사, 오중섭 안수집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원고를 기꺼이 출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후 개괄적인 틀을 잡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논평을 해 주신 한국 IVP의 신현기 대표 간사님, 초고가 집필된 후 편집 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평으로 더욱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명희 간사님, 영어 요약을 검토해 주신 서예리 자매 그리고 흔쾌히 추천사를 써 주신 손봉호 총장님에게도 깊이 감사 드린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 한국 교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하나됨의 비전’을 회복하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동서독이 하나된 나라에서
네 교회들이 하나된 교회를 섬기며,

최 용 준

추천사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이 분열되어 왔고 지금도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교회의 이익에도 위배된다. 그런데도 분열은 현실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상황은 별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효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회 연합은 모든 교회의 당위와 사명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 책은 그런 반성과 논의 가운데 최근의 것이다. 교회 분열과 연합시도에 대한 역사적 개략도 제시하고 연합을 위한 신학적 배경도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은 한국, 독일, 네덜란드 교회들의 분열과 연합을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다. 독일 쾰른에서 서로 다른 교단의 한인교회 넷을 하나로 연합하는데 성공한 저자가 한국 기독교계에 거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그 구체적인 시도를 예를 들어 소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그 당위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회연합과 관계해서 서로 다른 나라의 설교자들이 한 설교도 소개하고 있어 더욱 생동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출판은 한국 기독교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교계에서 연합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저자 최용준 박사는 서울대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지금은 독일 쾰른 한빛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그가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는 나의 강의도 수강하여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열이 뜨겁고 열심 많은 학생이었으며 지금까지 고지식하다 할 정도로 순수하다. 일반적으로 교회 연합은 교리와 교회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알려졌는데, 최용준 박사 같은 사람이 교회연합에 열정을 쏟은 것은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그런 훼손 없이도 교회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하겠다.

모쪼록 이 책이 한국 교회 연합운동에 좋은 자극제가 되기 바란다.

손 봉 호

제1장 서론: 분열, 교회의 아킬레스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고전 1:13)

어처구니없는 교회 분열

독일 쾰른 시내 중심가에서 큰 부페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교민의 이야기다. 이 분은 청년 시절, 한국의 어느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학습을 받았고 이어 세례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당 지하실에 탁구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와 장로들이 대립함으로써 생긴 일이었다. 목회자는 교회 청년들의 친교와 건강을 위해 좋다고 주장했고 장로들은 거룩한 주일에 무슨 탁구를 치느냐며 거세게 반대했다. 이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어 결국은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목회자는 몇 달 시무하지도 못한 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 보던 이 청년도 크게 실망하여 교회에 환멸을 느껴 세례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다.²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는 목회자가 사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부흥하던 교회가 하루 아침에 분열되었다. 그 교회는 한동안 크게 부흥하여 미국 교회의 지원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완공하여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택을 개인 소유로 하겠다고 고집하자 결국 성도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흩어져 버렸다. 남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잠시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매우 썰렁함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내의 어느 다른 교회도 매우 보수적인 장로님과 젊은 목회자간에 의견 충돌로 결국 교회가 분열된 경우가 있었다. 이유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목사님은 찬성하셨으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님께서 절대 반대를 하시는 것이었다. 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습되지 않고 결국 목사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능한 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분립 개척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열을 잘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필자가 아는 다른 한 교회는 목회자와 부교역자 간에 갈등이 생겨 분열된 경우가 있었다. 젊고 똑똑한 부교역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추종하게 되었는데

² 그리고 나서 거의 30년간 신앙 생활하지 않다가 5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쾰른 지역의 네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세례 받겠다고 자원하셔서 얼마 후 세례를 받으셨다.

결국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담임 목회자가 부교역자에게 교회를 떠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부교역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 새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교회의 분열은 아니지만 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 또한 심각하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다 은퇴한 옥한흠 목사는 최근 출판한 한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교회 내부적 갈등의 아픔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 있었다. ‘목회자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평생을 목회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순수한 자세를 잃어 버리고, 급기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걸까.’ 교회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문 안에서 패를 가르고 싸우고들 있는지 답할 노릇이었다. (중략) 어려서부터 몸담고 있었던 시골 교회조차도 내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내게 제일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은 장로였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천국처럼 세상을 살던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의 지도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가 오면 3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 장로의 눈에 들지 못하면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라도 쫓겨나는 판국이였다.

한번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주일 오후면 동네에 나가 복을 치며 전도하는 분이였다. 그러면 나는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 목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 오시기도 했다. 나의 눈에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였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잘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교인들의 관심이 목사님에게 집중되자 장로 부부가 목사님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나자 그 장로는 목사님에게 나가라고 했다. 목사님은 나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기 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목사님을 방에 가두어 놓고 얼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 그래도 나가지 않자 새벽기도회 시간에 와서 행패를 부리며 헌금 바구니에 달린 막대로 호롱불을 밝혀 놓은 등잔을 전부 깨뜨려버렸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³

개 교회의 분열, 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간의 분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교단적으로도 수많은 분열을 낳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의 하나인 장로교회의 분열은 한국 교회 교단분열의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현재 한국장로교회 교단은 100개가 넘는다. 한국 동란 와중에도 1952년에 신사참배 회개 문제를 놓고 고신 교단이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되었고 1953년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기장(대한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예장(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하게 되었다.⁴ 그 후 세계교회협의회(WCC:

³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6-18.

⁴ 현재 한성대 총장인 한완상 박사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국 교회의 분열을 비판하면서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다시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된다. 교회 연합운동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대표적 장로교단을 분열시키는 아이러니칼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교회사를 전공한 고(故) 서영일 박사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열을 깊이 있게 다룬 후 “그 분열된 교회의 규모로 보나 서로를 비방하던 혼란과 비행으로 보나 이 분열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분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분열되면서도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합동(合同)’ 그리고 ‘통합(統合)’이라고 붙였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⁶ 두 글자의 차이는 사실 ‘합’자를 제외하면 점 하나 차이 밖에 없다. 이 두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경우 도저히 외국인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고유명사로 쓰여지고 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는 박응규 교수는 바로 이 분열 이후 한국 교회는 분열을 예상롭게 보는 매우 잘못된 교회관이 형성되었다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다.⁷

또 한가지 웃지 못할 사실은 한국교회 교단의 분열은 이상하게도 주님의 이름이 둘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갈라진 것이다. 한국개신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회가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와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교회와 기독교 성결교회’이란 이름으로 교단이 갈라졌다. 이렇게 한국 개신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갈라진 기막힌 희극이 연출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타했던 이 말을 다시금 외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고전 1:13).

나아가 한국교회 교단의 분열은 같은 이름 안에서도 수없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 주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가령, 장로교의 경우에는 군소교단으로 계속해서 핵 분열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이름의 교단이 많아 이름 뒤에 1, 2, 3 번호를 매겨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장로교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극복’을 주제로 2005년 3월 서울교회에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양낙홍 고신 대학원 교수는 한국장로교의 분열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명예요, 수치’라고 말했고, 연규홍 한신대 교수는 ‘분열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패배’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⁸

아이러니칼하게도 ‘예수의 기독교성’을 가장 강조하는 교단은 ‘예장’이고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교단은 ‘기장’이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⁵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장동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86-287.

⁶ 물론, 분열되면서 바로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총회가 열린 교회이름을 따라 ‘승동측’, ‘연동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다시 나름대로 고신 교단 및 기타 교단과 연합을 추구하면서 각기 ‘합동’, ‘통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⁷ 박응규, *한부선 평전: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서울: 그리스, 2004), 414.

⁸ minjok.or.kr/main/show_news.asp?newsuid=711

교회의 분열은 거기서 그쳤는가? 교회 분열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소한 일이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다.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그리고 주변 사회에도 큰 상처와 악영향을 준다. 가령 한 교회가 분열됨으로 가족과 친척들 간에도 의견이 나누어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몇 년 전에 분열되는 바람에 가까운 친척 가정이 우리 집과는 다른 교회에 나가게 되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점점 소원해 지는 경우도 체험했다. 또한 한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함으로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도 항상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 나아가 교단이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 생활하던 성도들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며 적대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 보는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방하면서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보았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국 교회의 분열사를 보면 지방색도 한 몫을 차지한다. 장로교 합동측이 1979년에 다시 분열되면서 호남지역의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하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이다.⁹ 경제적으로 볼 때 90년대까지도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것도 이러한 지방색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분열에 앞장섰으니 한국 교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자격도 잃어 버리지 않았나 자성해 본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개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고 한 교회 내에도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으며 심지어 교단이 분열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해외 한인 교회들 중 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국내 교단의 안수정책에도 기인한다. 어느 교단의 경우 그 교단 출신의 전도사가 유학 시절, 다른 교단에서 봉사한 경력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개척해서 단독으로 목회하면 목사 안수를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다른 교회가 좋아도 거기서 봉사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결국 같은 교단 출신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며 교인 숫자에 상관없이 자체 교단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하여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회복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끄럽고 한심한 상황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 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

⁹ 하지만 이렇게 분열되었던 ‘개혁교단’이 2005년 대전 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다시 합동측과 하나됨을 회복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열’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또는 암적인 요소라고 주저 없이 외치고 싶다.

교회는 교회 분열사

그러나 교회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분열의 문제가 한국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뿌리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탄생한 지상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된 교회’임을 잃어 버리고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최초의 분열은 니케아 종교회의(325),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381) 그리고 칼세돈 종교회의(451)를 거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파가 정죄되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가장 큰 분열은 1054년에 일어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다. 당시 로마의 교황은 레오(Leo) 9세였고 동방의 비잔틴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는 체룰라리우스(Michael Cerularius)였다. 이 둘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고, 결국 동.서방 교회의 분열을 낳은 장본인들이었다. 특히 체룰라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이 언제나 로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콘스탄티노플을 로마와 같은 등급으로 올리려고 했다. 그것은 곧 총대주교인 자신의 지위가 교황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체룰라리우스는 서방교회가 가진 의식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결국 동방교회를 서방교회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 공식화되었던 것이다.¹⁰

그 다음 교회의 가장 큰 분열은 서방 교회 내에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한 개신 교회와 천주교회의 분열이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원래 전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정죄하고 출교시킴으로 개신 교회의 탄생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분열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적인 이유로 발생한 대부분의 분열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진리의 회복을 위해 분리가 불가피한 예외 경우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진리를 외치다가 기존 교회로부터 강제로 축출 당함으로 의도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 장로교회가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 해방 후에도 이를 회개하자고 외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배척함으로 고신 교단이 생겨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

¹⁰ 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DAB&qnum=905627&kscookie=1 참조.

도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고전 11:19)¹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일 것이다.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로 다시 분열되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독립교회, 오순절 계통 등. 나아가 장로교는 다시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이 모든 역사를 본서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그래도 종교 개혁 이후 비교적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왔지만¹² 개신 교회는 계속 분열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이다. 동방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589년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로부터 독립하여 모스크바 총주교를 세움으로써 그 뒤 동방교회지역의 많은 나라에 이와 비슷한 국가별 독립교회가 시작되었다.

분열의 영향

이러한 교회의 분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교회의 분열은 교회 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경우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가톨릭은 개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여 거의 백 년 동안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희생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신교도들은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 필립 2세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80년이나 처절한 독립 전쟁(1568-1648)을 벌여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또 다른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심지어 유럽 대륙을 떠나 남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기도 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왔다가 다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랑스에서는 왕족 및 귀족들이 개신교를 지원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긴장관계를 낳다가 결국 성 바돌로매의 축일(1572년 8월 24일)에 개신교도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하여 2개월간 약 7만 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30년 종교전쟁(1618-1648)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마침내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겨우 합의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신 구교의 분열은 한 국가, 한 지역 사회 내 그리고 한 가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가령 한 도시 내에 신교도와 구교도가 살 경우,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군주의 선택에 따라 그 백성들은 무조건 신교 또는 구교로 통일되었다. 만약 군주의 선택을 따르기 원

¹¹ 본서에 인용된 모든 성경은 표준 새번역을 사용하였다.

¹² 가톨릭 교회도 전혀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70년 독일에서는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무오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직자의 결혼금지도 반대하며 독립했는데 이 교회는 구가톨릭 교회(Das Katholische Bistum der Altkatholiken)라 불린다. Udo Hahn, *Das 1x1 der Ökumene: Das Wichtigste über den Dialog der Kirch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haus, 2003), 30-31.

치 않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해야만 하였다.¹³ 그리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심지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까지 이주하게 된 것이다. 한 가정에도 신교도와 구교도가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관계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신교도와 구교도의 결혼에도 여러 제약이 뒤따랐다.

현재에도 유럽의 경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천주교가 강하고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개신교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각기 문화적 특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구권은 동방정교가 지배적이며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지배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남부와 북부로 구분할 경우 남쪽은 가톨릭이 강세이고 북쪽은 개혁신교회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개신 교회가 강한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이고¹⁴ 남쪽이나 동구권으로 갈수록 경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도 개신교가 강한 북미주와 가톨릭이 지배적인 남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 교회의 분열, 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간의 분열 그리고 나아가 교파와 교단의 분열을 살펴 보면서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처구니없는 분열임을 보았고 그것이 개인, 가정, 사회 심지어 국가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즉 도대체 이 교회 분열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한다.

¹³ 이것을 라틴어로 "*Cuius Regio, eius Religio*"(영어로는 "Whose the region is, his religion.")라고 한다.

¹⁴ 이것은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작에 의해 널리 인정되었다.

제2장 교회 분열의 원인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갈 5:15)

앞에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들, 특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분열되어왔는지를 개 교회, 개인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교회와 교단 그리고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열했고 지금도 분열하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깊이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분열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되 서구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나누어 다루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비교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들을 밝혀내어 보고자 한다.

동, 서방 교회의 분열: 교회 지도자의 교만한 야심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최초의 분열은 1054년에 발생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었는데 이 분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적인 차이보다는 당시 로마의 교황 레오(Leo) 9세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체룰라리우스(Cerularius)의 교만한 야심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⁵ 그는 교황이 되려는 정치적 야망과 동방 교회의 자율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교구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라틴계 교회들에게 헬라이어 및 헬라식 예배를 강요했으며, 이에 불순종하는 사제들은 사정없이 파면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신학적인 차이는 소위 필리오케(Filioque) 논쟁이다. 서방 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 반면 동방교회는 성부를 통해 나온다고 맞섰다. 나아가 체룰라리우스는 서방교회가 성찬에서 무교병(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사용하는 것과 토요일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목 졸라 죽인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이단적이며,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또한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방 교회의 교황 레오 9세는 강력히 항의했다. 로마교회의 절대적 우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로마교회야말로 베드로의 지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므로 교리상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동.서방 교회가 심각한 분쟁에 빠져 있을 때에 노르만인들이 남부 이태리를 침공했다. 당시 남부 이태리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고,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로마와 연합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황제는 체룰라리우스 주교에게 로마 교황과 분쟁하지 말고, 화해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자

¹⁵ Encyclopaedia Britannica 2004, ‘Michael Cerularius’, ‘Schism of 1054’ 참조.

체를라리우스는 교황 레오 9세에게 편지를 보냈고, 레오 9세 역시 서로 우호적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답장을 썼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세 명의 사절을 콘스탄티노플로 파견했다. 사절단이 파견된 동안, 노르만인들은 비잔틴 군대에 의해 패퇴당했고, 정치는 다시 안정되었다.

그러나 체를라리우스는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여 교리와 의식의 문제들을 종교회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서방교회에 도전했다. 그러자 교황의 사절들은 분노했다. 체를라리우스가 전혀 화해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때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레오 9세가 사망했는데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사절들의 대표성도 의심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분노한 서방교회의 사절 중 프랑스 출신인 움베르트(Humbert of Silva Candida) 주교가 1054년 7월 16일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 제단에다 저주문을 올려놓으면서 체를라리우스와 그의 주교들을 파문한다고 선언한 후 떠나 버렸다. 그러자 4일 후, 같은 장소에서 체를라리우스는 로마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하면서 로마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정통 기독교인 동방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천명했다.¹⁶ 이로써 체를라리우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지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공식적으로 분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4년 후인 1058년에 체를라리우스는 당시 콘스탄틴(Constantine) 황제의 뒤를 이은 콤네누스(Isaac I Comnenus) 황제에 의해 축출되어 유배지에 가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 분열은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다시금 잠시 해결을 보았으나 1472년에 재 분열되어 지금까지 양립되어 있다.

서방 교회내의 재 분열: 교권 싸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열된 지 300여 년이 지난 후 서방 교회는 다시 교권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황이 두 명에서 세 명까지 나타나면서 1378년에서 1417년까지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아비뇽(Avignon)에서 로마로 돌아온 후 교황으로 선출된 우르반 6세(Urban VI)에 대해 일부 추기경들이 반발하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아비뇽에 근거를 둔 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t VII)를 선출했다. 이 두 교황이 서로 대적하며 비방하자 각 민족들과 정치 세력들 간에도 분열과 반목을 낳게 되었고 결국 교황의 명예와 권위도 땅에 떨어져 영적인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¹⁷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분열이 사회의 분열까지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부 추기경들이 1409년 피사(Pisa)에 모여 회의를 열어 제 3의 교황 알렉산더 5세(Alexander V)를 선출했다. 하지만 기존의 두 교황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한 때에는 교황이 세 명이나 존재하는 어처구니

¹⁶ 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DAB&qnum=905627&kscookie=1 참조.

¹⁷ Encyclopaedia Britannica 2004, 'Western Schism' 참조.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당시의 황제 지기스문드(Sigismund)의 강력한 중재에 의해 1417년 한 명의 교황 마틴 5세(Martin V)만 인정되어 마침내 교회 분열은 종식되었다.

교회가 스스로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세속 권력에 의해 강제로 통합되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또한 현대 교회 내부에 깊이 파고 들어온 ‘개인주의’는 진정한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교묘히 스며든 분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교권싸움에 휘말려 오히려 세상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개혁의 분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던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경의 말은 교회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중세 말 서방 교회의 교황이 가졌던 권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교황도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결국 정치 권력에 깊이 간섭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종 권모술수와 정치적 조작에 관여하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독일 쾰른의 대성당과 같은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일부 성직자들은 타락하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프랑스의 요한 칼빈(Jean Calvin)이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선언문과 같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Wittenberg) 성당문에 게재함으로써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로마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은 개혁자 루터의 외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파문했으며 죽이려고 했다.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 발표하면서 중세 카톨릭교회의 오류를 개혁하려 했으나 카톨릭 교회는 오히려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이는 마치 구약 시대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연상하게 한다. 그 결과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순례를 떠나야만 했으며 심지어 영국의 청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도 했다.¹⁸

원래 마틴 루터는 교회를 분리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개신교단을 만들게 될 것은 상상도

¹⁸ 이들은 먼저 네덜란드의 레이든(Leiden)에 와서 40여년간 생활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금도 레이든에는 그들이 살던 유적인 베드로 교회를 비롯한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오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결국 구교와 신교는 분열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천주교 내에서도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나 아쉽게도 개신 교회와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는데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서방 개신 교회의 분열: 부차적인 것을 절대화함

하지만 개신 교회는 그 후에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반면에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분열하지 않았다. 종교 개혁은 분명히 불가피했지만 지금 카톨릭 교회 앞에서 사분오열된 개신 교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나 명분 없이 많은 분열을 낳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최인식 교수가 최근 인터넷상으로 확인한 교단만 226개나 된다.¹⁹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교파주의의 사회적 원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 분열의 원인을 어떤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종적, 지역적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윤리적 패배”라고 규정한다.²⁰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요 13:34-35; 15:12,17),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요 17:11; 21-23)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심지어 선교 사역을 통해 이러한 분열까지도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개신 교회들을 보면 이민간 민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화란의 개신교도들은 기독교개혁교회(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회(Anglican Church) 또는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독일의 개신교도들은 루터교회(Lutheran Church),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교회(Apostolic Church)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살펴보면 남부지역은 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가 많고 북부지역은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많다. 개혁교회의 경우에도 동부지역은 예정설을 강조하는 정통 칼빈주의 교회가 강한 반면 서부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적 교회가 더 많다. 이와 반면에 한인 교회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교단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민족의 고유한 교단이 아니라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속해서 많은 교민 교회들이 분열하여 대부분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개신 교회의 교단분열에 신학적 차이를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은 분명히 신학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침례교회와 오순절 교회도 분명히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 원인들을 요약한다면

¹⁹ 최인식, “한국교회는 분열의 이미지를 넘어라”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p. 89.

²⁰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29)

부차적인 차이들을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침례교회의 경우, 세례를 무효라고 생각하고 침례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례와 침례는 형식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은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개신 교회들이 부차적인 신학 논쟁을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노력한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한국 개신 교회의 분열: 명분 없는 교권 싸움

한국 교회는 짧은 교회 역사에 비해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세계 최대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최근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분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손인웅 목사는 200여 개 이상의 교파로 분열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교회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하나’로 가야함을 역설한다.²¹ 한국 교회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배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교단으로 시작되었지만 1918년 조선예수교 장.감 연합협의회를 조직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였다. 장로교회의 경우 1950년까지는 하나됨을 지키며 비약적인 부흥을 하다가 해방 후 신사참배문제로 참여파와 불참파가 분열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그 후 1954년 성경해석, 즉 신학적인 문제로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되었고, 1959년에는 아이러니 칼하게도 교회 연합운동 참여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통합, 합동으로 분열되었다. 세계 교회 연합운동이 한국 교회에서는 치명적인 분열을 낳은 것이다. 그 후 다시 합동측은 수많은 분열을 경험하여 현재 100여 개 이상의 교단들이 난립하고 있다.²²

그 이후 가장 많이 분열한 장로교회의 경우, 분열은 거의 명분이 없다. 최초의 몇 가지 큰 분열을 제외하고 수없이 분열한 교단들은 결국 상호 배타적인 자세 및 교권 싸움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열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죄라는 것을 얼마나

²¹ 손인웅, ‘하나’로 가는 한국 교회, *월간 디사이플*, 2004년 10월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pp. 46-47

²²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정,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칼 운동” user.chollian.net/~ikch0102/nm4-5.htm 및 김홍수,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논찬”, user.chollian.net/~ikch0102/nm4-6.htm 참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분열을 주도한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더욱 아이러니칼한 것은 ‘총신’에서 분열하면서도 이름은 ‘합동’신학원이니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한심하지 않겠는가?²³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심지어 이단이 분열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뉴스엔조이(www.newsjoy.co.kr)에서 보도된 소위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한 책자에 관한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개 이단에 무더기로 면죄부를 부여해 소위 이단 변호용 책자로 평가 받는 「정통과 이단」. 이 책자를 출판한 단체는 무려 120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예장연)다. 이 책자는 나오자마자 한국교계에 심각한 파문을 던졌다. 각 교단과 연합단체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일반 교인들의 가치 기준에 심각한 혼선을 빚게 만든 것.

가령 ...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 김기동 (성락교회) ...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 ... 구원과 계열 (박옥수 박충서 이요한)을 비롯 공인된 여러 이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이단상담소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 및 이단상담소장인 최삼경 목사(빛과 소금교회)에게는 ... 이단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 예장연은 왜 이 같은 파문을 감수하면서 「정통과 이단」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잦은 교파분열과 교권의 이합집산, 저급한 수준의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 등 만성적 증병에 시달리는 한국교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예장연은 120개의 회원교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실상 이 수치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분열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장연은 한국교회 양대 연합 기관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그리고 장로교단 협의체인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한장연)에서도 썩 반기지 않은 또 다른 그룹이 형성한 협의체다... 이른바 교세가 빈약한 군소교단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 교단의 이름만 해도 ... △합동개혁 △합동진리 △개혁합동 △합동장신 △합동총연 △합동정신 △보수합동 △합동보수 △합동총회 △합동연합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심지어 이름이 똑같은 교단이 여러 개인 탓에 교단명칭 뒤에 숫자를 표기하거나 대표자 이름을 넣어서 구분해야 할 지경이다.

한기총이 65개의 회원교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교단이 100여 개나 되는 것은 한국교회 분열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⁴

²³ 물론 합동신학원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 본인으로서도 당시 분열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²⁴ 이승균, “이단 나침반 왜 휘었을까? 한국교회 분열과 정체성 위기, 상업적 언론과 만나 ‘이단포용론’ 만개”, www.newsjoy.co.kr

사소한 의견 충돌

지금까지 살펴본 분열의 원인들은 주로 교파나 교단간의 분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개 교회 내에서의 분열은 제 1장에서도 예를 든 바와 같이 매우 사소한 의견 충돌이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교회 내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는 안건에 대해 목회자와 직분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결국에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누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배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다가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가령, 보수적인 교회의 경우 전통적인 예배에서 보다 현대적인 방식의 예배로 바꾸려다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당을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옮기며 확장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난 경우도 보았다.

기타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고 겸손히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절대화하다가 결국 개 교회의 분열까지 낳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의 주특기: 분열 전문가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열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사탄의 방해 역사이다. 마귀의 헬라어 자체(diabolos)가 이미 ‘분열시키는 자’ 또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즉 ‘디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고 ‘볼로스’란 ‘던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운데 던진다’는 말은 자꾸 가운데 던져 헤쳐 놓고 이간질한다는 것이다.²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마귀의 주특기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깨어졌다. 나아가 마귀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 교회에도 마귀는 교인들 간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 섭섭한 생각을 불러 일으켜 분열을 조장한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교회 간, 교파와 교파간, 교단과 교단 간에도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는 영이다.

대체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열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분열의 영인 마귀에게 속고 있

²⁵ 이동원, *쉽게 풀어 쓴 로마서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1) p. 571.

으며 시험 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적이 될 수 없다. 유일한 적은 사탄이요 마귀들이다. 하지만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여 자멸한 것이다. 결국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게 하며, 명분 없는 교권 싸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 하나됨을 회복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하나됨의 근거를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3장 하나됨의 근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요 17:21)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실체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만 한다. 마치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 그 해답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그 근거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려고 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 및 중보기도, 바울의 권면, 주님과 연합한 교회 그리고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이 그것이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됨의 좋은 모델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기능은 다르나 본질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성(unity in diversity)’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및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펴 보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그 초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몸으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는 유기체이다.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은사가 다를지라도 하나의 동일한 믿음과 세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 보자.

첫째 근거: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며(시 33:6, 9; 욥 28:23, 28; 잠 8:22이하), 하나님의 영이 별도의 인격으로 언급되고(창 1:2; 시 33:6; 139:7; 욥 26:13; 33:4; 사 63:10 등), 삼중적 축복이 선포되며(민 6:24-26), 하나님 안에 어떤 구분이 있음도 볼 수 있고(창 19:24; 시 45:7; 110:1; 호 1:7) 하나 이상의 인격체로 언급되는 구절도 있기 때문이다(시 33:6; 사 61:1; 63:9-12; 학 2:5-6).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의 아들로 그리고 성령의 독립적인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마 1:18이하; 3:16이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마 28:19),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고전 8:6, 12; 고후 13:14; 살후 2:13-14; 엡 4:4-6; 벧전 1:2; 요일 5:4-6; 계 1:4-6) 이를 찾아볼 수 있다.²⁶

²⁶ Herman Bavink, *The Doctrine of God* trans. by William Hendriksen (Grand Rapids: Baker, 1979), p. 255.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창 1:26-27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몸(‘일체’), 즉 한 분이시듯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지음 받았다(창 2:24).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듯 사람도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예수님도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 지워 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unity in duality)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마 19:6)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강조한다. 엡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고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체임을 강조한다(엡 5:30-32). 다양한 지체이지만 한 몸(unity in diversity)인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요 17:22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교회도 하나되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인 것 같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어야 할 첫 번째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둘째 근거: 예수님의 사역과 중보기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구속사역

예수님 사역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무

²⁷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 1. (Zürich: Theologische Verlag Zürich), 1979. p. 231, III. 2. p. 390.

²⁸ 삼위일체와 교회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Miroslav Volf, *Trinität und Gemeinschaft: Eine Ökumenische Ekklesiologie* (Mainz: Grünewal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pp. 182-211 참조. 영문판은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7). 교회의 일치성과 Karl Barth의 삼위일체론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S.M. Park, *The Unity of the Church* (diss. Amsterdam: Vrije Universiteit, 2005), pp. 11-64 참조.

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신다. 다음의 성경 본문을 살펴보자.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요 11:49-53)

이 부분은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쉽게 지나치던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긴급히 임시 공회를 소집했다. 예수님을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다. 나아가 로마의 완전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저런 논의가 진행되던 중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마침내 가장 극단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예수님을 제거하면 문제는 간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의 계획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가야바의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2절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돌아 가시는 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17장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한 장 전체에 할애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지상 중보기도(Great Intercession)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을 때이다. 그 남은 시간에 주님은 다락

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 주셨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서는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새 언약의 상징인 성만찬을 집행하신 후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주님께서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먼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임을 확인하신 후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다.

그리고 나서 요 17장에 보면 제자들과 또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온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먼저 주님은 열 두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11절)

나아가 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21절)

여기서 특별히 21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전도의 문은 닫히고 만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조롱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회복하여 지킬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영광은 쉼기나(Shekinah)의 영광, 즉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이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출 40:34),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대하 5:14) 이 쉼의 영광이 나타났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영광은 실체화되었으며(요 1:14)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각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고전 6:19) 이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임마누엘의 영광은 온전해질 것이다(계 21:3). 이것 또한 주님의 기도였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어쩌면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 보시면서 마지막 중보기도 시간 전체를 할애하셨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주님께서 분열된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이다.

한국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마 28:18-29과 행 1:8의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해 있고 비교적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선교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요 17:6-26에 나타난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는가? 아니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너무나 무시하고 쉽게 분열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상 명령과 대조되는 이 중보기도를 “지상 중보기도(Great Intercession)”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무리 잘 순종한다 하더라도 ‘지상 중보기도’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 드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셋째 근거: 사도 바울의 권면들

교회의 역사는 사실상 교회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자들은 항상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었다.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그런 부분에 관여할 정도였다. 결핍하면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가라는 주제로 서로 다투곤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자들을 일깨우셨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그 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되게 해 달라고.

이 기도에서 온전히 순종한 제자들의 하나된 모습은 행 1장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초대 교회

는 다시 분열의 조짐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 가장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사분되어 교회 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기와 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고전 3:3)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라고 깨우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를 이룬다고 설명한다(고전 12장).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은사임을 강조한다(고전 13장).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지상 중보기도를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가 개척한 또는 그가 방문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권면을 빠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교회는 분명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였을 것이다. 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며 기도하고 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십시오.”(롬 15:5-7)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한 믿음, 한 세례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한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6-28)

동시에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심각하게 경고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갈 5:13-15)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소아시아

아의 대표적인 교회였다. 이 교회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도 자세히 제시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1-3)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최초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 또한 다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하나된 교회였다. 루디아는 상류 계층의 아시아 여성이었으며 여종은 가장 하류 계층의 헬라 또는 외국에서 유입된 노예였고 간수는 중산층의 로마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신 태도와 자세를 본받음으로 하나되라고 권면한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빌 2:2-5)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통해 하나되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골 3:12-15)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됨을 지킬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넷째 근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나아가 하나됨의 셋째 근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

며 따라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동시에 그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롬 6:3-5). 그리하여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제 2의 성육신이라고 불린다. 또한 요 17:23에도 보면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 하나가 될 때 교회도 온전해 진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은총을 입어 주님과 다시 연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획일화가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이다. 즉, 교회의 일치는 교단적 조직의 통합이나, 다양한 신학의 통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성취된다. 즉 믿음 안에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다.²⁹ 교회의 속성들 중에서도 교회의 일치성(*una ecclesia: the unity of the church*)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³⁰ 찬송가 242장 2절과 3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은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따라서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주님의 한 몸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³¹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전 12-13장에서는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²⁹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주일공동설교문, “교회 일치의 근거와 목적” 2004년 10월 31일, www.churchr.org에서 인용.

³⁰ 니케아 신경에서도 교회에 대해 제일 먼저 ‘하나인’ 교회를 고백하고 있고 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언급하고 있다.

³¹ 독일 개신교 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www.ekd.de)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 내에는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 그리고 연합교회라는 세 종류의 교단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었고 대외적으로는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종들과 자유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상
기시키면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함으로 분쟁을 극복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
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
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
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격
정하게 하셨습니다.”(고전 12:12-14, 24-25)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78장 3절의 가사는 이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존행하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한 몸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섬겨야 할 의무는 있어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

다섯째 근거: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

마지막으로 엡 4:4-6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어야 할 근거를 좀더 깊이 말씀하고
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인 동시에, 한 성령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성령은 각각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되게 하신다(엡 4:3). 이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믿음,
세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먼저 한 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고백이다(마 16:16). 아무리 교파가
달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사도신경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신앙고백만 생각한다면 충분한 공통 분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 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며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그리할 때 이 믿음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세례도 하나이다. 믿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표로 주는 것이다. 형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서로 인정할 수 있다. 본질적인 내용과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장로교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지만 현재 복음적이면서도 초교파적인 독립교회를 섬기고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교단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필자도 평소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침례를 베푼다. 즉 쾰른 지역에 있는 코소보 출신의 난민들에게 선교하여 침례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독일 교회당을 빌려 두 번이나 침례를 베푼 적이 있다. 형식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뻐하고 축하할 뿐이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따로 모일 것인가? 주님 앞에서도 교파별로 헤쳐 모일 것인가? 한국 그리스도인들만 별도로 모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 없어진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 소망은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나왔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마침내 만유를 완성하신다는 소망이요 확신이다(롬 11:36).

그 날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되어 새 노래로 찬양드릴 것이다(계 7: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즉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가장 어리석은 자기 모순 행위인 것이다.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하용조 목사는 그의 에베소서 강해 「하나됨의 열망」의 서문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연합과 일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³²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모든 것을 획일화하거나 동일화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내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역설한다. 또한 2003년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된 ‘파워 웨이브(Power Wave)’ 성령축제에서도 겔 37장을 강해하면서 특히 17절 “그 막대기들은

³² 하용조, *하나됨의 열망: 에베소서 강해* (서울: 두란노, 1999).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교단의 벽을 넘어야 하고 분열을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그렇게 할 때 분단의 역사로 고통 당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도 주님 안에서 하나될 것을 비전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³³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는 이 세상 다른 조직체들의 일치 근거와는 다르다. 정당은 정권 창출 의지에 의해, 기업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가족은 혈연관계에 의해 그리고 다른 사회 집단은 지연과 학연 등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 일치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일치는 다르다. 교회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일한 믿음과 세례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나 남녀노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장애인, 사회적 신분이나 외모 등 다른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한 형제 자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교회와 교회,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됨의 완성은 우주적 일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파하는 세상, 깨어진 세계, 뒤틀린 피조계,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다(롬 8:18-25). 그 세상 안에서 인간도 아파하고, 만물이 탄식하며 심지어 교회도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 있다. 다만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단지 분열된 교회들을 하나로 회복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 교회들이 연합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온 우주적 일치를 위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 날에는 민족과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함께 우주적인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돌려 드릴 것이다(계 5:13).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계 21:1).³⁴

³³ 하용조, Power Wave 성령축제 카세트 테이프.

³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주일 공동 설교문, “교회 일치의 근거와 목적” 2004년 10월 31일, www.churchr.org에서 인용. 하나됨의 완성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루겠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닮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진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근거와 목적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 중의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예가 있는가? 다음 세장에 걸쳐 한국, 독일, 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하나됨의 비전(1): 한국 교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요 17:21)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는 개 교회 내의 하나됨,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됨 그리고 더 나아가 분열된 교파나 교단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본 장에서는 주로 교회, 교파 및 교단의 연합 차원에서 먼저 해방 전후를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 보고 나름대로 평가한 후 현 시대에 한국 교회의 연합운동과 예상되는 난관들과 전망, 그리고 사명에 대해 살펴 보겠다.³⁵

전반기: 1945년 해방 전까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아펜젤러(H. G. Appenzeller)와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는 각기 미 북감리교와 미 북장로교 출신이었으나 평생 서로 절친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연합운동은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가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14명으로 먼저 교회를 개척하자, 12일 후에는 아펜젤러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베델교회를 세웠다. 이들 두 사람이 서울 정동에 세운 교회는 당시 100m나 떨어져 있을까 할 만큼 가까운 이웃이었다.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는 후에 ‘새문안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아펜젤러가 개척한 교회는 나중에 ‘정동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중추가 되었다.³⁶

당시 한국에 파송된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웨슬리안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회 선교사들과 매우 밀접하게 동역할 수 있었고 언더우드 역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다른 교단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열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였다.³⁷ 그리하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간에는 강단 교류도 있었는데 미남감리회 선교사인 저다인(J. L.

³⁵ 이하의 내용은 손인웅, ‘하나’로 가는 한국 교회, disciple,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년 10월호), pp. 46-47을 주로 참고하였음.

³⁶ 김태익,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후에’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509/200509080379.html>, 2005년 9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땅을 밟은 지 120년 후, 새문안교회 주일 예배에서 정동제일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대한성공회 주교가 축도를 했다. 정동교회의 신도들도 예배에 참석했다. 교파와 교단 간 벽을 넘어 교류와 일치, 화해를 이루려는 한국 개신교의 오랜 숙원을 푸는 데 교계의 만행들이 나서 모범을 보인 것이다.

³⁷ 박용규, 평양 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p. 18.

Jerdine)이 미남장로회 선교사 프레스톤(J. F. Preston)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첫 번째 연합운동은 1905년 9월 15일에 장로교 4개 선교회와 감리교 2개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재한 복음주의 선교회 통합공의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단체의 이눌서(W.D. Reynolds) 선교사는 ‘조선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의 단일 민족교회 설립을 추진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참석자 전원이 기립 찬성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합에 대한 열망은 다음해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95%에 달하는 196명이 회의에 참석해 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³⁸ 또한 본 단체를 통해 미국 남감리교 출신 리드(W. T. Reid) 선교사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되어 전도에 힘썼다.³⁹

나아가 통합 공의회는 또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행하던 정기간행물을 묶어 <The Korea Mission Field(한국선교지)>를 발행하고, 신문도 <그리스도신문>으로 통합했다. 1906년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공동 운영했고, 1908년에는 감리교의 <찬미가>와 장로교의 <찬양가>를 합쳐 <찬송가>를 발간했다. 또 1914년에 세브란스 병원, 1916년에 연희전문학교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활발한 연합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성경 번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문서 선교에도 적극 힘을 합쳤다.

나아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 미감리회, 조선 남감리회 등 3개 교단으로 구성되었다. 1911년과 1915년에 있었던 한국교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한국 교회에 더욱 끈질긴 신앙체질을 심어 주었고 나아가 반일적 성격을 띠게 하면서 더욱 단결과 연합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리하여 이 협의회를 통해 모든 선교 활동에서 두 교단은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9년의 3.1운동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연합운동은 애석하게도 미본국 선교부의 반대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⁴⁰

그 후 1924년 9월 24일, 서울의 새문안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가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복음을 전하며 사회도덕을 향상시키고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조선 예수교 장감협의회와 달리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조선 미감리회, 조선 남감리회 등의 국내 교단과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캐나다 연합교회, 미감리회, 남감리회 등의 외국 선교부, 대영성서공회, 조선 기독교 청년회(YMCA) 등이 참여했다. 본 공의회는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회에 대표를 파송했고, 1929년에는 YMCA의 농촌운동을 범교회적으로 발전시켰다.

³⁸ 주재일, ‘단일 교회를 꿈꾸다’, www.newsjoy.co.kr

³⁹ www.kukminilbo.co.kr/missiontoday/c_history/root/roottxt29.html

⁴⁰ 주재일, ‘단일 교회를 꿈꾸다’, www.newsjoy.co.kr

1931년에는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일제에 의해 해산되던 1937년에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조선 예수교서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재일본 캐나다장로선교회,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 등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그 후 1938년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친일 어용단체로 변모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또한 각종 사업진행에서 이견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⁴¹ 하지만 본 공의회는 현재 한국교회협의회(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이하 ‘한교협’)로 발전되어 신앙운동, 교회들간의 유대와 연합활동,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일제 말엽, 한국의 개신 교회는 잠시나마 하나가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가 강제로 당시 조선의 모든 교회 교파명을 없애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교회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해방 후 3주 만에 와해되고 말았다. 그 해 9월 8일 서울의 새문안교회에서 교단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감리교회 회원들이 감리교회의 환원을 주장하며 퇴장하였고 이어 장로교회 회원들도 장로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퇴장하여 한국 개신 교회는 다시 분열되고 말았다.⁴²

후반기: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해방 이후 본격적인 교회 연합 운동은 1948년 8월 23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창립총회에 한국대표단이 참석하면서부터이다. 곧, 광복 이후 재건된 ‘한교협’은 합동찬송가 발행, 부활절 연합예배, 3·1절 기념 연합행사 등을 주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일치, 협력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다가 ‘한교협’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낀 한국 교회 각 교단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원로인 한경직 목사를 만나 명실상부하게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 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연합 기관을 만들자고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28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36개 교단 대표와 6개 기독교 기관 대표가 모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새롭게 조직되어 오늘날까지 이 두 개의 연합기관이 연합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동시에 가장 많이 분열한 한국의 장로교회도 연합과 일치 운동을 시작하였다. 초기 단계에는 친교를 위한 신년 하례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회 개최를 통해 한 형제자매라는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광복 50주년이며 장로교 총회 80주년이 되는 1995년 9월에 소망교회에서 장로교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1996년 1월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근 실무자와 사무

⁴¹ www.kmib.co.kr/missiontoday/c_history/new/newtxt22.html

⁴² 김인수, “해방 후 한국교회사 10대 사건”, 목회와 신학, 2005년 8월호. p. 90.

국장, 직원을 두게 되었다. 1999년 9월 현재 27개의 회원교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제 분열의 세기를 마감하고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³

나아가 군소교단들도 분열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교단이 지난 2004년 12월 20일 하나로 통합된 교단으로 새 출범했다.⁴⁴ ‘통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는 새로운 총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그 동안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통합했으며 신학과 신앙이 같은 교단과 계속 통합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 선언문을 통해 과거의 분열을 회개하면서 하나된 개혁 교단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다짐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의 교회’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1996년 ‘한국장로교목회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예장합동, 통합, 기장, 고신 등 4개 교단 갱신그룹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다가 확대 개편하여 1998년 11월 26일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옥한흠 목사가 피선된 이래, 현재까지 세 번 연임해 이끌어가며 한국 교회 갱신과 연합, 일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00년 5월 19일에 ‘한목협’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분열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둘째로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 분열된 교단들의 상호신뢰가 속히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신학 수립에 신학자들이 앞장설 것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구의 출범이 필요함을 천명하였다.⁴⁵ 그 후 본 단체는 2000년 11월 16일부터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한 정례기도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2001년 6월 19일 ‘한목협’은 다시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 그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교회 화합과 일치를 바라는 성도들의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며, 둘째로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셋째 이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넷째 ‘한교협’과 ‘한기총’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⁴⁶

그 후 ‘한목협’이 산파 역할을 하여 2001년 12월 17일 ‘한국 교회 일치를 위한 교단장 협의회’가 창립되면서 하나의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 일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창립선언문에서 본 협의회는 교회의 하나됨은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임을 함께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일

⁴³ www.pckunity.or.kr 참조.

⁴⁴ 국민일보 2004년 12월 20일자 참조.

⁴⁵ www.churchr.org에서 인용.

⁴⁶ 같은 곳에서 인용.

치되지 않고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시대에 적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통감하면서, 한국교회의 명실상부한 하나의 연합기구인 본 협의회를 창립함을 선포하였다.⁴⁷ 그 1차 회기(2001년 12월 - 2002년 11월)동안 본 협의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통일된 연합체 구성을 위한 헌의안’을 본 협의회 소속 24개 교단에 송부하여 2002년 총회 시에 22개 교단이 본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협의회는 신학교를 소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2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교협’과 ‘한기총’의 기구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 후 본 협의회는 2002년 4월 1일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이하 ‘교단장협’)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더욱 활발하게 연합운동을 전개하여 ‘한교협’과 ‘한기총’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대화위원을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세 기관의 창구 역할을 할 ‘3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실무위원 9인을 선정하여 실제적인 작업을 하도록 했다. 2003년 4월 11일(금)에 세 기관(‘교단장협’, ‘한교협’, ‘한기총’) 대표 18인(3단체 각 6명씩)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범하여 2003년 9월 4일까지 모두 네 차례의 대화모임을 가졌다. 이 대화모임 속에서 대화위원들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작성할 9개 교단의 대표로 구성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무 9인 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맡겼다.

실무를 담당한 9명의 위원들은 ‘한교협’과 ‘한기총’ 양 기구가 각각 생각하는 한국교회 연합을 향한 지향점을 문서로 받은 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 전문”⁴⁸을 작성하여 3인 위원회가 검토한 후 18인 대화 위원회에서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을 간략히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분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본원칙 7개항”이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지향하며,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수행하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면서 관련 사안을 책임 있게 결정, 실천하면서 선교와 사회봉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연합활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며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한국교회의 궁극적인 일치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

그 후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연합 이행과정 10단계”가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이해와 협력위원회 구성: 2004년 초
2. ‘한교협’과 ‘한기총’의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공청회: 2004년 12월 27일

⁴⁷ 같은 곳에서 인용.

⁴⁸ 부록 1 참조.

3. 협의체의 조직 파악 및 (가칭) “한국교회연합”과의 연계성 확보: 2005년 상반기
4. 18인 위원회 주관 하에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전체 공청회: 2005년 하반기
5.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이해와 협력위원회의 주선 하에 사업 위원회 별 ‘한기총’/‘한교협’ 연합체 구성: 2005년
6. 정관(초안) 작성 협의 및 합의: 2006년
7. ‘한교협’과 ‘한기총’ 가맹교단 총회의 교회연합 승인은 이미 결의한 각 교단의 결의를 존중하고 각 교단의 형편을 고려하기로 함: 2006년
8. 정관(초안) 세칙 작성: 2006년
9. “한국교회연합” 출범준비위원회 구성: 2007년 상반기
10. “한국교회연합” 출범⁴⁹

만일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교회 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 한국 교회에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들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정식 목사가 예리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⁵⁰ 특히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장로교 보수진영이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물론 큰 원칙에 동의하고, 각 교파의 신학과 교리를 존중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수진영의 폐쇄성은 하나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호 인정해 주면서 서로 보다 넓게 관용하고 품으며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세력 확장이나 과시 또는 그와 유사한 정치적 야망이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일치와 연합이란 단어가 주로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진보진영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엘리트 의식 또는 오만함을 무의식 중에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에서 비롯된 기득권과 독점의식도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러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마치 가톨릭의 획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형태와 같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다른 분들은 진리를 포기하고 다원주의까지도 수용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염려한다.⁵¹ 필자가 소망하며 강조하는 것은 이번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만들어질 기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고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역사 앞에 다시금 본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차

⁴⁹ 같은 곳에서 인용.

⁵⁰ 같은 곳에서 인용.

⁵¹ 최덕성,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2005) 참조.

원에서 이해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개 교회 간에도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위치한 오중제일교회와 오중교회는 1930년에 한 교회로 설립되었으나 1961년 합동과 통합교단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두 교회로 분열되어 서로 담을 쌓고 최근까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45년 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두 교회가 함께 지난 2005년 3월 27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양 교단을 동반 탈퇴한 후 하나의 교회로 합치기로 결정한 후 4월 17일 연합기념예배를 드렸다. 동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교회의 하나됨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으나 결국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다.⁵²

이러한 교회 연합 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의 자세이다. 상위 기관의 통합은 사실 구체적으로 개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됨이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것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개 교회 및 교단도 분열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연합 운동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최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단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통계가 자주 나온다. 나아가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분들은 더욱 자기와 다른 교단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다. 또한 해외의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교단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 또한 한국 교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지금까지의 분열을 회개하고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추락과 부흥의 기로에 서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서는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됨을 회복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고 주님께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주님 앞에 다 함께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의 비전’을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종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 및 기득권에 집착하여 또 다시 분열하고 실패한다면 한국 교회는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따라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하나됨을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⁵² www.newsjoy.co.kr 변하삼(beon7th), “45년 만에 합친 교회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웠다’: 교단, 기득권 모두 포기하고 손 잡아...지역사회 뒤흔힌 교회상 자리매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관용하며 이해하면서 기도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면 이 비전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비전이 아니요 주님의 비전이며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실체요 앞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분단된 조국의 상황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경제, 스포츠, 교육 및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민족 화해의 길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와 조국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감히 들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외쳐야 하는 하나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선포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하나됨의 비전’은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독일 쾰른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과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제 5장 하나됨의 비전(2): 독일 쾰른 한빛교회

“하나되어 빛을 발하는 교회 (We became one to be the light in the world.)”

- 쾰른 한빛교회 비전선언문 -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일으키신 ‘하나됨의 운동’을 살펴 보았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가?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되 주님께서 1999년 6월 6일 독일의 쾰른(Köln)에서 행하신 사건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주님께서는 이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선 배경적인 의미에서 쾰른의 영적인 역사를 간략히 기술한 후 쾰른 한빛교회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겠다.

쾰른의 영적인 역사

쾰른(Köln)은 독일에서도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ünchen)에 이해 네 번째로 큰 인구 백 만의 도시이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든다면, 로마 제국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율리우스 시저가 주전 53년에 라인강 서쪽의 쾰른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뜻의 콜로니아(Colonia)가 그 이름이 되었다.⁵³ 먼저 이 도시 출신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아그리피나(Agrippina)이다. 이 여인은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Claudius, 참조, 행 11:28; 18:2)와 결혼한다. 이 여인에 의해 쾰른은 크게 발전하게 되어 원래 이름도 콜로니아 아그리피나(Colonia Agrippina)다. 하지만 결혼할 때 그녀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네로(Nero)였다. 이 여인은 정권욕에 불타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든다(A.D. 54). 그러나 결국 그녀도 아들 네로에 의해 독살되는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고(A.D. 59) 네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악명 높은 황제가 된다. 특히 64년에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산 채로 기름을 부어 횃불로 사용하였고 바로 그 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 그러나 4년 후 그도 자살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다.

중세 시대에 쾰른은 유럽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고딕 양식으로 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성당이다.⁵⁴ 1164년 프레드릭 바바로사(Frederick Barbarossa) 황제가 밀라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동방박사 유해를 쾰른으로 가져와 당시의 대주교인 라이날드 폰 다셀(Reinald von Dassel)에게 헌정하자 이 동방박사 유해를 모시

⁵³ 이하 www.kirche-koeln.de/organisation/?mainLev=Geschichte+des+Evangelischen+K%F6ln 참조. 그래서 영어로는 콜론(Cologne)이라고 불린다.

⁵⁴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oelner-dom.de 참조.

기 위해 1248년에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 성당을 건축하는 데에만 632년 걸려 1880년 마침내 완공했다. 중간에 100년 정도 공사를 중단했던 적도 있다. 지금도 쾰른 가톨릭 대교구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며 대성당 하나만으로 쾰른은 독일에서 매년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도시다(아래 사진).



1388년에 개교한 쾰른 대학교는 지금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대학교다. 중세 시대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이 곳 쾰른 대학에 와서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이 곳 쾰른 대학교는 법학, 의학, 경영학 외에도 중세신학이 매우 유명하다.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이 대성당 앞에서 출발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1096년)에 쾰른에 정착하여 은행업을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살해 당했으며 회당이 불타고 군비를 강제로 후원해야만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대성당 앞에서 마틴 루터의 논제들은 불태워졌고(1520) 개신 교도들은 박해를 받아 대표적인 두 지도자 클라렌바흐(A. Klarenbach)와 플리스테덴(P. Fliesteden)이 화형에 처해졌다(1529).

특히 개신 교도들이 쾰른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개혁 이후 쾰른이 라인강을 끼고 한자(Hansa)무역도시로 발전하면서 스페인의 가톨릭 지도자 알바(Alba) 공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지에서 개신교 상인들이 몰리면서부터였다. 이들이 경제권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자 가톨릭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고, 동시에 알바 공의 경고도 있어 시의회를 열어 개신교도의 집회 및 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1565년 시의회에서 가결하였다. 그 이후 개신교도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237년간이나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어느 가정집 지하실에서 10명에서 15명이 모여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얼마 후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이러한 지하교회 역사가 지난 후 1794년부터 1814년까지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쾰른을 점령하면서 비로소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1802년 5월 23일 주일, 쾰른의 개신교도들은 시내 중심의 안토니터 교회

(Antoniterkirche)에 함께 모여 감격적인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당도 원래는 성당이었으나 나폴레옹이 강제로 개신교도들에게 예배당으로 준 것이다(아래 사진). 그래서 지난 2002년은 쾰른의 개신 교회가 20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였다.



그 외에도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트리어(Trier)에서 쾰른으로 와서 1848년에 최초의 공산주의 신문인 신라인일보(Neuen Rheinischen Zeitung)를 발간하였고 엥겔스(F. Engels)는 이 신문의 편집장이었다. 이 신문을 통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유럽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2차 세계 대전시에 쾰른은 대성당 일부와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된 잿더미 도시였다. 하지만 전후 독일의 초대 수상이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먼저 쾰른의 시장을 지내면서 새로운 기본 도시계획을 세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서독 경제를 재건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다. 특별히 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약자로 NRW) 지역은 독일이 전후에 경제 부흥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루르 공업지대가 있는 곳이며 행정수도는 뒤셀도르프(Düsseldorf)지만 가장 큰 도시는 쾰른이다.

지금도 쾰른에선 가톨릭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⁵⁵ 1972년에는 쾰른 출신의 문학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개신 교회는 2차 세계 대전

⁵⁵ 쾰른 교구는 바티칸의 가장 중요한 재정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쾰른 교구의 중요성은 지난 2005년 신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 취임 후 첫 나들이로 쾰른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의 날(Weltjugendtag)’에 참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100만 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카톨릭 행사로서는 독일 교회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끝난 이후에 동구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계에서 점진적으로 유입된 노동자들이 많아져 여러 민족들의 교회가 세워졌다.

퀄른 한빛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이 퀄른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생겨난 것은 70년대 중반부터다. 60년대 초부터 서독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면서 그 지불 보증의 한 방식으로 한국의 광부, 간호사들이 외국인 노동자(Gastarbeiter) 자격으로 대거 서독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인 목회자가 없이 지내다가 서독의 개신교 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와 한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 한인 목회자(장성환 목사⁵⁶)가 정식으로 초청되었다. 초창기에는 한 목회자가 여러 군데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형태로 있다가 차츰 신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목회자들에 의해 한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퀄른 지역에는 이미 80년대에 4-5개의 교파가 다른 한인 교회들이 있었다. 분열된 경우도 있었고 새로 생겨나면서 교회를 옮긴 이들도 있었다.

80년대 말 퀄른 지역의 한인 교회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한인 교회들을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준비시키셨다. 90년 대 중반부터 연합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 교단이 다른 목회자들이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돌아가면서 인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특별히 2세 청소년들의 연합활동이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고리역할을 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난 후,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1998년 말, 필자는 퀄른의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다. 선임 목회자는 장로교 출신으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 같은 규모의 감리교회 담임 목회자도 예기치 않게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자 감리 교회 성도들이 후임 목회자를 모시지 않기로 하고 필자가 부임하는 교회에 통합을 요청하였다.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던 필자는 첫 담임 사역이라 경험도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여러 선배 목회자들에게 자문을 받던 중,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1999년 초부터 주님께서서는 필자로 하여금 오전에는 감리교회에서, 오후에는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양 교회에서 각 6명의 통합위원을 선임하여 매 주일 한번씩 모여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령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서로 명칭이 많이 달랐다. 가령,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제도가 있는 반면 장로교회는 여자 권사가 있었다. 장로교회는 ‘구역모임’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불렀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통합 추진 위원회를 인도하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

⁵⁶ 복음교회 소속으로 현재는 은퇴하여 캐나다에 거주함.

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것은 바로 필자가 부임한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명분은 시기 상조라는 것이었다. 양 교회가 독일의 법원에 등록된 법인체인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전혀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으로 인해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의는 어려워졌다.

그런 와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 세 번째 규모의 한인교회가 자체적으로 해산 예배를 드리고 아무 조건 없이 통합에 동참하겠다고 밝혀온 것이다. 이 교회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진보적인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교민 출신의 담임 목회자께서 스스로 사임하시면서 함께 통합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였고 그 결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다. 당시 담임 목회자는 이미 쾰른 지역의 2세 청소년들 사역에 큰 공헌을 하셨고, 2세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1세 교민들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해오셨기에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소식은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⁵⁷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 번째 교회와 분열되었던 또 한 교회가 있었다. 당시 이 교회는 학생들 몇 명과 장로님 가정 내외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뒤셀도르프에서 섬기시는 목회자께서 오셔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쾰른의 한인교회들이 통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통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목회자는 이미 뒤셀도르프에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리하여 쾰른 지역의 ‘하나됨’은 두 교회에서 네 교회로 확대되면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통합 위원회는 1999년 6월 6일 주일에 통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통합 추진 위원회 모임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마지막 산고의 진통이 뒤따랐다. 필자가 부임한 교회의 일부 교우들이 공동의회에 의해 통과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했다. 물론 인간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감정도 얽혀 있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법적으로 두 개의 법인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결국 필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여 집사님의 남편이신 독일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 분은 필자가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들어올 때 모든 법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입국절차를 책임져 주셨고, 필자가 부임한 교회의 모든 법적인 자문을 해 주시는 저명한 변호사였다. 그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 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두

⁵⁷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장 끝에 수록된 한인교회 출신으로 현 쾰른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최창학 장로의 글을 참조할 것.

법인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법인을 없애고 다른 한 법인체로 합치면 간단하다는 것이다. 순간, 필자는 섬광이 머리를 스치듯, 해결책을 찾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 사실을 알리자 만장일치로 통합을 가결한 감리교회 성도들은 통합을 위해 자신의 법인체를 기꺼이 해산하기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필자가 부임한 교회의 법인체 회원이 되는 형태로 가결하였고 그 정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일시에 풀린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1999년 6월 6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정식 교회 명칭을 아직 정하지 못하여 기존 교회의 명칭들을 합쳐 가칭 ‘윌튼한인연합중앙교회’라고 불렀다.⁵⁸ 또한 예배당은 지금까지 네 교회들이 사용해 오던 교회 중 가장 큰 규모인 필립푸스 교회(Philippuskirch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보통 때에는 절반도 차지 않던 교회가 이 날만큼은 통합된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 손님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차게 되었다. 마침 네덜란드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던 손봉호 장로께서 오셔서 설교해주시기로 하였으나 교통체증으로 인해 지체되어 필자가 대신 엡 4:1-6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나중에 도착하신 손 장로께서는 축사를 해주셨다.

유럽의 대표적인 교민신문인 교포신문은 이 통합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유럽 한인 사회에 널리 알리면서 분열이 만연한 한인교회 및 한인 교포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사건이라고 1999년 6월 11일(금)에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아래 사진).



⁵⁸ 본 장 끝에 수록된 중앙교회 출신의 한춘자 권사, 연합교회(감리교회) 출신의 오중섭 안수집사의 글들을 참조할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된 교회는 비신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대해 분열의 소식만 접하다가 이렇게 하나됨을 회복하니 주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합 후에도 문제는 없지 않았다. 결국 통합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통합 예배를 드린 후 그 다음 주일부터 따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로서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진행해온 일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필자는 통합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남은 분들은 독자적으로 옛날 교회 이름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필자가 부임한 교회가 결국 통합되는 과정에서 작은 분열의 아픔을 맛본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남아 있던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 두 그룹으로 다시 나뉘어진 것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결국 독일교회로 가게 되었고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계속해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학생들은 나중에 대부분 귀국하였고, 교민들도 마침내 4년 만에 다시 하나로 회복된 것이다.

통합된 교회의 이름을 새로 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통합을 시작했던 두 교회에서 동일한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빛'교회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하나되어 빛을 발하라(We became one to be the light in the world)'가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이 되었다. '한'이라는 말은 '하나', 또는 '위대함',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내적인 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빛'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켈튼과 세상에서 빛으로 살자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외적인 면으로 복음의 빛을 땅 끝까지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역의 포커스는 네 가지로 세웠다. 첫째로 복음의 빛을 땅 끝까지 비추어야 할 '선교'의 비전(사 60:1), 둘째로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할 '구제'의 비전(사 58:7-8), 셋째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2세대에 비취게 하는 '교육'의 비전(사 8:18-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봉사'의 비전이다(마 5:14-16; 엡 5:8-9).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직분 문제였다. 어떻게 종합, 정리할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 교단 별로 모두 직제와 명칭 등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 6월 통합예배를 드린 때부터 연말에 새 정관을 만들 때까지 모든 직분을 내려 놓는 것이었다. 장로, 권사, 집사 모두 '성도'로 통일해서 불렀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연말에 새 정관을 통과시켰고 그 정관에 따라 모든 직분들을 회복시켜 드렸다.

‘하나됨’의 보다 큰 비전을 보여 주신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주셨다. 쾰른 한빛교회도 원래는 한인교회로서 공식 독일어 명칭은 ‘Hanbit koreanische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Köln e.V.’였고 영문명은 ‘Hanbit Korean Church in Cologne’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본 교회에 주로 한국 부인들과 결혼하셔서 원래 계시던 독일 교우들 외에 전도하여 나오는 독일분들, 중국 유학생들, 인도네시아, 몽고 형제자매 등을 보내 주셨다. 중국 유학생들은 한 자매가 독일어 학원에서 만나 한번 교회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도하였는데 중국교회가 없는 쾰른에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중국 학생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이들은 중국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한 독일 형제도 이단에 빠져 있다가 한 자매의 권고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였고 나중에는 토요일 새벽기도와 저녁 청년회 모임에도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형제들도 같은 기숙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인도하였고 몽고 자매는 한 교우 가정에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되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한빛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한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 그리하여 결국 2003년 총회에서 교회 이름 중 ‘한인’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2004년 4월 4일에는 독일 형제, 중국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한국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아래 사진).



마침 그 주일은 종려 주일로서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독일개신 교회) 직전 총회장이셨던 만프레드 콕(Manfred Kock)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 세계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국제문화도시 쾰른에서 다민족이 하나 되어 빛을 발하는 ‘Hanbit Community Church in Cologne’가 된 것이다. 주보에 한글, 독일, 영어,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며 예배 시 성경도 보통 중국 형제자매는 중국어로, 독일 성도

또는 2세는 독일어로 그리고 교민 또는 유학생은 한국어 등 최소한 세 언어 이상으로 봉독하고 있다. 한 때 페루 출신의 교우가 출석할 때 스페인어로 성경을 봉독한 적도 있고 쿠르드 출신 형제가 출석할 때에는 터키어로 봉독할 때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어를 추가했다. 나아가 교회의 웹사이트(www.hanbit.de)도 한글 이외에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안내를 첨부했다.

또한 쾰른 주변에는 주로 코소보 등 동구권에서 전쟁을 피해 피난 온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100여 개의 수용소가 있다. 이 난민들은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저항감이 없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한국 선교사님 두 분에게 이들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심어주셨다. 특별히 이 난민들은 대부분 모슬렘들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협력하는 교회의 선교팀을 통해 지난 2004년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이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다(아래 사진).



또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장소로 쓰고 있는 쾰른 시립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휠체어에 태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 2주에 한 번씩 말기암으로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독일 환우들을 방문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 매년 연말에 노숙자들을 섬기고 장애인 시설에 찾아가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 등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인 외국에서 자칫 외딴 섬과 같이 한인들만의 ‘고립된 교회’(ghetto-church)가 되어서는 안됨을 깨우쳐 주셨다. 오히려 이런 점을 과감히 탈피하여 2세, 국제결혼 가정, 입양아, 그리고 다른 외국인 교회들과의 협력 등을 통한 다문화사역(multi-cultural ministry) 또는 다인종사역(multi-

ethnic ministry)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 주신 것이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 로테르담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칼버트 (Robert Calvert) 목사는 이것을 ‘무지개 교회의 비전’(vision for rainbow church)이라고 부른다.⁵⁹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현지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끌어안고 섬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 주님께서 지난 2003년부터 쾰른 한빛교회에 허락하신 한일연합 성찬예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교회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독 연합예배는 정기적으로 있어왔지만 우리가 먼저 제안하여 성사된 제 1차 한일연합 성찬예배는 9월 21일 주일에 드려졌다. 원래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 했으나 휴가가신 분들이 많아 추석이 들어 있는 가을에 드리게 된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그리고 독일어 통역으로 드리진 연합예배에서 ‘화해’를 주제로 한 설교의 서두에서 일본 교회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일본인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⁶⁰ 이 한 마디는 대일감정의 응어리가 맺힌 나이 많은 교민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성령께서 화해케 하시는 감동적인 역사를 교우들이 체험하고 있었다. 설교가 끝난 후 함께 부른 찬송 272장 ‘인류는 하나되게’는 많이 부르

⁵⁹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7장 참조. 그의 설교문은 부록 3.4 참조.

⁶⁰ 설교 본문 전체는 부록 3.2 참조. 쾰른/본 일본교회 홈페이지는 koelnbonn.fc2web.com.

지 않았던 찬송이지만 놀랍게도 일본 찬송가에 정식으로 들어있는 찬송으로 한국인이 작곡(나인용) 작사(홍현설)한 찬송이어서 더욱 의미심장했다.

1. 인류는 하나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2.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 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려다 대화를 막으려다
3.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4.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또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이제 주님의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새롭게 확인했다(아래 사진). 그리고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절이라 우리가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듬해인 2004년 9월말에 드러진 제 2차 한일연합 성찬예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빛교회 찬양대와 일본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어와 일본어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아래 사진). 주님 안에서 인종과 민족감정을 초월하여 진정 화해와 일치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예배 후에는 일본 교회에서 준비한 일본 음식과 한빛교회에서 준비한 한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참가한 이들의 마음도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되어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시 133:1).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교자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변의 한인 교회 목회자들 또는 나아가 관련 있는 독일교회 목회자들과 영어권의 설교자들을 교단에 관계없이 초청하여 설교를 동시통역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교우들에게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섬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독일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라고 불리는 울리히 파르차니(Ulrich Parzany)목사를 매년 초청하여 열정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있으며⁶¹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복한 및 핍박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 도어스(Open Doors) 선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어 또는 화란어로 설교하고⁶² 한국어와 독일어로 통역하고, 동시에 매년 한 번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저명한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부흥집회 또는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2세들을 위해 2세 출신의 전담 사역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교회의 특별한 날 중의 하나로 11월 중에 드리는 ‘회개와 기도의 날(Buss und Bettag)’이 있는 데 2005년에는 수요찬양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독일교회와 그 예배당을 함께 쓰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 (아래 사진)

⁶¹ 울리히 파르차니 목사의 설교는 부록 3.6 참조.

⁶² 부록 3.5 참조



뿐만 아니라 쾰른은 세계적인 수준의 음대가 있어 음악 전공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다. 그 덕분에 한빛교회에는 언제나 정상급의 찬양대와 챔버의 연주로 주님께 영광 드린다. 그래서 매년 말 2회씩 개최되는 성탄절 음악회(아래 사진)는 입추의 여지없이 여러 민족들로 성황을 이루며 매년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의 대회나 교단 총회에 초청 받아 연주로 섬기고 있다.(아래 사진)



다른 한인교회들의 통합

켈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분열된 교회들이 다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뒤셀도르프(Düsseldorf) 지역과 두이스부르크(Duisburg)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함께 하던 성도들이 약 15년간 분열되어 있다가 2000년에 켈른의 경우처럼 다시 하나로 회복된 것이다. 이 교회는 현재 뒤셀도르프 한인교회로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며 지역 사회에서 귀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함부르크에도 한인교회가 1990년에 두 교회로 분열되어 있다가 마침내 최근 2005년 3월 27일 부활 주일에 다시 하나되는 합병 기념예배를 드렸다.⁶³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으셨다. 이제는 개 교회 차원을 넘어 하나되는 비전을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⁶³ 교포신문 4월 1일(금)자 보도 참조.

퀄른 중앙교회에서 퀄른 한빛교회로

한춘자 권사

“... 거룩한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15년 전부터 주님께서는 퀄른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 목사님들을 통해, 부활절 연합예배, 야외 예배 등 여러 방법으로 일하셨다. 통합 일년 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렸다. 청소년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고 제직 세미나, 목사님들 모임, 아침 커피 시간을 같이 하시는 등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러므로 한빛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고 정확하셨다. 퀄른의 목사님들께서 한 분, 두 분 한국으로 떠나시고 한인교회를 섬기시던 정 목사님께서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임하셨으며 최 목사님께서 중앙교회 담임으로 오셨는데 퀄른 교회 역사도 잘 모르셨고 생소하셨다. 통합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주의 종은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종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이다.

매년 3월초 되면 세계 여성 기도의 날이 있다. 각 나라 문화도 나누고 각각의 은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말씀, 찬양,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계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도 순서를 맡아 찬양과 율동으로 섬기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의사를 찾아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다면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한 결과 담석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다. 성경을 읽으며 “이 순간이 천국이구나”하는 행복을 느끼며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았다. 병가 기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요 17:11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다. 특별히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때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 한빛교회를 뜻하시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에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주셨다. 목사님과 제직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봉사하고 섬김으로 한빛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작고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 교회가 빚어지고 다져져서 더욱 성숙해진다.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다(엡 5:27, 찬 245장).

켈른 연합교회에서 켈른 한빛교회로

오중섭 안수집사

켈른 지역의 한인교회들은 1988년부터 상호 교류를 계속해왔다. 부활절 연합 예배, 부흥집회, 찬양집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및 연합예배, 청소년 지도자 모임 등 이러한 연합활동은 교회 통합의 지름길이 되었고 개 교회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각 교회 목회자, 교회 대표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이는 횡수가 점점 늘어나 켈른 지역 교회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새벽기도회, 청지기 수련회, 수요 예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한인교회, 연합교회 그리고 중앙교회 세 목회자께서 사임하셨다. 유일하게 중앙교회 후임으로 오신 최용준 목사에게 교회 통합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졌다. 최 목사께서 연합교회에서 통합될 때까지 임시 목회자로 사역하시게 되었고 두 교회의 사역을 맡으면서 두 교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두 교회가 하나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최 목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합교회는 1999년 2월 7일 예배 후 교회 통합이 합의되었다. 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마땅한 성도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1999년 2월 3일(수) 오후 7시 중앙교회(Petri Kirche)에서 목회자 이취임 예배가 있었다. 9년 동안 열심히 섬기시다가 귀국하는 오 목사, 이제 통합이라는 힘든 과제를 안고 새로 부임하시는 최 목사,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난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통합 준비는 빠르게 진행 되었다. 1999년 5월 30일 각 교회 총회에서 통합안이 통과 되었다.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되어 6월 6일 교회 통합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를 혹평하던 사람들도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교인수가 많아져 비교적 규모가 큰 필립푸스(Philippus) 교회당을 사용하게 되었다. 각 교회마다 20년 이상 역사가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는 한 몸인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제 통합된 지 5년이 넘었다. 지금 한빛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이다.

켈른 한인교회에서 켈른 한빛교회로

최창학 장로

켈른한인교회는 1977년 4월 23일 현 크로이쯔(Kreuz, 십자가) 교회에서 약 4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여 당시 한인교회 연합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시던 장성환 목사를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1999년 5월 30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날 설교해 주신 송병구 목사께서는 새로이 맞게 되는 교회 통합을 축복해 주셨다.

통합 준비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97년부터 연합으로 새벽 제단을 쌓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 드리기 시작하여 2년간 지속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통합을 결정적으로 앞당긴 것은 청소년 2세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2세대 간에는 이미 교회의 담이 없어졌다. 그 때 한인교회를 섬기시던 정참중 목사께서 2세들을 위해 기증하신 앰프와 장비들이 지금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켈른 지역 교회 협의회 안에서 1998년 교회 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한인교회는 11월 연말 제직회에서 중앙교회와 감리교회만 합의되면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통합한다고 결정하고 이 의사를 양 교회에 전달했다.

주님께서 같은 시기에 중앙교회 오 목사와 감리교회 구 목사를 귀국하게 하셨다. 중앙교회에서는 현 켈른 한빛교회 담임목사이신 최용준 목사를 후임으로 초빙하였다. 같은 시기에 한인교회를 시무하시던 정참중 목사는 99년 초 개인 사정으로 목회를 사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통합에서 제일 풀기 힘든 과제를 모두가 만족할 방법으로 한 순간에 해결해 주셨다.

약 3개월간에 걸쳐 인내하며 자기 비우기를 거듭한 당시 통합 추진 위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99년 4월 통합 추진 위원회에서 참석을 요청하여 가보니 이미 거의 모든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소원하며 기도 드리던 일을 목전에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다니...

1999년 6월 첫 주일 통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최 목사의 은사이신 손봉호 장로께서는 말씀 중에 하나됨을 잘 이루었으니 더욱 힘써 잘 지켜 나가도록 당부하셨다. 필자에게는 통합 이후로 계속되는 감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로 더불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닿아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우리 교회는 현재 독일 라인란드 종교청에 회원교회 등록 신청을 해 놓았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빛교회가 독일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6장 하나됨의 비전(3): 독일 및 유럽 내 교회들과의 연합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1)

'하나됨'에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하나됨과 개 교회가 분열을 회복하는 하나됨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교단의 하나됨이 있다고 앞에서 밝혔다. 본 장에서는 앞 장과는 달리 각 교회간의 하나됨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쾰른 내 외국인교회들이 어떻게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함으로 한 도시 내에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겠고, 또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주의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설명한 후, 나아가 NRW주 내의 외국인 교회들이 연합된 ACMK(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n Migrationskirchen in NRW, e.V)의 탄생 경위 및 사역을 나눔으로 하나됨의 비전을 좀더 구체화시켜 보겠으며 더 나아가 유럽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움직임과 유럽의 한인 교회들이 하나되는 운동을 일으킨 KCTE(Korean Church Together in Europe) 모임과 비전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일어난 하나됨을 위한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하나됨의 비전을 제시해 보겠다.

쾰른 내 외국인교회들의 하나됨

쾰른은 독일에서도 가장 다인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 중의 하나다. 전 세계에서 170여 개국에서 온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다. 그러므로 외국인 교회들도 수십 개 있다. 쾰른 내 모든 개신 교회들 및 가톨릭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 목회자를 한 명 별도로 세웠다. 이 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합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달에 한번씩 모이는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정기 모임이다.⁶⁴ ‘쾰른 지역 국제 기독교회 협의회(IKCG: Internationale Konvent Christlicher Gemeinden in der Region Köln)’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협의회에는 쾰른 한빛교회, 일본교회, 헝가리교회, 화란교회, 핀란드교회, 불어권 교회 그리고 다양한 아프리카교회들이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있다.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서로 소개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욱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서 다양한 연합 사역을 통해 독일 교회와 교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 자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귀한 하나됨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이 모임도 필자가 쾰른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99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님께서는 쾰른 지역에서 개교회의 하나됨과 동시에 지역

⁶⁴ 이 사역을 하시던 독일 목사님(Pfr. Dr. Hans Georg Link)은 지난 2004년 7월에 은퇴하셨다. 독일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들은 베를린(Berli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그리고 함부르크(Hamburg)이다.

교회들의 연합사역도 시작하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개 교회들간의 갈등, 특히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의 이합집산, 불성실한 참여 그리고 개 교회 사역이 많아 모든 연합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께 섬기려고 애쓰고 있다. (아래 사진)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역을 간추린다면 먼저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는 시내 중심에 있는 안토니터 교회(Antoniterkirche)⁶⁵에서 연합 예배(Ökumenisches Abendgebet)를 드리는데 여러 교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저녁에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념 축하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9월 마지막 한 주간은 다문화주간(Interkulturelle Woche)으로 설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며 주일 저녁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각기 고유한 음식들을 만들어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 저녁에는 쾰른의 유명한 성 마틴 대성당(Gross St. Martin Kirche)에서 국제 성탄 합창제를 개최하는데 각 외국인 교회들이 출연하여 자기 나라 언어로 두 곡씩 찬양하는데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다. 그 외에도 여러 연합 행사들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⁶⁶

필자가 한일 연합 예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모임을 통해 일본 교회 목회자와 교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연합 예배를 통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주님을

⁶⁵ www.ev-gemeinde-koeln.de/index.php3?seite=278 참조.

⁶⁶ 지난 2005년 5월 22일에는 쾰른의 Trinitatiskirche에서 토마스 메세(Thomas Messe)라고 하는 정기적인 연합 예배가 드려졌는데 특별히 이 날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60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화해'가 주제였다. 마침 한국의 CTS방송국이 취재를 나와 촬영하였고 지난 2005년 9월 19일 방영되었다.

섬기시기를 보는 것 또한 큰 배움이며 우리의 신앙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구촌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는다.

이러한 사역은 다른 세계의 주요도시들마다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한국 내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의 주요 도시마다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외국인 교회들을 함께 묶어주는 사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만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도시나 지역별로 이러한 모임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개 교회 내에 단지 외국어 예배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더 외국인들, 가령 제 3세계에서 온 근로자들을 섬기는 부서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지 국가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한인교회들의 하나됨

또한 주님께서는 쾰른이 속해 있는 독일의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RW)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 되는 협의회를 2002년 탄생시키셨다. 이전까지는 거의 교단 내지 교파별로만 모였는데 이 모임이 창설된 계기는 2000년부터 독일 개신 교회 중 부퍼탈(Wuppertal)에 위치한 연합복음선교회(VEM: Vereinte Evangelische Mission)⁶⁷에서 일하는 클라우디아 오파우(Claudia Währisch-Oblau) 목사가 NRW의 외국인교회들과 독일교회간의 협력 사역자로 일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외국인교회들 전체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모인 한인교회들에 의해 연합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기도와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2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다(아래 사진). 이 모임 역시 쾰른의 한빛교회가 탄생한 이후 그리고 쾰른 지역 국제 기독교회 협의회가 창설된 이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역사로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고 현재 분기별로 모이면서 상호 협력하며 교제를 증진시켜 나아가고 있다. 회장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 각 교회에서 임

⁶⁷ www.vemission.org 참조.

원이 선출되어 섬기고 있다. 이 모임에는 현재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하며 서로 강단 교류도 하면서 하나됨을 위해 연합 행사를 하고 있다.⁶⁸ 아직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동시에 2세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⁶⁹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협력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활절 연합 예배와 같이 대구 모의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도 가능하다. 가령 대구 지역에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대구 지역과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다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간에도 이런 사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목회자 협의회가 교단을 넘어 주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며 동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더 활성화한다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외국인교회들의 하나됨

독일의 NRW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외국인교회들이 2005년 현재 400여 개 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들도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사역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우디아 베리쉬-옴라우 목사가 1998년부터 연합복음선교회(VEM: Vereinte Evangelische Mission, www.vemission.org)에서 주관하는 이 지역의 독일교회 및 외국인교회 협력 프로그램(Programm zur Kooperation zwischen deutsch- und fremdsprachigen Gemeinden in der Region Deutschland der VEM) 담당자로 1998년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본 프로젝트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⁷⁰

1. 이민 교회 및 이민자들의 상황에 대한 의식을 일깨움: 그들은 독일에 살고 있고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독일 교회들과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
2. 새로운 선교운동의 의식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들은 독일을 사역지로 인식하고 있다.
3. 이민 교회들의 개척 및 독일 교회 및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지원한다.
4. 독일 교회와 이민 교회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5. 공동 사역 및 문화간의 복음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6. 상호 이해 및 수용을 촉진한다: 교회 내 인종차별을 극복한다.
7. 교회의 국제화 및 다문화화를 추구한다.

⁶⁸ 가령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2005년 6월 5일 거행된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한독 연합 성찬예배 및 장로 임직 예배에서는 본 협의회 목회자들과 다른 외국인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안수하 기도 하였다.

⁶⁹ 가령 지난 2004년 10월에 새로 부임한 2세 사역자를 중심으로 2005년 10월 15일 NRW의 2세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성가경연대회 및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⁷⁰ www.vemission.org/migrationskirchen 참조. 현재 다른 파트타임 사역자들도 있다.

옵라우 목사는 먼저 이 지역의 모든 외국인교회들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남편 고트하드 옵라우(Gotthard Oblau)목사와 함께 중국 남부지역 및 홍콩에서 십여 년간 선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 불어, 중국어에 능통하며 외국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사역하여 많은 외국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매년 외국인 교회 전체 모임이 있었고 독일교회 대표자들과 외국인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2개월마다 한번씩 모임(Komitee fremdsprachiger Gemeinden이라고 불림)을 가져왔다(아래 사진). 고트하드 옵라우 목사는 특히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과정인 ‘다문화 상황 속에서의 교회(KiKK: Kirche im interkulturellen Kontex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강사를 초빙, 외국인 교회 목회자 후속 교육사역을 담당하고 있다.⁷¹



사진 설명(왼쪽부터): Affo Mudiandambo(아프리카 불어권), Joshua Wilfred(아프리카 영어권), Yong-Joon Choi, George Melel(인도), Claudia Währisch-Oblau(독일), Peter Ohligschläger(독일 베스트팔렌 지역), Sándor Gábry(헝가리), Rudolf Gebhard(독일 및 스위스 불어권) 기타 사진에 빠진 분들은 Christine Busch(독일 라인란드 종교청), Lee Young-Suk(한인교회), Edmund Sackey-Brown(아프리카 영어권), Ursula Harfst(독일)이다.

이 외국인 교회 대표자들이 2003년에 모여 외국인 교회 협의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유럽 대표 두 교회, 아시아대표 두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대표 세 교회(영어권 두 교회, 불어권 한 교회)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정관을 만든 후 2004년에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기독교인교회 협의회(ACMK: 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n Migrationskirchen in Nordrhein-Westfal)’라는

⁷¹ 고트하드 옵라우 목사의 ‘하나됨’에 대한 설교문은 부록 3.1 참조. 필자도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과 외국인 교회로서의 독일 내 선교 사역들’에 관해 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름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독일교회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 핵심 비전과 목표는 먼저 이민 교회들의 관심사들을 독일 교회 및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에 대표하고, 독일 현지 교회들과 연결 및 협력사역을 추구하며,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의 교회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여러 종류의 행사들과 활동들을 통해 이민 교회들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⁷²



본 협의회도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임원회를 통해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독일 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성(unity in diversity)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 중의 한 사역은 ‘하나됨의 목소리(Voice of Unity)’라고 하는 회지를 발간하여 각 교회를 소개하고 주요한 행사들을 안내하여 상호 교류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⁷² 부족하나마 필자가 본 협의회 of 초대 회장직을 2년간의 임기로 섬기고 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기름의 향기가 온 몸을 아름답게 하고 산 이슬이 그 지역을 풍요하게 만들듯이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친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서로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모임에 갈 때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절실하게 느낀다.

이러한 모델 역시 한국 내 그리고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한국 교회 협의체에서 국내의 외국인 교회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 교회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역자를 세워 함께 협력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사역이 가능해질 것이다. 해외의 한인 교회들도 한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사역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회들과 연합한다면 서로 배울 점도 많이 있을 것이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더욱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내 한인 교회들의 하나됨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서는 2001년부터 2년간의 준비 끝에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큰 집회가 2003년 5월말에 독일 게제케(Geseke)에서 개최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은 유럽 한인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로 한인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현지교회 지도자들도 참가함으로 명실공히 글로벌한 '하나됨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룬 사건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임이 단순히 유럽 내 한인교회들의 자체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주님께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 개혁교회 연맹(WARC: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⁷³과 존 나스 국제 개혁 센터(John Knox International Reformed Centre)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하나됨의 사역(MIU: Mission in Unity 1999-2005)' 프로젝트⁷⁴의 일환으로 양 기관 및 유럽교회협의회(CEC: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⁷⁵ 공동주관으로 세계 개혁교회 연맹의 '협력과 증거분과(Department of Cooperation and Witness)'에서 사역하시던 박성원 목사를 통해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즉, 유럽에 있는 국제적인 교회 협의체가 주관하고 후원하여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는 것은 한편 감사한 일이면서 다른 한편 한인 교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2001년 6월 5일에서 8일까지 존 나스 국제 개혁 센터에서 개최된 “재 유럽의 한인교회 협력

⁷³ www.warc.ch 참조.

⁷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warc.ch/miu/index.html 참조.

⁷⁵ www.cec-kek.org/index.shtml 참조.

증진을 위한 신학협의회”에서 유럽에 거주하는 다민족 특히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인들과 한인 교회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하였다. 본 협의회 배경 설명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가 모국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므로 유럽에 있는 교회도 분열되거나 분열되지 않더라도 독립교회로 세워지고 이 때문에 교회간의 교제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 유럽한인교회는 평신도 구성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초 교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의 교단배경에 따라서 교단적 성격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자주 교민 사회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어느 교민사회에나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⁷⁶

이러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협의회에는 유럽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재일 대한기독교회, 한국교회의 교단 대표들 그리고 유럽 각 지역에서 한인 교회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유럽교회 대표자들도 참여하였다. 이 모임은 한인교회와 유럽교회 모두에게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는 하나의 탐험이었으며, 유럽에 살면서도 서로 교류가 없었던 한인교회들⁷⁷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귀중한 시간이었다. 나아가 교파간, 특정 소속 그룹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며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고 한국 교회 분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귀한 기회이었으며 나아가 재 유럽 한인교회 대표들이 유럽교회⁷⁸ 대표들을 처음으로 한꺼번에 만나는 장이기도 하였다.⁷⁹ 모든 참가자들은 유럽과 같은 급변하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 교회의 비전은 상호 협력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함을 결론으로 삼았다.⁸⁰ (아래 사진)

⁷⁶ 재 유럽 한인교회 협력 증진을 위한 신학협의회 한국어 배경 설명 공문(제네바, 2001. 1. 25)

⁷⁷ 필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게토 멘탈리티(ghetto mentality)’라고 부르며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한인교회들은 한인공동체의 하나됨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⁷⁸ 유럽 교회 역시 급변하는 지구촌 시대에 아직도 자국 내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럽교회협의회(CEC)를 통해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기는 하나 그 하나됨의 정도는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연합의 정도보다 훨씬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성원, “타자(他者)속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others)” 재 유럽 한인교회 협력 증진을 위한 신학협의회에서 발표된 논문 참조.

⁷⁹ 아프리카의 가나 대학교와 독일 카셀 대학교 신학부에서 신약을 강의하고 있는 베르너 칼(Werner Kahl) 교수는 2001년 10월 29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개최된 네덜란드 연합 개신 교회 및 독일의 연합 복음선교회(VEM)의 협의회에서 발표된 논문 “A theological perspective – The common missionary vocation of mainline and migrant churches”에서 유럽에 있는 제 3세계 교회들에 대한 유럽 교회의 교만함과 고자세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유럽 교회는 이 이민 교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겸허하게 형제 자매로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예배와 신학의 분야에서 유럽 교회는 오히려 유럽에 있는 제 3세계 교회로부터 배워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즉, 유럽 교회에 대해 유럽내의 외국인 교회들은 하나의 도전이요 축복이므로 함께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⁸⁰ 본 협의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warc.ch/miu/koreur.html 참조.



본 협의회가 끝난 후 구성된 후속 추진위원회는 2003년 5월말 독일의 게제케에서 유럽 한인 신앙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주제는 칼뱅이 1538년 그의 “교리 문답 및 신앙고백서” 서문에서 주창한 ‘함께 호흡하기(*pia conspiratio: breathing together*)’로 선정하였다. 오랜 준비 끝에 개최된 이 집회에는 유럽 전역에서 약 700여명의 한인 교회 교우들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참여하였고 기타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도 참여한 역사적인 집회가 되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후속적인 사역을 위해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와 비전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함께 공유되어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인 교회 협의체들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협의체들이 그 지역의 현지 교회 협의체들과 활발한 교제를 나누면서 가능한 사역들을 나눌 때 서로가 신선한 영적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의 하나됨 캠페인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독일 교회의 복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하나됨의 운동을 일으키셨다. 2004년,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EAD: Die Evangelische Allianz in Deutschland)⁸¹는 'Eins: Aufbruch zur Einheit(하나: 하나됨을 위한 쫓겨)'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8개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독특한 집회와 캠페인을 벌였다.⁸²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캠페인은 'Eins'라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을 총책임지고 있는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피터 스트라우흐(Peter Strauch)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도

⁸¹ www.ead.de 참조..

⁸² www.impulstour.de 참조.

록 결단과 헌신을 촉구했다.⁸³ 그러면서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9가지 논제로 제시했다.⁸⁴

1. 영적 하나됨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이다.
2. 영적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와 한계를 가진다.
3. 영적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제이며 (제도적) 교회의 연합이라기 보다는 형제 자매간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4. 영적 하나됨이 오직 형제 자매들간의 교제를 통해 표현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들에게 더 폭넓게 섬길 수 있다.
5. 영적 하나됨에 대해 교회들간에 그리고 기독교적 운동들과 사역들 간에 대화를 나눌 때 복음주의 협의회가 신앙적 기초가 유용한 도움이 된다.
6. 영적 하나됨은 그 본질상 가르침이나 지식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그 모든 근거를 가진다.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근본적으로 복음주의 협의회 일원이다.
7. 복음주의 협의회 차원에서 체험된 하나됨이 한 교회 공동체에 묶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8. 영적으로 하나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와 인식이다.
9.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로 인해 우리는 상처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인정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독일 복음주의 협의회는 자체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위해 준수해야 할 9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전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창조하셨기에 나의 생각, 기도 그리고 행동에 있어 나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지향한다.
2. 그리스도의 다양한 몸은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나는 다른 전통이나 경건스타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3. 나도 보완적 존재이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4.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불평등하게 무시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⁸³ Idea Spektrum(Nachrichten und Meinungen aus der evangelischen Welt), 2004년 4월 21일(17호)자, p. 14-17.

⁸⁴ Peter Strauch, “Von Weite und Grenze geistlicher Einheit: Weshalb die “Einheit in Christus” bei der Evangelischen Allianz oberste Priorität hat.(영적 하나됨의 넓이와 한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는 이유), *Eins*, (Die Evangelischen Allianz in Deutschland, 2004년 3월), pp. 11-13.

5. 한 교회 내에도 영적, 자연적 은사와 재능은 다양하므로 나는 교회와 그룹들이 서로 섬기며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6.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교회와 그룹들이 이 선교 사명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7. 이러한 의도는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정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8. 이러한 의도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선한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꿈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캠페인과 더불어 루돌프 베스터하이데(Rudolf Westerheide)라고 하는 독일 목사는 “Eins: Wie wir als Christen glaubwürdig werden(하나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을만한 사람들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⁸⁵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다양성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됨은 상호 보완을 이루는 것이며 서로 먼저 회개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양성을 포용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독일 복음주의 협회회의 이러한 시도는 독일과 유럽 다른 나라에 신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시도될 수 있고 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도 복음주의 협회회는 매우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독일 복음주의 협회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집회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캠페인 형태의 사역을 전개한다면 한국 교회의 분열을 회복하는데 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면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유럽 내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들을 살펴보겠다.

⁸⁵ Dormagen: Brockhaus Verlag, 2004.

제 7장 하나됨의 비전(4): 유럽 및 세계 교회의 연합 움직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 11:52)

현재 유럽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유럽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교인수도 급감하여 교회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복음주의적 주간지인 Idea Spektrum의 통계를 보면 1950년에만 해도 개신교인은 4,220만, 가톨릭 인구는 2,320만이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가톨릭 인구는 2,600만으로 약간 증가한 반면 개신교인은 2,570만으로 급감했다. 이는 1년마다 약 30만 명이 교회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자연사를 제외하고도 1년에 약 20만 명, 한 달에 약 2만 명, 하루에 최소한 6백 명이 교회를 스스로 떠났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독일 개신 교회는 교인들을 잃지 않기 위해 광고를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교인 숫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⁸⁶

나아가 유럽 교회의 예배가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개신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교회 세금⁸⁷을 내고 있지만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 전체 교인수의 4%밖에 되지 않는다. 2,570만의 4%는 겨우 10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도 대부분 노인들이다.

셋째로 이러다 보니 유럽에서 교회는 점점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는 아직도 기독교적 문화가 분명히 남아 있다.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며 인격적으로 책임의식 있게 행동하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신실하고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기독교 단체들도 많다. 그러나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⁸⁸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독일 교회는 이제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깨어있는 영적

⁸⁶ Idea Spectrum, 2005년 8월 31일자 (35호). 2005년에 한국의 CTS방송이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유럽 교회의 위기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이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제목은 ‘유럽 교회의 위기, 한국교회를 본다’였고 제 1부로 ‘선교지가 된 종교개혁지’(독일), 제 2부는 ‘사라져 버린 청교도들의 발자취’(영국)였다.

⁸⁷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종교란에 자신의 신앙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개신교로 등록하면 종교청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개신 교회(Ortsgemeinde) 교적부에 그를 자동적으로 등록시키면서 소득세의 약 8%를 교회세(Kirchensteuer)로 원천 징수한다.

⁸⁸ 이러한 사람들을 독일어로는 „카드 그리스도인(Kartei-Christen)“이라고 한다. 영어로 말하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paper or nominal Christians)“이다.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분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럽 교회의 역사는 분명 분열의 역사였고 종교 전쟁의 역사였다. 이제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 유럽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럽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나름대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려는 운동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각 교파의 신앙고백 및 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로이엔베르그 협정,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 기타 다른 대륙들의 교회순으로 다루어 보겠다. 이것은 개 교회 차원이 아니라 교단 및 교파 간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유럽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 각 교파의 신앙고백 및 선언

종교 개혁 이후 유럽의 개신 교회들은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의 일치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루터교회의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Augsburger Bekenntnis, 1530) 제 7조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이며 거룩한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성도의 회중이 교회이다.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족하다.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엡 4:4-5)이므로 인간의 전통, 곧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의식과 예식이 어디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⁸⁹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영국 성공회도 개신 교회의 분열상을 깊이 회개하면서 1888년 소위 시카고-람베드-컨퍼런스(Chicago-Lambeth-Conference)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과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⁸⁹ www.heiligenlexikon.de/index.htm?Literatur/Augsburger_Bekenntnis.htm. 원문은 다음과 같다: “Es wird auch gelehrt, dass allezeit eine heilige, christliche Kirche sein und bleiben muss, die die Versammlung aller Gläubigen ist, bei denen das Evangelium rein gepredigt und die heiligen Sakramente laut dem Evangelium gereicht werden. Denn das genügt zur wahren Einheit der christlichen Kirche, dass das Evangelium einträchtig im reinen Verständnis gepredigt und die Sakramente dem göttlichen Wort gemäß gereicht werden. Und es ist nicht zur wahren Einheit der christlichen Kirche nötig, dass überall die gleichen, von den Menschen eingesetzten Zeremonien eingehalten werden, wie Paulus sagt: "Ein Leib und ein Geist, wie ihr berufen seid zu einer Hoffnung eurer Berufung; ein Herr, ein Glaube, eine Taufe" (Eph 4,4.5).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선언했다.

- (a) 신구약 성경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신앙의 유일한 규칙과 최종 기준임을 인정함.
- (b) 세례의 상징으로서 사도신경과 기독교 신앙의 충분한 선언으로서 니케아 신경.
- (c)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세례 및 성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행하는 것.
- (d) 지방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교구.⁹⁰

동방정교회 또한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통에 입각한 신앙과 사도적 전승에 의한 성례가 집행되는 동방교회를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보다 먼저 성례의 하나됨을 통해 회복되어야 하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⁹¹

가톨릭 교회의 경우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서는 초대 교회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200-258)이 저술한 “교회의 하나됨(*De ecclesiae unitate*)”이라고 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의 4장에서 그는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한 몸과 한 성령, 한 소망의 부르심,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강조했다.⁹² 그 후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역시 1962년부터 1965년간 개최된 제 2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복음의 선포 및 성례의 집행과 더불어 사도직의 계승권을 덧붙임으로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가톨릭 교회 중심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사실상 가톨릭과 다른 교회와의 하나됨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유럽 개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1): 로이엔베르그 협정

1973년 3월 스위스의 작은 마을 로이엔베르그에서 모여 시작된 “로이엔베르그 교회 헬로우십(Leuenberg Church Fellowship)”은 개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함께 작성한 공동 문서를 로이엔베르그 협정(*Leuenberger Konkordie/Leuenberg Agreement*)이라고 한다.⁹³ 이 문서는 로이엔베르그에서 초안되었고 계속

⁹⁰ anglicansonline.org/basics/Chicago_Lambeth.html#Lambeth%20Conference%20of%201888%20Resol

⁹¹ “Basic Principles of the Attitud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oward the Other Christian Confessions” adopted by the Jubilee Bishops' Council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ugust 14, 2000. orthodoxeurope.org/page/7/5/1.aspx 참조.

⁹² tserkovnost.org/reformed/cyprian_unity.html 참조.

⁹³ Die Kirche Jesu Christi: Der reformatorische Beitrag zum oekumenschen Dialog ueber die kirchliche Einheit, Im Auftrag des Exekutivausschusses fuer die Leuenberger Kirchengemeinschaft(Gemeinschaft reformatorischer Kirchen in Europa)/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Contribution of the Reformation towards Ecumenical Dialogue on Church Unity, By ord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the Leuenberg Church Fellowship, Leuenberger Texte Heft 1, (Frankfurt am Main: Verlag Otto Lembeck, 199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lkg.jalb.de/lkg/lkg/start.php 참

협회가 이루어지다가 1994년 5월 3일에서 10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기권 1표)로 채택되었는데 이 모임에는 유럽 전역과 5개의 남미 교단을 포함한 90개의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연합교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은 가톨릭 교회의 제 2 바티칸 공의회에 필적하는 개신 교회 대표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2003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유럽 개신 교회 공동체(The Community of Protestant Churches in Europe: CPCE)”라고 불린다. 본 협정은 450년간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분열을 회복하는 역사적 문서로서 복음에 대한 공동 이해에 기초하여 서로 강단을 교환하며 성찬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및 신학적 사역에 상호 협력하고 있는데 교회의 통일성(The *unity* of the church)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통일성은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조계를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에 뿌리박고 있다. 종교개혁의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통일성은 따라서 교회들 자체적인 행동으로 성취되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조직의 역사적 형태와 모습들의 다양함을 지니면서도 교회들 간의 살아있는 교제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가시적 방법으로 증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⁹⁴

나아가 본 협정은 교회의 통일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word)’과 ‘성례(sacrament)’를 언급하면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확신(fundamental conviction of the Reformation)*을 재확인하였다.⁹⁵ 나아가 진정한 교회의 표식들(the marks of the true church: *una sancta catholica et apostolica ecclesia*, 즉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및 사도성)이 존재하고 교리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교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⁹⁶ 이러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특히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기타 개신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 교회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과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므로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함(롬 5:3-5)을 역설하고 있다.⁹⁷

조.

⁹⁴ 같은 책, p. 92.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y* of the church as the community of saints is rooted in the unity of its origin, i.e. in the unity of the triune God who in the power of the reconciliation in Jesus Christ consummates the creation through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formation this unity is therefore not an ideal still to be achieved by the churches’ own activity, but it has been given to Christians and to the churches as the work of God. Thus the churches are faced with the task to witness in visible ways to this gift of God as the foundation for living fellowship among the churches in the diversity of their historical shapes and forms of organization.”

⁹⁵ 같은 책 p. 119.

⁹⁶ 같은 책 p. 122.

⁹⁷ 같은 책 p. 126-127.

유럽 개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2): 네덜란드의 경우

그 이후 유럽 교회 내에는 점점 더 하나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4년 5월 1일,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The Netherlands Reformed Church),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그리고 루터란 교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의 세 교단이 통합하여 네덜란드 개신 교회(PKN: Protestantse Kerk in Nederland,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Netherlands)가 탄생했다.⁹⁸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그리고 19세기에 일어난 두 번의 분열 이후에 네덜란드 교회들이 각기 제 길로 걷다가 이제 다시 만난 것이다. 앞의 두 교단은 이미 40년 전부터 통합을 의논해 왔으며 루터 교회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네덜란드어로 “Samen op Weg(함께 가는 길)”이라고 부른다. 그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 2003년 12월 12일의 선언문⁹⁹을 살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이 그를 믿도록 기도하셨음을 믿으며 통합한다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네덜란드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표현하며 교회 내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시적인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이 이 교단과 협력하여 1997년에 ‘스킨’(SKIN: Samen Kerken in Nederland: www.skinkerken.nl)이라고 불리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사실이다. 즉, 네덜란드의 외국인 교회들이 하나되어 네덜란드 개신 교회와 다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앞 장에서 언급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의 외국인교회 협의체(ACMK)와 같은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협의체의 일원이면서 네덜란드 최대 국제 항구도시인 로테르담(Rotterdam)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국제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로버트 칼버트 목사(Rev. Robert Calvert)는 소위 ‘무지개 교회(rainbow church)’의 비전을 제시한다. 즉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여러 인종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다문화사역(multi-cultural ministry)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들처럼 여러 인종들이 함께 하나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될 것이다.¹⁰⁰ 이러한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SKIN과 독일의 ACMK는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개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3): 영국과 이태리의 경우

⁹⁸ www.pkn.nl 참조.

⁹⁹ www.protestantchurch.nl 참조. 통합선언문 전문은 부록 2 참조.

¹⁰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placenetwork.org 참조..

유럽 교회 중에서 특히 영국 교회의 쇠퇴는 가장 경이적이다. 우리 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토마스(Thomas) 목사를 파송했던 웨일즈(Wales)의 하노버교회(Hannover Church)도 이제는 장로님 내외분만이 쓸쓸히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를 파송했던 교회도 이제는 타 종교 건물로 변했다고 한다. 많은 예배당들이 디스코텍, 도서관, 사무실, 수영장 등 다른 용도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부족하여 웨일즈의 뉴포트(New Port) 지역의 영국 교회는 필자가 알고 있는 한인 목사를 담임목회자로 청빙했다.¹⁰¹

이러한 가운데 굼직한 교단들이 급감세를 보이면서 교단간에 협력 내지는 통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복음의 절대 진리성과 교회에 대해 확신(confidence)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에서 만난 영국의 한 여 목사는 이 사실을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단간에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연합 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는 1972년 영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와 영국 및 웨일즈의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 in England and Wales)가 통합된 교회이다. 1981년에는 다시 그리스도 개혁교회(Reformed Churches of Christ)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2000년에는 스코틀랜드 회중 연합(Congregational Union of Scotland)도 이 교회에 흡수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연합 개혁교회는 영국의 개혁교회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또 한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2003년 11월 1일 토요일 영국 런던의 감리교회 중앙 홀에서는 엘리자베드 여왕이 배석한 가운데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 간에 협정(Covenant)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영국교회 역사상 “유기적 연합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이 되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 교회가 사도적 신앙, 교회의 본질 및 사역 그리고 완전한 가시적 연합에 대해 동의하면서 과거의 모든 분열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연합하게 됨을 감사하며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을 재확인한 후 무엇보다 양 교회의 유기적 연합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가시적 연합을 이루는 일에 최우선을 둘 것을 결정하였다.¹⁰²

이러한 역사적 협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1995년부터 비공식적인 대화가 시도된 이후,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3년의 공식적인 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 교회는 대표 위원 5명을 각각 선발하였으며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에서 업저버 한 명을 배석시킨 통합추진위원회(Joint Implementation

¹⁰¹ 벨기에의 경우에도 카톨릭 성직자가 부족하여 제 3세계에서 신부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¹⁰² www.stanet.ch/APD/news/204.html 참조.

Commission)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¹⁰³

이렇게 교단이 연합하는 현상은 주로 교세가 약화되는 교단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들간에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 인수를 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교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나됨에 별로 관심이 없다. 유럽 교회가 이제는 약화되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리하여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교회에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교세의 증가가 둔화 내지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세의 증감에 관계없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태리 교회도 이러한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2004년 3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는 “다양성 내에서의 하나됨: 이민 교회와 유럽 교회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Essere Chiesa Insieme/Uniting in Diversity: A programme on "To Be Church Together" among migrant churches and the churches in the receiving countries)”이라는 주제로 유럽 외국인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컨퍼런스가 이태리의 개신 교회 연합(FCEI: Federazione delle Chiese Evangeliche in Italia)과 유럽의 이민교회 위원회(the Churches' Commission for Migrants in Europe)주최로 개최되었다. 필자도 독일 교회 내 외국인 교회 대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게 되어 이태리 교회 및 유럽 교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태리에 이민 교회가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30 년간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태리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태리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 중에도 종교적 측면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새로운 이태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신앙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 생활이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해 주면서 자신들의 가치 상실이나 이민사회의 변두리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문화는 기존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으며 이민 교회는 현지 교회에 큰 축복이 되었다. 나아가 극단적인 형태의 근본주의에 의해 이민 교회 공동체들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앙공동체들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태리의 개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이태리의 개신교도들 자체가 이태리 사회에서 소수이며,
둘째 현재 이태리 개신교도들의 삼분의 이가 외국인들이고,
셋째 이태리 개신 교회는 문화적 통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¹⁰³ www.cofe.anglican.org/info/ccu/england/methodists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는 유럽 각국의 외국인 교회 대표자들 및 유럽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전체 모임과 더불어 각 분과 별로 모여 예배와 음악, 선교/전도/증거/회심, 문화-갈등인가 대화인가?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들, 관계 형성-네트웍 및 교환, 연합된 교회의 역할, 국가 및 지역 상황에서 보편적 교회 개념의 구체화, “뿌리와 날개”-2세 및 신앙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태리어와 영어로 진행된 이 컨퍼런스는 단지 이태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상황 속에서 유럽 교회와 유럽 내 외국인 교회들이 상호 협력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다.

이태리 교회사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건이 있어 첨가하고 싶다. 그것은 초대 교회 당시 바울을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나바와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성 암브로시우스(St. Ambrose)에 관한 이야기이다.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기로 유명하다.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열 두 제자들의 동상이 서있다. 그 중에 적어도 필자에게 가장 감동적인 동상 중의 하나는 껌질을 벗겨지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바돌로매의 동상이다. 자신의 몸 껌질을 오른손에 들고 서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초대 주교가 바나바였다는 사실이다.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헤어진 후 이 밀라노까지 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성당 안에 담임주교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제일 위에 권면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바나바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귀한 믿음의 선진이었다.

또한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밀라노교회의 주교였으며 그의 유적이 대성당 지하에 남아있고 지금도 밀라노의 수호성자로 추앙 받고 있다. 그가 살던 당시 교회는 정통교회를 수호하는 입장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던 아리안주의자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당시 밀라노 주교는 아리안주의를 옹호하며 정통주의자들을 핍박하여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교회의 분열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 때 젊은 주지사로 왔던 암브로시우스가 새로운 주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군중들을 침착하게 설득시켜 안정시키자 갑자기 “암브로시우스가 주교다”라는 어린이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가 갑자기 주교가 되었던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어린 아기였을 때 벌들이 그의 혀에 꼴이 있다고 착각하여 입에 날아올 정도로 그는 달변가였다고 한다. 그가 주교로 봉직할 기간(374-397)동안 그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다. 가령 로마황제 발렌타인의 부인이 그녀의 아들을 아리안주의자로 키우면서 밀란 교회가 아리안주의 방식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했을 때 암브로시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교회를 9일간 포위하여 그녀의 군인들을 개종시켰다. 지금도 밀라노에는 그의 영향이 매우 커서 진정한 밀라노 시민을 ‘암브로시아니(Ambrosiani)’라고 부르며 11세기까지 로마와 독립된 상태로 있던 밀라노 교회는 아직도 암브로시우스 방식의 예전을 따라 미사를 드리고 있다.¹⁰⁴

¹⁰⁴ Cadogan Guides, ITALY, 1988. pp. 178-179.

기타 다른 대륙 교회의 연합 움직임: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

나아가 교단 간의 연합은 다른 대륙의 나라들에서도 시도되었다.¹⁰⁵ 가령 미국에서는 미국 연합 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와 미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가 하나로 통합되어 1983년에 미합중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가 되었다. 호주도 1977년에 여러 교단이 합쳐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of Australia)를 이루었다. 인도의 경우에도 1970년에 성공회, 침례교, 형제교단, 그리스도의 교회, 감리교회 등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북인도교회(the Church of North India)라고 하는 연합체를 만들었고 남인도교회도 이와 동일한 경우이다.

이러한 교단간의 연합은 개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대륙 교회들의 하나됨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가에 대해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진정 한 몸임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영적 관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다수이던 서구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고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와 교단들은 연합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하나로 모으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때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하나됨의 가능성이며 나아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하나됨의 비전이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

¹⁰⁵ *Called to be One in Christ*, ed. by Michael Kinnamon and Thomas F. Best, Faith and Order Paper 127, (Geneva: WCC, 1985), p. viii-ix.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상 자세히 다룰 수 없어 간략히 언급하겠다.

제8장 하나됨의 비전(5): 신, 구교, 동방 정교회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은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찬송가 242장 2절)

교회의 가장 큰 분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1054년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고 그 이후 1517년 종교 개혁의 시작으로 인해 구교와 신교가 분리된 것이다. 만일 이 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 본다.

이 두 분열 중 가톨릭과 동방 교회는 최근 비교적 많은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신 교회와 가톨릭 교회 간에는 깊은 골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적지 않은 개신 교회 성도들은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고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고까지 생각하고 가톨릭 교회 역시 개신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으면서 집 나간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야 할 잃은 양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신교와 구교 사이에는 하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신교와 가톨릭이 분열된 독일에서 역사상 최초로 두 교회가 하나되어 베를린에서 모였던 2003년 5월말의 교회의 날(Kirchentag) 행사를 소개하면서 신, 구교가 과연 하나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간략히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를 넘어 하나됨을 이룬 독일 통일과 이를 위해 공헌한 서독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마지막 부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직도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시도

가톨릭 교회가 정죄하고 출교시켰던 마틴 루터는 결국 개신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것은 그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문을 특별히 작성한 것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Gebet Martin Luthers für die Einheit der Kirche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마틴 루터의 기도

O Du ewiger, barmherziger Gott,

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Du bist ein Gott des Friedens, der Liebe und der Einigkeit, nicht aber des Zwiespalts.

당신은 평화와 사랑 그리고 하나됨의 하나님이시며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Weil aber Deine Christenheit Dich verlassen hat und von Deiner Wahrheit gewichen ist,

그러나 주님을 떠난 저희들은 주님의 진리에서 어긋나

hast Du sie sich teilen und trennen lassen, auf daß sie mit ihrer vermeintlichen Weisheit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거짓 지혜와

in der Uneinigkeit zuschanden würde und zu Dir zurückkehre, der Du allein Einigkeit gibst.

불일치로 상하게 되었으나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이 일치를 주심을 알게 하소서.

Wir armen Sünder bitten Dich:

저희 가련한 죄인들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Du wollest durch den Heiligen Geist alles Zerstreute zusammenbringen,

성령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das Geteilte vereinigen und ganz machen, auch uns geben,

분열된 성도들을 다시 연합하여 온전케 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daß wir Deine einige, ewige Wahrheit suchen, von allem Zwiespalt abweichen,

하나의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분열을 거부하고

daß wir eines Sinnes und Verstandes werden, der da gerichtet sei auf Jesum Christum, unsern Herrn,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damit wir Dich, unsern himmlischen Vater, mit einem Munde preisen und loben mögen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durch unsern Herrn Jesum Christum im Heiligen Geist.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소서.

Amen.¹⁰⁶

아멘

하지만 신, 구교 간의 화해와 일치, 이것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아니 어찌면 지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실 쾰른 지역의 네 한인교회들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교민들은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왕 합치는 김에 개신 교회와 가톨릭도 합쳐라"는 말씀도 하셨다. 사실 그러한 시도가 없지 않았다. 한빛교회가 탄생한 후 얼마되지 않아 가톨릭 교회 성도들과 야외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하였으나 개신 교회의 예배와 가톨릭 교회의 미사의 특성상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각기 예배와 미사를 드린 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결국 성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이 야외

¹⁰⁶ <http://www.oekumenischer-christusdienst.de/Gebete/gebete.html>

연합 예배는 계속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만일 이 세상에서 구교와 신교가 다시 진정 하나됨을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진정 감동을 받아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위력'이요 '열매'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교회의 일치가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일치(church as institutional organization)인가 아니면 유기적이고 영적인 일치(church as organic community)인가 하는 것이다. 가톨릭은 전자("ecclesia visibilis")를 강조하고 개신 교회는 후자("ecclesia invisibilis")를 강조해 왔다. 필자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일치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이점 보다 공통점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간다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실 가톨릭 교회에도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가 계속 드러지고 있고, 개신 교회도 여러 가지 선한 사업에 가톨릭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실제로 신, 구교가 분리된 독일에서 2003년 5월 28일(수)부터 6월 1일(주일)까지 "Ihr sollt ein Segen sein(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주제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교회의 날 (Ökumenischer Kirchentag) 행사를 베를린에서 개최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¹⁰⁷ 독일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약 20만 명이 참가하였는데 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귀한 사건이었다.

개신 교회의 대표인 엘리자벳 라이저 박사(Dr. Elisabeth Raiser)와 가톨릭 교회의 대표인 한스 요아킴 메이어 박사(Prof. Dr. Hans Joachim Meyer)는 공동환영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교회의 날(ÖKT: Ökumenischer Kirchentag)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다른 교단 및 개신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본 교회의 날은 독일 정치의 중심지이며 동서 유럽이 만나는 곳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신앙과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는 교회의 날 행사를 통해 사회와 세계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하나된 증거와 기독교적 책임의식이 감명 깊게 증거 되길 희망합니다...(중략) 본 교회의 날 행사는 서로 만나 교제하며 상대방을 새롭게 발견하며 배워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도전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개신교도와 가

¹⁰⁷ 독일에서 보통 개신 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매년 번갈아 가며 교회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 행사는 독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행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oekt.de 참조.

톨릭 교도들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상호 신뢰성이 자라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하나되는 운동이 확장되길 바라며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희망합니다.”¹⁰⁸

또한 “함께 걸어가며”라고 하는 찬양집 서문에서 두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아직도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목표는 아직 멀고 험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찬양하면서 좀더 깊은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본 찬양집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힘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⁰⁹

하지만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다시금 성찬이었다. 로마 교황청은 이 행사를 반대하면서 참가하는 신부들에게 개신교도들에게는 성찬을 베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브뤼켄(Saarbruecken) 출신의 은퇴한 가톨릭 신학교수 고트홀드 하젠휘틀(Gotthold Hasenhuettl) 신부는 천주교 신도들과 개신교도들 모두가 참여한 연합예배에서 약 2000명에게 성찬을 베풀었다.¹¹⁰ (아래 사진 왼쪽) 결국 이 신부는 트리어 대주교로부터 징계를 당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그는 교황의 말보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노라고 담대히 증언했다. 또한 Bernhard Kroll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도 개신교 성찬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 (아래 사진 오른쪽)



그 외에도 개신 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쾰른 교민 사회에는 교민이 한 분 돌아가셨을 경우, 그 분이 가톨릭 교회에 속한 분이라 할지라도 개신 교회인 쾰른 한빛교회에도 부고장이 보내어지고 목회자나 교회 대표자가 장례미

¹⁰⁸ Programm 2003, Ö kumenischer Kirchentag, p. 8.

¹⁰⁹ gemeinsam unterwegs: Lieder und Texte zur Ö kumene, Ö kumenischer Kirchentag, p. 3.

¹¹⁰ Idea Spektrum, Chronik des Jahres 2003, No. 7/03(supplement zu Spektrum Nr. 50/2003), p. 13. www.ikvu.de/oekt/solidaritaet-professor-hasenhuettl.html 참고. Hasenhuettl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는 <http://www.uni-saarland.de/fak3/hasenhuettl/>이다. 또한 Bernhard Kroll 신부에 관해서는 www.ikvu.de/oekt/mahlfeier-samstag.html 참고.

사에 참가하며 하관미사에 기도로 동역하기도 한다. 야외 미사 및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한인 회 행사에 함께 협조하기도 하며 자체 예배당을 구하는 일로 함께 쾰른 교구청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 성찬이다. 가톨릭에서 진행되는 미사에는 개신교 세례교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는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분들도 소정의 교리교육을 거친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객일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가톨릭에서 성찬 부분을 과감히 개방하여 개신교도들을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로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본다.

가톨릭 교회도 나름대로는 교회 일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 운동은 1894년 교황 레오 13세가 성령강림 대축일을 전후해 일치 기도주간 실천을 장려하면서 시작되었고 1908년 미국 폴 왓슨(Paul Watson) 신부가 '교회 일치기도 주간'을 준수하면서 본격화됐다. 나아가 1964년 제 2차 바티칸공의회는 특히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Unitatis Redintegratio)'을 통해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도주간의 준수를 장려했다. 특히 이 문헌이 교회 일치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삼위의 고백과 신·망·애 삼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며 세계 교회 협의회의 선언과도 공통성을 가져다 주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 교단들과의 일치 운동도 67년 이후 루터교와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등 각 교단들과 협력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가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도 화해를 향한 대화를 시작했다.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와 만나 서로 화해하고 상호 단죄를 철회하였고 1967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접촉을 가졌으며 1973년에는 로마에서 이집트 콕트 교회 총대주교 쉐누다 3세와 함께 그리스도교 교리를 담고 있는 신앙 선언문에 서명했고 197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를 방문해 대화를 위한 '로마 가톨릭 - 정교회 합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동방 교회와의 대화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교회 일치 운동과 관련해 가장 주목 받는 가톨릭 문서는 1995년 발표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하나되게 하소서(Ut Unum Sint)'이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대다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교회 일치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는 등 대화의 토대를 과감하고도 진지하게 제공하고 있다.¹¹¹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신, 구교가 가까워진 경우가 있다. 지난 1999년 종교개혁기념일을 기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독일 교회와 화해하면서 루터의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으며, 쾰른의 경우 신, 구교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다. 물론 아직도 하나됨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동방정교회

¹¹¹ 평화신문 “교회 분열의 역사와 일치를 위한 노력들” 2001. 12. 26.

와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만 개신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¹¹² 하지만 우리가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넘은 하나됨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데올로기가 낡은 분열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즉, 사회와 민족의 분열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실증한 나라는 독일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1989년에 일어난 이 극적이고 역사적인 통일의 배후에는 사실상 분단의 기간 동안에도 서독 교회 성도들의 동독 교회를 향한 꾸준하고도 신실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동독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¹¹³ 가령 라이프찌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깨어있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촛불기도회를 개최하여 동독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소수로 시작한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참가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로 변하였고 결국 이들이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반면에 서독 교회는 매년 동독 교회에 물질 및 헌금으로 섬기고 도와 줌으로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었다. 결국 베를린 철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교회간에는 하나된 결속감이 살아 있었으며 이 하나됨이 이데올로기의 벽도 무너뜨린 것이다.

「동독 개신교 연맹」이 1969년 출범한 후 그들의 교회법 4조 4항에서 "동독과 서독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각자의 기관을 통하여 동반자적 자유를 가지고 함께"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쓰여지게 되었다.¹¹⁴ 천안대학교의 주도홍 교수는 이 관계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서독 교회는 이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양편의 멤버들로 구성되는 "자문단"과 "협의단"을 구성하였는데, "자문단"은 교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협의단"은 사회참여적인 세계

¹¹² 가령 2005년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쾰른에서 개최된 Weltjugendtag (세계청년의 날 www.wjt2005.de 참조) 하지만 이 국제적인 행사에 개신 교회는 외면당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쾰른 교구청이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쾰른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의 개신 교회 협의회에는 일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들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신교도들을 그리스도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동방정교회와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신도를 합치면 전세계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되는 반면 개신교도는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쾰른 도이쯔(Deutz)에 있는 성당 건물이 그리스 정교회로 넘어갔고, 작년 말 쾰른 포르쯔(Porz)에서 문을 닫은 성당 건물이 나왔을 때 필자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먼저 사용을 신청했으나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이 세르비아 정교회에 단돈 1유로에 주어졌다.

¹¹³ 주도홍, '독일 통일 전 동서독 교회의 역할: "특별한 유대관계"(die besondere Gemeinschaft)를 중심으로 (mission.ms98.net/main.htm) 참조.

¹¹⁴ 위의 논문.

평화와 화해의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모임은 두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사전에 모이는 사적 모임의 성격도 강하였는데, 어떤 때는 서로의 일상적인 안부와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고, 분단의 민족의 아쉬운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서로간의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필요할 때는 은밀한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임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이 모임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서독교회의 동독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동독교회는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동독정권의 교회가 스스로 자멸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정책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을 끊는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독일교회의 유일한 재정수단이었던 교회세 제도를 법으로 금하였고, 신도들에게는 일반 동독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불이익을 주었다. 심지어 신앙활동을 범죄활동으로 규명하여 감옥에 가두는 등, 문자 그대로의 공산당식 신앙박해 전략을 교회를 반대하여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교회를 서독교회는 순수한 사랑에 의해 물질적으로 도왔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여기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명목있는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그러면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도와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돈의 사용 용도를 묻게 되면 이러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그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지원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으며, 또한 단회적이거나 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인격적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년 동독교회를 위한 물질적 지원이 한화로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도움은 여러 면에서 자상한 지혜를 요구하였는데,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 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재로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론 서독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그리고 동독정권의 묵인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서독 정부가 이 교회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막후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난데 도왔다는 사실이다. 서독교회가 시행한 동독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동독교회를 돕는 A형과 정치범 등의 석방을 위한 B형이 있었는데, A형을 위해서는 반액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B형을 위해서는 전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웠다. 이는 단지 서독교회의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의 교회뿐만 아니라, 동독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화 획득뿐 아니라, 신앙의 박해 가운데 처한 동독교회를 살리고 활성화 시켰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유는 동독의 공산정권을 더욱 견고히 유지시키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달랐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교회의 지속적인 복음전파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여 유물론주의적 사회주의를 대적한 저항태양을 형성시켜 결국은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러한 동서독의 "특

별한 유대 관계"는 결국 정치적으로 분단된 동서독을 견고히 묶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독일교회는 로꿈선언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룹은 다름 아닌 "디아코니(Diakonie) 재단"의 활동이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은 다름 아닌 그 "섬김의 신학"이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건대 앞서 언급한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이미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즉, 독일인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사랑'의 실천은 이미 생활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정신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확인도 우리는 하였다. 디아코니의 활동은 "항상 살아있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시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떠한 기관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물질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의 활동은 결국 동서독의 인간관계를 "언제나 견고히" 묶어주는 "사랑의 띠"였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서독 교회의 사랑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님도 확인하였다.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도움을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고가 있어야만 했다. 여기에 분명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서독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랑의 프로들이었다."¹¹⁵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지혜롭게 적용할 때 이데올로기로 인한 남북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자에게는 있다. 하용조 목사도 2003년 은누리 교회에서 개최된 'Power Wave' 성령축제에서도 겔 37장을 강해하면서 특히 17절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교단의 벽을 넘어야 하고 분열을 극복해야 할 당위성과 그렇게 할 때 남북한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비전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¹¹⁶

비록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난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이러한 책임 의식과 사명을 새롭게 고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과 일치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국내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혹은 여러 단체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주님의 중보 기도에 한국 내 그리스도인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청중할 때 남북한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휴전선도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 아침에 무너져 평화적으로 남북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핏박 받는

¹¹⁵ 위의 논문.

¹¹⁶ 하용조, Power Wave 성령축제 카세트 테이프.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는 오픈 도어스(Open Doors) 선교회이다. 이 단체는 ‘하나님의 밀수꾼’ 또는 ‘복음의 밀수꾼’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안느 반 데어 베일(Anne van der Bijl)이라는 분이 1955년에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시작한 선교단체이다. 당시에는 구 소련과 동구권이 철의 장막으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들을 섬기며 그 장벽이 무너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 운동을 일으켜 마침내 구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2005년, 50주년을 기념한 회고 인터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¹¹⁷ 나아가 올해부터는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 캠페인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일 분도 빠지 않고 릴레이 중보 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¹¹⁸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위해 새벽 2시, 3시, 4시에도 깨어 자신이 헌신한 시간에 10분간 북한의 핍박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크나큰 영적 도전이요 격려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체는 십여 년 전부터 매년 가을에 네덜란드 그리스도인들이 관광객으로 20명에서 40명 정도 북한에 들어가 주요 지역을 방문하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 오픈 도어스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는 북한을 11번이나 방문하였고 매번 본부와 전화 통화 그리고 나중의 보고를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가령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아리랑 축전 예행 연습에서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스게임을 펼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라도 경기장을 방문하여 기도하는데 흐리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여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경기장을 밝히던 성화가 꺼졌고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성화가 주님 보내신 폭우에 의해 완전히 꺼진 것은 또 하나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원산을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를 위해 간구하였다고 한다.¹¹⁹

독일이 통일된 후 10년 만에 켈른 지역의 한인 교회들을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필자에서 다시 10년 이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됨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분열을 회복할 때 마침내 남북한도 이데올로기를 넘어 하나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비전과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서 켈른 지역의 외국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게 하였고 다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의 한인교회 및 외국인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인

¹¹⁷ 네덜란드 오픈 도어스 선교회에서 발송하는 기도 CD(2005년 가을판).

¹¹⁸ 자세한 내용은 www.opendoors.nl 참조.

¹¹⁹ 116번 각주에 언급한 기도 CD참조. 2003년 네덜란드 오픈 도어 전국 대회에서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찬양대가 초청을 받아 한국어로 찬양하였으며 이순옥 여사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소개되었고 함께 북한을 위해 참여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순옥 여사의 증언인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은 화란어로 번역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읽히고 있다.

도하셨으며 독일교회와 동역하게 하셨다. 나아가 독일의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하나됨’의 캠페인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는 연합 운동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유럽의 한인 교회들이 협력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유럽도 EU로 하나되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남북한을 가로 막고 있지만 주님의 시간에 이 ‘여리고 성벽’도 맥없이 무너질 날이 올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최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필자는 본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진리를 타협하면서 신사 참배한 것을 교단적으로 회개하고,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동족 상잔을 한 죄악을 회개하며, 세상에서 진정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분열시킨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남북한이 하나되고 평양(平壤)이 이름 그대로 동양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회복되며, 평안도(平安道)도 ‘살롬’의 도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평양에 과거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그 지역이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서있던 자리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종과 함께 격려가 되고 있지 않는가.

독일 현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필자 또한 이산가족이다. 부모님들께서 1.4 후퇴 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혈혈단신으로 피난 오셨다. 필자는 한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는 적이 없다.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천만 이산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되는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통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통일된 나라 독일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건설된 동독 지역의 아우토반을 질주하며, 통일의 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목회하는 필자는 지금까지 이 책에 기록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모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역사하심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결국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청사진을 소망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마지막 장에서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제8장 결론: 하나됨의 완성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찬송가 242장 3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됨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하나됨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마침내 이 하나됨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날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다(계 7:9). 이 비전의 찬양을 묵상해본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 안에서 국경과 인종, 문화와 언어 등 모든 인간적인 장애를 초월하여 하나된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되어 모인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린다. 이 세마포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착한 행실들이다. 여기서 필자는 다시 하나됨을 ‘기대’하는 찬양을 묵상해본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 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손에 들고 있는 종려 가지는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상징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였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아와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모니로 ‘할렐루야’ 찬양을 돌려 드리게 될 것이다(계 19:6).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한 이러한 우주적 하나됨에는 모든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천사들이 하나되어 찬양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으로 화답한다(계 7:1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섬기는 네 생물도 하나되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찬양 드린다(계 4:8).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구약의 열 두 지파와 신약의 열 두 사도를 상징하는 이십 사 장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린다(계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어서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하나되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한다(계 5:9)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함께 우주적인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돌려 드린다(계 5:13).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단지 분열된 교회들을 하나로 회복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까지도 다시 화목시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인 것이다(계 21:1).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즉 혼돈과 불안의 세력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colorful unity)을 이루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사 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뺨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 임이니라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계 21:2).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되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하나되어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언약의 핵심이다.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신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영광의 구름 (shekinah)으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후 다시금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케 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물이 새롭게 하나되어 그 분 안에 거하고 그 분께서는 만물 안에 거하신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계 21:4). 모든 눈물이 없어진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사라지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물론 더 이상 분열이나 분쟁도 없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다. 영원토록 생명 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누린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찬양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하나됨의 비전’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됨이다. 또한 이것은 값싼 하나됨이 아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 하시면서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가장 값비싸고 귀중한 하나됨이다. 나아가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되는 통전적인 하나됨이다. 포레스트(J. Forest)는 값싼 하나됨과 값비싼 하나됨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값비싼 하나됨(Costly Unity)”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값싼 하나됨은 도덕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을 회피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을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선물로 발견해간다. 그것은 종종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값비싼 하나됨은 하나님 피조물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혈연과 지연, 국가와 민족 또는 계급적 유산에 대해 충성하는 것을 분명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도덕적 증거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지불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하나됨이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담들을 무너뜨림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며 또한 서로 화해하게 한다 이것의 적은 값싼 하나됨이다 - 전 피조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믿음의 권속들에게서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가 없는 세례, 매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는 삶이 없는 것이다.”¹²⁰

¹²⁰ J. Forest, “Seeking ‘costly unity’: Bridging the gap”. One World (1993) no. 185, p. 88. *Koinonia and Justice, Peace and Creation: Costly Unity* ed. by Thomas F. Best and Wesley Granberg-Michaelson (Geneva: WCC, 1993), p. 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Cheap unity avoids morally contested issues because they would disturb the unity of the church. Costly unity is discovering the churches’ unity as a gift of pursuing justice and peace. It is often

아파하는 세상, 깨어진 세계, 뒤틀린 피조계,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 그 안에서 인간도 아파하고, 만물이 탄식하며 심지어 교회도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 있다(롬 8:18-25). 하지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 소망을 잃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의 교회들이 연합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 사회 속에서, 교단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기 때문이다.



acquired at a price ... Costly unity is precisely to transcend loyalty to blood and soil, nation and ethnic or class heritage in the name of the God who is one and whose creation is one. It is the unity of the church accomplished on the way of the cross, paid for by the life of Christ and the lives of the martyrs, whose witness inevitably included moral witness. This is unity which, by God's grace, breaks down dividing walls so that we might be reconciled to God and one another Its enemy is cheap unity – forgiveness without repentance, baptism without discipleship, life without daily dying and rising in a household of faith (*oikos*) that is to be the visible sign of God's desire for the whole inhabited earth (the *oikoumene*).

English Summar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Christian churches throughout history has been the problem of split and division. I have illustrated this problem in the first chapter with various examples in order to emphasize the numerous negative and destructive consequences that it causes, not only at the level of a local church but also in all aspects of individual life, family life, society and even at a national level. In addition, I have attempted to reveal that modern churches, especially Korean churches in both Korea and abroad, have failed to solve this problem. To the contrary, Korean Christians have stimulated further divisions among churches, denominations and within society. It will be clear, therefore, that this is a problem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overcome.

In chapter two, I have attempted to analyze the major reasons for church division both in the west and in Korea. Tracing back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the west, I have pointed out that the arrogant desire of a church leader is first and foremost the major reason for the great Schism of 1054. Secondly, the power struggle among the three popes of the Roman church resulted in the intervention of secular power during 1378 and 1417. Thirdly, the Reformation and split of the protestant church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was inevitable when the Catholic Church leaders did not acknowledge their own mistakes and persecute the Protestants at that time. Fourthly, further division was unavoidable when protestant Christians became too embroiled in secondary issues such as the method of baptism and so on. Furthermore, churches, especially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too many divisions due to the political power struggle and trivial debates within a local church, synod and general assembly. Finally, I also discuss Satan's essential strategy to stimulate church division so that the Kingdom of God may not be extended.

The following chapter deals with the ground for unity among Christians. The first ground is the Trinitarian God Himself. God is one but exists in three persons. This means that God's essential attribute includes that of unity in diversity. Jesus Christ also made his intercessory prayer based on this: that all the Christians may be one, just as Father is in him and he is his Father...as we are one(Jn. 17:21-22). The second ground for Christian unity is the redemptive work and great interce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Jesus has died so that the scattered children of God might be brought together and become one(Jn. 11:52). He spent most of his prayer time for this unity at the garden of Gethsemane. Thirdly, Apostle Paul has given various admonitions for this unity in his letters. He was very conscious about Jesus' intercessory prayer and included a reminder of this unity in almost every letter that he wrote. The fourth ground is that all the believers are united with Christ. This means that the church as the gathering of Christians is the body of Christ. The body is one but it has many parts. Therefore, all the Christians should have unity in diversity. The final ground for Christian unity is the fact that all believers have the same faith, one

baptism and one hope (Eph. 4:4-5)

Together with American missionaries, Korean Christians have been attempting to unite throughout history. Therefore, in the following chapter, I have tried to describe the movement of church and Christian unit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Repenting former divisions, many Korean church denominations including Presbyterian, have begun to restore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In addition, I have mentioned that recently, the Korean Pastors' Association in Korea has succeeded in uniting the Korean National Church Council and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the two major organizations of Korean churches. More concrete steps are explained in this chapter three. If this process goes well,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will have a united organization under the name of 'Korean Church Union' by 2007.

In the fourth chapter, I have explained how God has led four Korean churches in Cologne into one interdenominational 'Hanbit' Korean church on June 6th, 1999. I am convinced that this case can demonstrate at least how the problem of division and split can be overcome. Furthermore, Hanbit church has omitted the word 'Korean' from its name because the Lord has brought people from Germany,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join the Hanbit congregation. Now the official name of this church is 'Hanbit Community Church in Cologne'. The vision statement of Hanbit Church is 'we became one to be the light in the world.'

God has led me furthermore, that we should do our best in order to restore the Christian unity not only at the local church level but also at the inter-church level. Therefore, in chapter 6, I have introduced how God guided our church to work together with other foreign churches in the city of Cologne. Then, I have discussed how the Korean churches in the state of Nordrhein-Westfalen ("NRW") in Germany began to work together, regardless of denomination. Furthermore, the Lord has united all the non-German churches in NRW into one organization called ACMK (Arbeitsgemeinschaft der christlichen Migrationskirchen in NRW, e.V: Association of the Christian migration churches in NRW). Since 2003, Korean churches in the whole of Europe began to work together regardless of their denomination under the name of KCTE (Korean Church Together in Europe). In addition, I have also mentioned the 'one' movement which was started by the German evangelical alliance in 2004. Contrary to the attemp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hich tries to restore church unity, the aim of this evangelical movement is to restore the unity among Christian individuals.

In chapter 7, I first deal with the spiritual situation in Europe, which is very critical. Then I have attempted to describe what the European churches are doing in order to overcome those problems of splits and division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I have explained various confessions and statements of various denominations. After that I have discussed Leuenberg agreement, the uniting movement in the

Netherlands, Great Britain and Italy. In the Netherlands, for instance, God has united three different denominations into one protestant church. Also foreign speaking churches in Holland have united under the name 'SKIN' (Samen Kerken in Nederland: translated as "churches together in the Netherlands"). Some other movements for unity have been starting in England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nd this is a trend that is spreading throughout Europe especially among foreign speaking churches. In March 2004, for instance, a special conference was held in Rome on this topic. Similar developments in other continents were also briefly mentioned.

Chapter 8 deals with the most difficult issue how protestant, eastern orthodox and catholic churches and recover unity in Christ. In this respect, it is very remarkable to see the first Kirchentag (Church day) in Berlin in 2003 which brought together German Catholics and Protestant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Reformation. Trying to demonstrate a more global perspective for this vision of unity, I have also argued that this vision overcomes not only denominational barriers but all the other ideologies as well. As an example I have investigated the case of the now united Germany by looking into the contribution of the West German church during the time when Germany was still divided. This, I believe, is a good lesson for Korean Christians whose country is still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But the vision for unity can hardly be realized by the power of man alone. Onl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this vision be fulfilled. It is the Holy Spirit makes Christians one. This is the unfailing promise of our faithful and trustworthy God. In Him, we put our ultimate hope. The final picture is gloriously described in the book of Revelations, chapter 5. The unity that our Lord will fulfill is not merely that of all Christians and churches. Rather, it is the cosmic unity in which all renewed creation will glorify God in unity (Rev. 5:5-14).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rough this book,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individuals, as well as all other churches and Christians in this world, might restore this vision for unity so that non-Christians will see this and glorify God.

부록 1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

전문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1905년 재한 복음주의 선교회 통합공의회로 시작하여 1918년 조선예수교 장감 연합협의회,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발전하였으며, 해방 이후 이러한 전통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이어졌다. 198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오늘날에는 두 개의 기관이 연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연합사업을 통하여 복음화를 통한 구령사역과 함께 한국 사회의 근대화, 민주화, 인권신장과 사회봉사, 평화와 통일운동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교파선교, 일제 강점기의 신앙의 박해, 해방 이후의 분단과 한국전쟁, 세계 여러 곳의 인권유린 사태,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 등 역경의 시기에 발생한 신학과 신앙,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차이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교회 성장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내적으로는 지나친 분열, 타락과 일부 교회의 자정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통일의 길을 공동 모색하는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장 3절)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열의 죄책을 고백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일백 여 년 간의 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명실 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본원칙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기본원칙

1. **하나의 신앙고백:**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연합기구를 조직한다.
2. **교회의 책임완수:** 다양성 속에 일치를 지향하며,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연합기구를 조직한다.
3. **연합운동의 계승 발전:**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하나의 연합기구를 조직한다.
4.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우리 사회와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각 교단이 대표를 파송하면서 관련 사안을 책임있게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연합기구를 조직한다.
5. **공동선교와 협력:** 복음선교와 사회봉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선 연합활동을 벌이는 하나의 연합기구를 조직한다.

6. **연합정신의 확산:** 기존 연합기구의 연합을 넘어서서 지역별, 영역별, 과제별, 또 개교회들과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새로운 한국교회 연합기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 경험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7. **미래를 향한 열린 연합:** 하나된 연합기구의 조직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목적이거나 최종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며, 분열된 교회들의 연합, 건전한 신학교육을 통한 한국교회의 궁극적인 일치를 지향한다.¹²¹

부록 2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통합 선언문

오늘 200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가)개혁신 교회의 총회(the General Synod of the Netherlands Reformed Church), 네덜란드의 개혁신 교회의 총회(the General Synod of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그리고 네덜란드 왕국의 개신교 루터란 교회 총회(the Synod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는 하나로 통합하여 그 관리 및 지도를 네덜란드 개신 교회(the Protestant Church in the Netherlands)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세상이 그를 믿도록 기도하셨음을 믿으며 통합한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그리고 19세기에 일어난 두 번의 분열 이후에 네덜란드 교회들이 각기 제 길로 걸다가 이제 다시 만난 것이다. 최근에 교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 결정 및 선언 그리고 특히 네덜란드 개신 교회의 교회법을 받아들임에 있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소망은 점점 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갱신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 네덜란드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소원
 - 교회 내 계속되는 관심들,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려는 소망
 -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시적인 하나됨을 미래에 좀더 볼 수 있도록 노력함
- 오직 하나님께 영광*

¹²¹ 같은 곳에서 인용.

부록 3: 하나됨의 비전에 관한 설교들

1. 설교자: Pfr. Dr. Gotthard Oblau(고트하드 올라우 목사)

Predigt über Apg. 6:1-7 am 6. Juni 2004 in der Hanbit-Gemeinde Köln

2004년 6월 6일 쾰른 한빛교회에서 행 6:1-7을 본문으로 한 설교

Gnade sei mit euch und Friede von Gott, unserm Vater, und dem Herrn Jesus Christus! Amen. (1.Kor.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전 1:3)

Liebe Schwestern und Brüder,

ich danke Pastor Choi für die Einladung, heute zu Ihnen zu predigen. Ich freue mich, dass ich das fünfjährige Jubiläum Ihrer Gemeinde gemeinsam mit Ihnen feiern darf.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오늘 저를 설교에 초청해 주신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빛교회의 5주년 기념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Vor einer Woche war Pfingsten. Christen auf der ganzen Welt haben den Heiligen Geist gefeiert. Wir haben uns daran erinnert, dass der Heilige Geist Grenzen überwindet. Der Heilige Geist sorgt dafür, dass Menschen einander verstehen, auch wenn sie verschiedene Sprachen sprechen. (Auch wenn das für die beteiligten Menschen oft viel Arbeit bedeutet, wie mein Übersetzer sicher bestätigen kann.) Der Heilige Geist sorgt dafür, dass in der Kirche Jesu Christi Menschen zusammen kommen, die sonst nie zusammen kommen würden: Alte und Junge, Arbeiter und Unternehmer, Handwerker und Akademiker, Liberale und Konservative, solche, die lieber Koreanisch, und andere, die besser Deutsch sprechen, Chinesen und Japaner. Deshalb ist eine christliche Gemeinde auch kein Club und kein Interessenverband. Dazu sind wir in der Gemeinde Jesu einfach zu verschieden. Wenn wir dennoch zusammen kommen, dann ist das einfach ein Wunder des Heiligen Geistes.

지난 주는 성령강림절 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담을 허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서로 이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 설교를 번역하신 분이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직접 맡은 사람은 수고스럽겠지만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고 노동자와 경영자, 직공인과 고학력자, 자유 당원과 보수당원이 만나며 또 한국말을 쓰는 사람과 독일 말이 더 편한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클럽이나 이익 단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라고 하기에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Solche Wunder geschehen aber nicht im Handumdrehen. Wenn ich von „Wunder“ spreche, dann heißt das nicht, dass wir Däumchen drehend daneben stehen und abwarten, was Gott so alles für uns tut. Gott nimmt uns die Arbeit nicht ab. Das Wunder der Einheit gibt es nicht ohne Konflikte. Das Wunder des Verstehens gibt es nicht ohne Missverständnisse. Die Bibel ist da sehr realistisch. Sie berichtet uns, wie die Gemeinde der ersten Christen in der Zeit nach Pfingsten ein Herz und eine Seele waren. Sie berichtet uns aber auch von Streit und Spaltungen. Und wie diese Spaltungen mit viel Geduld und in harter Arbeit überwunden wurden. Solch ein Beispiel lesen wir im 6. Kapitel der Apostelgeschichte.

그러나 이런 기적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빈둥빈둥거리며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떠맡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됨의 기적은 분쟁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은 서로의 오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사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들 사이의 싸움과 분열이 있었던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수고로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도 말해줍니다.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Liebe Gemeinde, in der Gemeinde in Jerusalem hat es Ärger gegeben. Dabei hätten die Christen den Ärger gar nicht gehabt, wenn ihre Liebe nicht so groß gewesen wäre, wenn unter ihnen nicht solch ein ausgeprägter Sinn der Fürsorge und Solidarität geherrscht hätte. Wir lesen das in Kapitel 4 (Verse 32-37): Wer Äcker oder Häuser besaß, der verkaufte sie und zahlte den Erlös in die Gemeindegasse ein. Daraus wurden die Bedürftigen versorgt, und niemand musste Mangel leiden. Dass die Reichen immer reicher werden und die Armen immer ärmer, dass geschieht zwar zu allen Zeiten und unter allen politischen Bedingungen – aber unter Gottes Herrschaft soll es nicht so sein – da sollen die Starken die Schwachen unterstützen, da gibt es für alle genu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교회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내에 성도간에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또 그들에게 연대의식을 갖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 화가 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꺾어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정치 체제하에서 당연한 이치이지만, 하나님의 주권(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Deshalb gab es für die Witwen in der Gemeinde einen Mittagstisch. Die Witwen hatten ja damals keine Rente. Wenn sie keine Kinder hatten oder die Kinder aus beruflichen Gründen weggezogen waren, dann

war das ein hartes Los. Deshalb waren die Witwen die sprichwörtlich Armen der Bibel. Für die hatte die Gemeindeleitung eine Suppenküche eingerichtet, damit sie wenigstens einmal am Tag eine warme Mahlzeit bekamen.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당시 혼자 사는 여인들은 물론 연금도 받지 못했고, 자녀가 없거나 직업 때문에 자녀들이 집을 떠나야 할 경우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여인들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Und nun heißt es hier: „Es erhob sich ein Murren unter den griechischen Juden in der Gemeinde gegen die hebräischen, weil ihre Witwen übersehen wurden bei der täglichen Versorgung.“

그런데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Unsere griechischen Witwen kriegen nichts ab in der Suppenküche“, hieß es da. „Bei den Hebräern am Tisch sind viel größere Fleischstücke im Essen, die Griechen kriegen nur die dünne Suppe ab.“ – „Ja, und ich habe gesehen, dass die Hebräer immer zuerst bedient werden.“ – „Kein Wunder, die Apostel sind doch selber alle Hebräer. Die besten Stücke schustern die ihren eigenen Leuten zu.“ So haben die Leute getuschelt.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국을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의 국에는 큰 고기 덩어리도 많이 넣어 주면서 우리에게만 국물만 줍니다.” “그래요, 나도 봤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항상 먼저 주더라고요.” “흥 이상한 일도 아니지, 사도들이 모두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 좋은 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Ob der Vorwurf wirklich zutraf, wissen wir nicht, es steht nicht im Text. Aber das Murren war da. Unzufriedenheit machte sich breit. Die Leute tratschten, sie beklagten sich hinter vorgehaltener Hand, hinter dem Rücken der Apostel. Keiner wagte sich offen bei der Gemeindeleitung zu beschweren. Man hatte ja vielleicht auch gar keine Beweise, dass es wirklich so war. Oder man wollte um des lieben Friedens willen den offenen Konflikt vermeiden. Schließlich musste man als Gemeinde Jesu den Schein wahren und nach außen so tun, als sei man ein Herz und eine Seele. Aber diese Rechnung ging nicht auf, denn unterdrückter Ärger vergiftet die Atmosphäre nur umso nachhaltiger.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불평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수다를 떨며, 불평했고 또 사도들의 뒤에서 원망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터 놓고 사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랑의 평화를 위해 갈등을 표면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회로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인 것

처럼 행동하여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계속 억압하는 것은 전체 분위기에 더욱 심한 악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s war, wie es im Text heißt, ein Murren der griechischen Juden in der Gemeinde gegen die hebräischen. Hier schaukelte sich etwas hoch längs der Trennlinie der Sprachen, zwischen zwei kulturell unterschiedlichen Gruppen. Plötzlich wurde in der Gemeinde die Frage wichtig: Wer gehört zu welcher Sprachgruppe? Misstrauen baute sich auf. Wo gehörst du denn hin? Ach so, das musst du ja sagen, weil du zu den anderen gehörst! Auf einmal taten sich zwei Lager auf, Spaltung zeichnete sich ab.

Wer waren die einen und die anderen?

그 원망은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히브리파 사람에 대한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갑자기 ‘누가 어떤 말을 쓰는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이 생깁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요? 아, 저쪽 소속이면 말을 해야지요. 이렇게 순식간에 두 진영이 생기고 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쪽은 누구이고 저쪽은 누구입니까?

Alle waren Judenchristen. Das heißt, bevor sie angefangen hatten, an Jesus zu glauben, waren sie schon gläubige Juden gewesen, und auch jetzt sahen sie sich noch als Juden. Sie waren beschnitten, sie hielten das Gesetz des Mose, sie gingen in den Jerusalemer Tempel zum Gebet (2:46). Sie hofften auf den Messias Israels und glaubten, dass er in Jesus von Nazareth gekommen war.

그들은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 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유대 교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며 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Nun gab es unter den Juden unterschiedliche Sprachen. Das hatte etwas mit der damaligen Globalisierung zu tun, die man auch schon damals kannte, schon seit Alexander dem Großen und dann vor allem seit der Ausbreitung des Römischen Reiches. Griechisch war die Weltsprache, die Verkehrssprache des Römischen Reiches. Aramäisch war das Neuhebräisch der damaligen Zeit. Das sprach man in Judäa, dem Stammland der Juden. Aramäisch war die Sprache Jesu und seiner Jünger.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제국의 확장으로 당시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헬라어가 국제어, 즉 로마제국의 통용어였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새로운 히브리어로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Viele Juden hatten jahrelang oder sogar mehrer Generationen lang irgendwo im Mittelmeerraum gelebt und gearbeitet, sie hatten die griechische Sprache angenommen und ihre Kinder konnten kaum noch

Aramäisch. Wenn sie dann wieder nach Judäa zurückkamen, benutzten sie weiter die griechische Sprache. Es gab Synagogen in Jerusalem, in denen die jüdischen Gottesdienste auf Griechisch gehalten wurden. In diesen Synagogen war man besonders offen für die Botschaft von Jesus. Nach Jerusalem kamen auch viele jüdische Wallfahrer aus dem ganzen Mittelmeerraum, auch die sprachen meistens Griechisch.

Aramäisch sprachen dagegen alle diejenigen, die immer im Land Juda geblieben waren

많은 유대인들은 수년, 아니면 수 세대 동안 지중해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아람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계속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많은 순례자들도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반대로 아람어는 유대에서만 계속 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So war der Sprachunterschied auch ein Unterschied in der Kultur, im Lebensstil, in der sozialen Stellung. Griechisch sprechende Leute waren meist gebildeter, reicher, welterfahrener, toleranter. Die aramäisch sprechenden waren religiöser, traditioneller, schlichter. Die Griechischen sahen auf die Aramäischen herab; sie galten ihnen als zurückgeblieben und unterentwickelt, mit Moralvorstellungen von vorgestern, nicht ganz auf der Höhe der Zeit. Und die Aramäischen sahen auf die Griechischen herab: die waren ihnen nicht fromm genug, die hatten lose Sitten, waren verweltlicht, während sie selbst sich etwas darauf zugute hielten, dass sie immer treu in Gottes heiligem Land geblieben waren.

이렇게 언어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또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부자였으며, 경험이 많고 관대한 반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이며 소박하였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덜 떨어진 미개인으로, 구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여기며 깔보았고, 아람인들은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신실하게 남아있었지만, 저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풍기문란하며 세속화되었다고 알보았습니다.

Die Leiter der Gemeinde, die zwölf Apostel, sprachen allesamt aramäisch. Sie waren alteingesessene Fischer, Handwerker, kleine Beamte, aber sie hatten Jesus persönlich erlebt, und das zählte. Zur Gemeinde gehörten zunehmend griechisch sprechende Leute. Die hatten studiert, die verstanden etwas von Handel und Wirtschaft, die hatten die Welt gesehen. Denen fiel es zunehmend schwer, sich den aramäischen Aposteln unterzuordnen.

교회의 지도자들, 즉 열 두 사도는 모두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본토박이로, 전에 어부였고, 수공업자 아니면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며,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세상을 경험하여, 상업과 경제에도 밝은 사람들로, 히브리 사람인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Vergleichbare kulturelle Konflikt gibt es auch heute in der Gemeinde. Man denke etwa an die Einwanderer der ersten und der zweiten Generation. Die einen sprechen noch hauptsächlich koreanisch, tun sich schwer mit Deutsch. Ihre Bildung und Erziehung ist noch ganz von Korea her geprägt. Die anderen sind hier in Deutschland zur Schule gegangen, haben die hiesigen Moralvorstellungen übernommen, kleiden sich wie alle Deutschen und finden ihre Eltern ein bisschen seltsam und konservativ. 이러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이민 온 사람들, 1세와 2세를 생각해 보면, 1세들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도 한국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세들은 이곳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곳의 윤리관을 받아들이며, 독일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고 지냅니다. 2세들은 부모들이 이상하다거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ieser Kulturkonflikt ist der eigentliche Konflikt. Dass da vielleicht mal eine Witwe zu spät gekommen ist und nur noch einen halben Teller Brühe abbekommen hat, das war allenfalls der äußere Anlass, der Funke, der das Pulverfass zum Explodieren brachte.

이러한 문화적인 갈등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한 과부가 늦게 와서 국을 반 그릇 밖에 못 받았다는지 하는 것은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Aber die Sache geht glücklich aus. Wir kennen das Ende der Geschichte: die Einheit ist gewahrt, der Friede wieder hergestellt. Und die Folge davon wird im letzten Satz genannt: „Das Wort Gottes wuchs und die Zahl der Jünger mehrte sich in Jerusalem sehr.“ Das heißt: Wenn eine Gemeinde es schafft, sich nicht zu spalten, wenn der soziale Friede gewahrt bleibt und Konflikte überwunden werden, dann zahlt sich das aus für die Mission – die Gemeinde wächst und gedeiht.

그러나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결말을 알듯이, 하나됨이 지켜졌고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가 나뉘이지 않고 사회계층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분쟁을 극복할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왕성하여 집니다.

Wie also wurde der Konflikt in der Jerusalemer Gemeinde gelöst? Machen wir uns zuerst klar, wie er nicht gelöst wurde: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분쟁을 해결 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봅시다.

- Die Gemeinde wurde nicht „um des lieben Friedens willen“ längs der Sprachgrenzen geteilt. Gerade dass Griechen und Aramäer es miteinander aushielten, war ja ein Beweis für die Kraft des Heiligen Geistes!

- 이 교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지지 않았습시다. 한 교회 안에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 Man hätte auch sagen können: Wenn die Witwenversorgung Ärger macht, dann stellen wir sie eben ein. Muss denn eine Gemeinde überhaupt eine Suppenküche unterhalten? Gehört das zum Kerngeschäft einer christlichen Kirche? – Aber die Gemeinde in Jerusalem hielt daran fest, auch wenn es schwierig war. Denn die Diakonie, der Dienst am Schwachen, ist ein Zeichen für die Liebe Christi, ein praktisches Glaubensbekenntnis.
-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시다.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니 그만둡시다. 교회가 국 퍼주는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교회의 주요 사업입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찌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돕는 구제사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시다.
- Die Apostel waren nicht konfliktscheu. Sie haben die Initiative ergriffen und sich dem Konflikt gestellt. Wie oft lassen gerade Christen Konflikte schwelen, weil sie sich vor Konflikten fürchten und sie ungeistlich finden. Aber dann wird am Ende alles nur schlimmer.
- 사도들은 분쟁을 피하려고 하지만 않았습시다. 그대신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맞섰습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겁내 하거나, 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려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더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시다.
- Die Apostel haben den Konflikt nicht durch moralischen Appell verdrängt (etwa: üble Nachrede ist unchristlich, seid mal alle schön zufrieden, vertragt euch doch alle mal wieder!), sondern sind ihm auf den Grund gegangen, haben die Ursachen analysiert.
-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았습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다시 화해 하십시오 등) 그 대신 그들은 상황을 잘 살피고 원인을 분석하였습시다.

Schauen wir nun hin, wie der Konflikt gelöst wurde: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는지 알아보시다.

- Die Apostel haben eine Vollversammlung („die Menge der Jünger“) einberufen. Die Apostel haben also nicht einfach eine Lösung dekretiert. Sie haben Demokratie praktiziert. Die Pastoren sind keine Halbgötter, die alles schon im Voraus wissen. Im Konfliktfall muss man einander zuhören, nachfragen, offen sein. Alle haben etwas zu sagen, jeder spielt eine Rolle.
-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모아 총회를 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단순히 지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 Die Apostel sind ganz ehrlich, räumen Fehler ein. Ja, mögen sie gesagt haben, das kann schon sein, dass uns bei der Essensausgabe Fehler unterlaufen sind. Sie geben zu, dass sie überfordert sind, sie sprechen über ihre eigenen Frustrationen: dass sie zu wenig zur Predigtvorbereitung kommen, zu wenig Zeit für den Dienst am Wort finden. Auch der Pastor in der Gemeinde ist beteiligt am Konflikt, er ist kein neutraler Schiedsrichter. Wenn er das zugibt, kann er auch seine eigenen Interessen deutlich machen.
- 사도들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식사를 나누어줄 때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점, 즉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이 부족한 점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목사님들도 분쟁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지만, 단지 객관적인 심판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사님들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Es werden neue Ämter und Verantwortlichkeiten geschaffen (hier: das Diakonenamt). Es soll nicht nur wenige Macher geben, der Dienst muss auf viele Schultern verteilt werden.
- 새로운 직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는 집사직).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 Die Apostel dekretieren keine Lösung, sondern machen einen Vorschlag, der von der Versammlung angenommen werden muss. Dann werden die Diakone von der Vollversammlung gewählt. Demokratie zahlt sich aus, denn dann tragen alle Beteiligten die Lösung mit. Die Leute identifizieren sich mit der Gemeinde und wandern nicht so leicht ab.
- 사도들은 해결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타당하게 여기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게 되고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 Alle sieben Diakone sind griechisch sprechende Leute. Das erkennt man an den Namen der sieben. Hier wird ein gerechter Ausgleich geschaffen im Gegenüber zu den aramäisch sprechenden Aposteln.
- 여기에 뽑힌 일곱 집사가, 그 이름으로 보아, 모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두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도들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Einer dieser sieben griechisch sprechenden Diakone ist ein „Judengenosse“, dh. ein Proselyt, der ursprünglich Heide war und per Bekehrung Jude geworden war. Diese Minderheit in der Gemeinde (Menschen, die erst Heiden gewesen waren, dann sich zum Judentum bekehrt hatten und dann als Juden Jesus als den Retter und Messias kennen gelernt hatten) wurde also auch in der Zusammensetzung der Leitung berücksichtigt.
- 또 이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교회의 임원으로 함께 활동함으로 교회내의 소수집단 (즉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고 또 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Liebe Gemeinde, in der Urgemeinde von Jerusalem ging es schon genauso menschlich und unvollkommen zu wie in unseren Gemeinden heute. Auch damals gab es christliche Einheit nicht ohne Konflikte. Auch damals gab es böses Gerede, unzufriedenes Murren. Auch damals gab es sprachliche und kulturelle Unterschiede, die leicht zu Spaltungen führten. Und dennoch war in der Gemeinde der Heilige Geist am Werk. Konflikte ließen sich lösen, und die Gemeinde wuchs und gedie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도 오늘날 우리교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부딪침이 있었고, 또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교회의 하나됨이 분쟁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험뜯는 말과 불평, 원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분쟁은 해결되었고 교회는 자라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Wenn das damals in Jerusalem so war, dann geht das auch heute so in Köln. Wenn die Einheit zwischen Griechen und Aramäern möglich war, dann auch heute zwischen Deutschen und Koreanern, oder zwischen Einwanderern der ersten und der zweiten Generation. Dann dürfen Sie dankbar auf Ihre fünfjährige Gemeindeggeschichte zurückblicken und sich auf die nächsten fünf Jahre freuen. Amen.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이곳 쾰른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는 독일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이, 또 일세와 이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빛교회의 지난 5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또 5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 설교자: 小栗 献(Ken Oguri 켄 오구리 목사, 켈른/본 일본교회 담임)

성경: 마 5:23-24

제목: 주님 안에서 화해 (キリストにのみよる和解:)

일시: 2003년 9월 21일(제 1회 한일 연합 성찬예배)

愛する主にある兄弟、姉妹あなた方の上に父と子と聖霊なる神様の祝福が豊かありますように。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길 빕니다.

ケルンにある韓国語教会と、ケルンにある日本語教会は、今、初めて共に礼拝をしています。
この素晴らしい提案をしてくださった韓国語教会に私たちは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この時を備えて下さった神に心から感謝を捧げます。

켈른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으로 일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韓国の人々は、日本の私たち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友人です。日本人と韓国人の間には、やや異なった面もたしかにあります。しかしそれでもなお、私たちはとても似ています。見た目もそっくりです。ものの感じ方、考え方においても理解しあえる部分が多いと思います。文化や習慣にも多くの共通点があります。そもそも、日本の伝統的な文化のほとんどは韓国を経由して日本に入ってきたものなのです。

한국 분들은 저희 일본 사람들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우선 외모가 비슷합니다. 또 문화와 습관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일본의 전통문화는 한국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そしてまた私たちは隣国にあって、共に協力して生きていくべき信頼できるパートナーであり、また互いに切磋琢磨するよきライバルでもあります。特に昨年は韓日共催の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が実現しました。日本も韓国も素晴らしい成績を収めました。なによりも私がうれしかったのは、特に若者たちがお互いのチームを応援し、その活躍を喜びあうことができたことでした。私たちはお互いを無視して生きていくことなどできない関係にあります。韓国と日本はお互いにとって、兄弟のような友人なのです。

또한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기도 하는 우방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지난해 월드컵축구대회를 공동개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특히 기뻐던 점은, 젊은이들이 다른 팀도 응원해 주고, 상대팀의 활약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무시하며 살수 없는 사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형제와 같은 친구입니다.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国は過去の100年にわたって、韓国に対して大きな罪を犯してきました。日本の国は過去において、韓国の人々の土地を奪い、言葉を奪い、たくさんの尊い生命を奪いました。女性たちを強制的に慰安婦として働かせ、その心に深い悲しみと深い傷を負わせました。日本の国がそのような罪を犯したとき、日本の教会もまたそのことに反対することが、ごく一部の人々を除いて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ばかりか日本の教会はアジアにおける侵略戦争に加担しました。日本の教会の指導者は、韓国のキリスト者に対して神社に参拝することを強要し、最後まで抵抗した多くの韓国の牧師は投獄され、生命を落としました。戦争が終わってからも朝鮮半島は戦場とされ、日本の国はその戦争によって利益を得て、経済発展を遂げましたが、朝鮮半島は分断されました。

그러나 지난 100년간 일본은 한국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나라 뿐만 아니라, 언어 그리고 귀중한 한국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여성들을 위안부란 이름으로 일본 군인들을 위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강제 동원시킴으로 그들의 마음에게 깊은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죄악을 범할 때 일본교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죄악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교회는 아시아 침략전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 하였습니다. 이 일에 마지막까지 저항한 많은 한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반도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다시 전쟁터로 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본은 큰 이익을 얻었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로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今日においてもなお、日本の政府は未だに日本が韓国に対してなしたことに本当に誠意のある謝罪をしておらず、悲しむべきことに日本人の中には歴史をねじ曲げて、日本のしたことは間違っていないなどと言う人々があります。

오늘까지도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슬프게도 일본에는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私は牧師として語る前に、一人の日本人として、日本が韓国になした罪を告白し、心から赦しを乞います。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일본사람으로서 일본의 잘못과 한국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このたび、チェ先生から合同礼拝のお話があり、そのテーマとして「キリストにのみよる和解reconciliation only through Jesus Christ」というご提案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は私たちにとって本当に相応しいテーマだと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正直に言って、私は私が「和解」というテーマのもとで説教をすることについて戸惑いを覚えました。日本と韓国の和解のために、まずなすべきことは、日本人である私たちが自分の国の犯した罪を告白し、赦しを乞うことで

す。そのことも充分にできていない中で、日本人である私が、この説教壇に立って韓国の人々に「和解」を勧告することなどできるのだろうか?と感じたのです。

최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 드려 저에게는 화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죄악을 시인하고 한국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은 지금, 일본인인 제가 어떻게 이 제단에서 화해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느낀 것입니다.

「和解」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誰かと誰かが和解するためには、両者の間に何があったのかを明らかにし、そのことをお互いに認め、謝罪す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はじめて和解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うのです。「何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ないところでの和解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その意味で、日本という国に属するものとして、また日本の教会に生きるものとして、和解に向けて、私たちにはまだま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렇다면 ‘화해’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두 당사자간에 일어난 진상이 분명하게 규명되어 그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인으로서, 또한 일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さて、今日の礼拝のために選ばせていただいた聖書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中の言葉です。

「だから、あなたが祭壇に供え物を献げようとし、兄弟が自分に反感を持っているのをそこで思い出したなら、その供え物を祭壇の前に置き、まず行って兄弟と仲直りをし、それから帰ってきて、供え物を献げなさい。」(マタイによる福音書 5:23-2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다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ここでイエス様がお語りになっていることは、私たちの常識を覆すことのようにも聞こえます。供え物を捧げる、ということは、当時の人々にとっては「礼拝をする」ということと同じ意味を持っていたでしょう。私たちは「礼拝」ということはキリスト者にとっては何ものにも優先されるべきことだと考えます。しかし、イエス様は、ここでは、礼拝よりも優先されるべきことがある。それは兄弟と和解する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입니다.

礼拝が、神と人との関係だとするなら、兄弟と和解するということは人と人との関係です。イエスは神との関係を大切にすると同じように人との関係を大切にしてくださいと言われます。それはイエスが、一人の律法の専門家から、「一番大切な律法とは何ですか？」と質問されたときにお答えになった答えにも現れています。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다라고 말한다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心を尽し、精神を尽し、思いを尽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これが最も重要な第一の掟である。第二もこれと同じように重要である。『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マタイ21章37-39) 「第二もこれと同じように重要である」という言葉は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神を愛することと人を愛することは同じように大切なのです。キリスト者のあり方はしばしば十字架の形で説明されます。十字架の縦の木が神とキリスト者の関係であるとすれば、横の木は人と人との関係です。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まさにその真ん中において十字架に掛かっておられるのです。神と人との間に和解をもたらす方は、人と人との間にも立っておられるのです。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 37-39) ‘둘째는 그와 같으니’란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을 종종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뜻하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する。」この言葉は私たちの関係において多くのことを教える言葉だと思います。先の戦争において、日本においても多くの悲しいことがありました。多くの女性たちが自分の夫や息子を戦争に送りだし、その多くは帰ってきませんでした。戦争で本当に悲しい思いをするのは多くの場合、女性や子どもたちです。しかし日本の軍隊はアジアにおいてその何倍もの人たちの生命を奪いました。罪もない子どもたちが軍隊によって虫けらのように殺されました。そのような人々の、決して癒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な悲しみ、絶望を、本当は私たちは人間として理解しあえるはずですが、日本人も血が通わない人間なのではありません。本当に自分のこととして考えて、自分の痛みを通して、相手の痛みの傍らに立つことはできる

はずです。聖書においてイエス様が憐れんだとあるときに、その「憐れみ」と言う言葉は「はらわた(内臓)」と言う言葉と関係を持っています。はらわたで人の痛みを知られたのです。

「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する」ということは、そこから始ま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차 세계 대전 중 일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부녀자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내었고 그들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슬픔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대는 아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무죄한 어린이들까지도 학살하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인간으로서 결코 치료될 수 없는 그 슬픔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냉혹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불쌍히’(Mitleid)란 말은 ‘내장’(Eingeweide)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렇게 몸소 느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今日のイエス様の言葉は、「供え物を祭壇の前において」仲直りし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した。礼拝する前に仲直りしなさいと言われていたのです。ところ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今、私たちは現実に、共に礼拝を守ることが赦されています。本当の和解がなさ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すでに私たちは一緒に礼拝に招かれています。

さきほどお話したように、今回、この説教壇で「和解」を語ることは、私には難しいことに感じられました。しかし、私に与えられた大きな希望は、ここで共に聖餐式を守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す。聖餐とは、一つのパンを共に分かち合うことです。私たちが一つのテーブルを囲み、私たちが主にあって一つであることを宣言されることでもあります。共に聖餐にあずか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はいろいろな問題を抱えてはいても、それでも一つなのだという確信を得ることです。

오늘 본문말씀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란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아직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제단 앞에서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에겐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私たちは共に神のみ手のなかにあります。本当に私たちは兄弟姉妹なのです。私たちは主にあ

って一つであるという信仰の内において、これからも完全なる和解のために共に作業を続けていくものなのです。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화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ドイツの大統領であったヴァイツゼッカーは「過去に目を閉ざすものは将来にも目を閉ざす」と言いました。まさにそれは私たちの関係において言えることです。私たちは共に、私たちの過去に目を向けるもの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し、同時に、将来に目を向けるものでありたいと思うのです。そしてその時に私たちが忘れてはならないのは、私たちの間には主イエスが立っ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독일의 전 연방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는 ‘과거를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현재도 바로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관계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일과, 동시에 미래도 함께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主において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への確信の中で、全てを率直に語り合い、学びあい、赦しを乞い、そしてこれから共に生きることを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はキリスト者に与えられた特別な確信です。そのために、私たちが直接に顔と顔を合わせて知りあい、また共に礼拝を守る機会を増やしていくことはとても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서로 배우고 용서를 구하며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하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今、日本にある多くの教会が韓国の教会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んで交流しています。私がドイツに来る前に牧師をしていた、東京の教会も春川にある教会と毎年行き来をしています。そして今、こうしてケルンでもこのように共に礼拝をもつことができることを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それと同時に、私の仲間の牧師たちは日本において、間違った歴史教科書に対する反対運動を続けています。

요즘은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환합니다.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섬기던 도쿄의 교회도 춘천에 있는 한국교회와 매년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놀랍게, 또 이 쾰른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들은 왜곡된 역사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私がこの説教の原稿を書いたのは八月半ば、15日の韓国における光復節の頃でした。日本が戦争に負けた時であり、韓国が日本の支配から解放されたときです。日本の教会は八月が来るた

びに過去の過ちを思い起こし、二度と日本と日本の教会がそのような道をとることがないようにとの決意を新たにしています。どうか韓国の教会もそのような日本の教会の働きのために祈って欲しいと思います。

저는 8월 15일 전에 이 설교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날이요 한국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일본의 교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일본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さて、私たちは自分の国を離れて、ドイツという外国にあって出会いました。ここに私は神様の不思議な恵みを感じます。私たちは多くの場合ドイツ語か英語で対話をしますが、それでもやはり、お互いの国の人に対して身近なものを感じます。ドイツの教会の会議などで韓国の牧師と会うとやはり話しやすいと感じる。ホッとするのはです。多くの学生たちもそうだと聞きます。やはり私たちは多くのものを共有し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우리는 모두 고국을 떠나 이 독일에서 서로 외국인으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독일어나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보다) 서로를 더 가깝게 느낍니다. 저는 독일에서 교회 협의회 같은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국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몇몇 학생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そして、何よりも私たちの間にはキリストがおられる。既にキリストの体において私たちは一つとなっている。そういう確信が私たちには与えられています。こうして一緒に礼拝をし、聖餐を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제 생각에 저희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기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これからも主の内であって、共に生きていきましょう。兄弟なのだからお互いに言うべきことは言いあい、率直に答え合うもの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遠慮や気兼ねはなしにしましょう。時には兄弟げんかもあっていいでしょう。私たちは主のもとであって、兄弟であり、姉妹なのです。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때로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平和の主なる神様
평화의 주 하나님!

今、韓国語教会と日本語教会が共に集い、共にあなたのみ言葉を聞く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またあなたはこの礼拝を通して、私たちがキリストにおいて一つであることを新たに教えて下さいました。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이렇게 한빛교회와 일본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日本と韓国の間には、あなたを悲しませる過去がありました。どうか私たちがキリストのもとにあって自分たちの過去に正しく目を向け、そして同時に、私たちの将来に、共に目を向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共に主を見上げながら、良き友として、また兄弟姉妹として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下さい。どんなときにも、私たちの間に主イエスがおられることを私たちが忘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お守り下さい。

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によって祈ります。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친구로, 형제 자매로,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항상 계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3. 설교자: Pfr. Johannes Weth(요하네스 벳 목사, 뒤셀도르프 토마스 교회 담임 및 Christcamp 대표, 2006년 월드캠프 준비위원장)

Predigt über Mt. 13:44 am 6. Juni 2004 in der Hanbit-Gemeinde Köln

2005년 2월 20일 쾰른 한빛교회에서 마 13:44을 본문으로 한 설교

Titel: Wenn Christen Gottes unentdeckten Schatz heben.

제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

Liebe Schwestern und Brüder, Die Christen aller Völker und Länder haben **einen gemeinsamen Traum**. Wir träumen diesen Traum seit 2000 Jahren. Der Traum heißt: Jesus Christus sprengt die Grenzen, die wir Menschen aufbauen. Jesus reißt die Mauern ein und eines Tages werden wir eins sein. Eines Tages wird das, was uns voneinander unterscheidet, uns nicht mehr voneinander trennen. Jesus Christus bringt die Welt zusammen. Jesus Christus reißt die Mauern ein.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한가지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 이상이나 이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어 놓은 모든 경계를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담을 허셨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서로 다른 점들이 우리를 더 이상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십니다.

In unserem gemeinsamen Traum beten wir alle gemeinsam Gott an: Koreaner und Deutsche, Evangelen und Katholiken und Pfingstler, alle Konfessionen stehen gemeinsam vor Gott. In diesem Traum werden auch alte unüberwindbare Grenzen eingerissen: Ostdeutsche und Westdeutsche sitzen gemeinsam im Gebet, Nordkoreaner und Südkoreaner, die alten Brüder, ja sogar Iraker und Amerikaner, der Krieg und der Tod verlieren endlich ihre Macht. Dieser Traum ist so alt wie die Bibel, immer wieder ist er aufgeblitzt, immer wieder haben Propheten davon erzählt. Jesus selbst hat vor seinem Tod Gott angefleht, dass alle, die ihm folgen, eins seien können. Jesus will, dass wir eins sind, so wie der Vater und er eins sind.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한국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개신교인이나 카톨릭교인이나 오순절 교회 교인이나,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꿈은 또한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오래된 담들도 무너뜨립니다.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남한 사람과 북한사람이, 심지어는 이라크인과 미국인이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사망은 결국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꿈은 성경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모습을 비추어 왔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Die Christen aller Völker und Länder haben einen gemeinsamen Traum. Es ist der Traum vom Reich Gottes. Der Traum von einem Reich, in dem Gott regiert. Einem Reich, in dem nicht mehr die Menschen sich gegenseitig beherrschen. Der Traum ist alt, das ganze Neue Testament ist voll davon. Und am Anfang war es kein Traum, sondern eine Erfahrung. Die Menschen haben damals gespürt: Jesus tut es. Jesus setzt Zöllner und Pharisäer an einen Tisch. Jesus bringt Sklaven und Freie zusammen. Jesus hat die Macht. „In Jesus Christus ist weder Jude noch Grieche, kein Sklave und kein Freier, nicht Mann und Frau, sie sind eins.“ (Gal. 3,28) Es ist so. Jesus kann es. Jesus tut es.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가지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이 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한 상에 모으셨고, 종과 자유인을 한테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갈 3:28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Aber dann wurde aus dem alten Traum ein ewiger Traum. Etwas, das du dein Leben lang träumst und doch niemals erleben kannst. Denn die Christen aller Völker und Länder haben zwar einen gemeinsamen Traum, aber kein gemeinsames Leben, keine gemeinsame Kultur und **keine gemeinsame Realität**. Denn die einen Christen sind reich und die anderen arm. Und die Reichen haben prunkvolle Kirchen mit goldenen Kreuzen und wunderschönen Gesangbüchern, aus denen sie gerne singen. Und die Armen haben nur liebevoll geschmückte Blechhütten mit Holzkreuzen, aber kraftvolle Herzen, aus denen sie ihre Lieder schöpfen.

그러나 그렇게 오랜 염원이던 것이 이제 아주 영원한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 꿈꾸기만 하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우리의 처한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부자들은 교회도 휘황찬란하고 십자가도 금으로 달아 놓습니다. 또 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도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양철지붕에 나무 십자가라도 정성껏 꾸며 놓은 교회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있는 찬송을 드립니다.

Die einen Christen sind schwarz und andere weiß, Afrikaner, Asiaten, Europäer, Latinos. Die einen Christen beten in Englisch, die anderen in Koreanisch und einige auch in Deutsch. Sie sprechen zu Gott in der Sprache, die ihnen ihre Mutter beigebracht hat, weil sie zu Gott so unendliches Vertrauen spüren wie zur eigenen Mutter. Und Gott versteht sie in ihrer Muttersprache. Und doch verstehen sie einander nicht.

Sie haben einen gemeinsamen Traum, aber keine gemeinsame Realität. Den einen Christen gehört das Land und die anderen sind zu Gast. Und die Gäste müssen lernen, sich anzupassen.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 유럽사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어로 기도를 드립니다. 모두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치 나의 친어머니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끝없는 신뢰를 느낄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같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모두 다릅니다. 한 나라에 주인이 있으면 손님도 있는 것이고 손님으로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Und so bleibt der alte Traum ein ewiger Traum. Wer heute sagt: „Nein, es ist kein Traum, Jesus kann es und er tut es.“ der ist erst recht ein Träumer. Er verkennt die Realität. Kennen Sie diese Spannung. Sie kennen die Wahrheit. Sie glauben daran aus tiefstem Herzen, aber Sie leben in der Realität und das bestimmt alles. Aber Jesus hat es gewollt. Jesus hat dafür gebetet und er hat erzählt von dem alten Traum vom Reich Gottes, das die Grenzen der Realität sprengt. Jesus erzählt eine Geschichte, wie aus dem Traum Realität wird.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영원한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오늘 “아니요,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고 또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꿈꾸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지만, 사람은 현실에 살고 있고 또 그 현실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실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꿈이 현실로 변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Jesus erzählt von einem wunderschönen Schatz. Dieser Schatz liegt verborgen in einem Acker. Wie eigenartig. Der Schatz liegt nicht im Keller eines Schlosses oder in einer geheimnisvollen Höhle, nein, er liegt irgendwo in einem Feld. Und der Schatz liegt da, gut verborgen und wartet darauf, dass jemand ihn findet. Der Besitzer des Ackers findet ihn anscheinend nicht. Ein anderer kommt, vielleicht ist er nur ein Spaziergänger auf dem Acker oder ein Angestellter. Aber er findet den Schatz. Er sieht es zwischen der Erde schimmern. Er gräbt nach und entdeckt einen unfassbaren Schatz. Und er geht nicht zum Besitzer, um ihm von dessen Schatz zu berichten. Nein, die Geschichten von Jesus sind manchmal fast kriminell. Der Fremde deckt den Schatz wieder gut mit Erde zu, so dass keiner ihn finden kann und merkt sich genau die Stelle. Dann geht er so gut gelaunt nach Hause wie nie zuvor. Er freut sich wahnsinnig über den Schatz, den er gefunden hat. Er leert alle seine Konten. Er pumpt alle seine Freunde an. Er leiht sich alles

Geld, das er auftreiben kann. Er verkauft sein Haus, sein Auto, sein Fahrrad und am Ende sogar sein Bett. Er macht alles zu Geld. Dann geht er zu dem Besitzer des Ackers und kauft ihm den Acker ab. Er gibt alles auf, um alles zu gewinnen. Er tauscht seine Heimat, seinen Erfolg, alles, was er sich aufgebaut hat gegen diesen Acker ein, um mit ihm den Schatz zu besitzen.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보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은 어떤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보물이 큰 성의 지하 창고에 잘 보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동굴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물은 밭에 감추어져 어느 누구든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근처를 산책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는 땅속에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 거기에서 예기치 못했던 훌륭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밭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은 꼭 죄를 저지르는 것같이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보화를 흙으로 잘 덮어 숨겨두고는 그 자리를 잘 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 보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보화를 찾은 것 때문에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통장의 돈을 다 찾고, 친구들에게서, 또 이곳 저곳에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모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자전거, 심지어는 침대까지 모두 팔아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났으며, 그의 성공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 땅과 바꾸었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Liebe Schwestern und Brüder. Ich möchte Ihnen heute morgen gerne zusagen: Gott hat immer noch diesen unvorstellbar großen Schatz für uns. Der Schatz ist da, mitten unter uns, ein bisschen was von diesem Schatz haben wir schon aus der Erde geholt, aber einen großen Teil haben wir auch noch nicht gehoben. Wir hatten noch keinen Mut dazu. Wir halten es nicht für möglich. Wir wissen, wie groß dieser Schatz ist. Denn in unserem Glauben haben wir diesen alten Traum.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화를 조금은 캐내었지만 아직 상당부분이 땅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화를 완전히 캐낼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직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esus sagt nicht: „das Reich Gottes liegt auf der Hand.“ Jesus sagt nicht: „du musst nur hinschauen, dann siehst du’s schon.“ Jesus sagt „das Himmelreich ist wie ein verborgener Schatz“, wie Gold, das in der

Erde vergraben ist. Es ist wie mit dem großen Traum, den wir Christen im Herzen haben und der Realität, in der wir gleichzeitig leben. Die Realität ist das, was uns vor Augen liegt. Die Realität ist wie der Acker. Die Realität sagt: Koreanische Christen glauben und sprechen anders als deutsche Christen. Das sind Grenzen, die muss man akzeptieren. Die kann man nicht überwinden. Die Bibel sagt nicht, dass es das nicht gibt. Die Realität ist wirklich stark. Aber die Bibel sagt: Unsere Kultur und unsere Grenzen sind nur die Oberfläche. Dahinter liegt ein unermesslicher Schatz. Und jetzt fangt an zu graben!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단지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벌써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은 마치 땅 속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큰 꿈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관계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은 바로 밭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과 독일은 언어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한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화나 다른 점들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밭을 갈아야 합니다!

Ich habe mich gefragt: Wieso ist der Schatz in der Geschichte in einem Acker verborgen, der dem Mann nicht gehört? Wieso erzählt Jesus die Geschichte so. Ich gebe Ihnen eine Beispiel: Wenn ich zu ihnen in die Gemeinde komme, dann komme ich als ein Fremder. Ich muss übersetzt werden, damit alle mich verstehen. Ich muss vieles neu lernen, um mich zurechtzufinden. Ich weiß nicht, wie meine Worte wirken, weil ich nicht weiß, wie Sie sie hören. An dieser Stelle könnte ich umkehren und sagen: Ich bin hier nicht zuhause. Gott will mich nicht hier haben. Ich bleibe lieber bei Leuten, wie ich sie kenne. Ich bleibe lieber auf meinem Acker, in meiner deutschen Familie, Kultur und Gemeinde. Aber ich komme trotzdem, aus einer Mischung aus Neugier und dem ewigen Drängen des Heiligen Geistes.

저는 왜 그 보화가 다른 사람의 밭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외국인)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 환경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돌아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길 원하지 않으시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 내 밭에서 살아야지. 내 가족, 내 문화 내 교회가 있는 곳이 낫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Und vielleicht werde ich mich erst einmal nicht zuhause fühlen. Ihre Kultur bleibt mir fremd. Man könnte sagen, ich ziehe endlose Bahnen über ihren Acker und finde nur Erde. Aber dann entdecke ich

irgendwann plötzlich einen kleinen Schimmer von Gold. Und ich fange an zu graben und entdecke einen ungeheuerlichen Schatz. Ich kenne diesen Schatz von meinem Acker zuhause, aber dort habe ich ihn nie so gesehen. Wie soll ich auch entdecken, dass Gott Grenzen sprengen kann, wenn ich immer in meinen Grenzen bleibe. Wie soll ich entdecken, dass Gott aus Fremden Geschwister macht, wenn ich gar keine Fremden treffe. Aber jetzt bin ich hier und ich finde einen Schatz. Gott hat einen großen Schatz in Ihrer Mitte verborgen und ich darf ihn bei Ihnen finden. Und so sieht der Schatz aus: Ich finde Menschen, die wie ich beten und dem heiligen Geist vertrauen. Ich finde Menschen, die meine Geschwister sind, obwohl wir uns vorher nicht einmal kannten. Ich finde Menschen, die eine andere Muttersprache haben als ich, aber ich verstehe ihre Sprache, weil sie mit mir zu demselben Gott beten. Ich ahne, dass, wenn Gott uns zusammen bringt, dann bringt er auch unsere Völker zusammen. Ich spüre, dass Jesus es kann und es tatsächlich auch tut. Er sprengt die Grenzen. Das ist der große Schatz, den ich heute bei Ihnen finde.

어쩌면 처음에는 집처럼 편하게 느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화가 저에게는 생소합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는 밭뿐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갑자기 금처럼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저는 흙을 파헤치고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 밭에도 이런 보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계속 제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허무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외국인들도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곳에 왔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한 보물을 감추어 두셨고 저는 그 보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저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으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민족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찾은 귀한 보화입니다.

Wenn Sie in meine Gemeinde kommen, dann kommen sie als Fremde. Sie kennen das vielleicht: Wenn wir Deutschen nett sind, sind wir gute Gastgeber. Aber sie bleiben ein Gast und damit auch ein Fremder. Sie müssen unsere Sprache lernen, um verstanden zu werden. Sie müssen viel neues begreifen, um sich überhaupt zurechtzufinden. Sie wissen nicht, wie ihre Worte wirken, weil Sie nicht wissen, wie wir hören. An dieser Stelle könnten sie umkehren und sagen: Ich bin hier nicht zuhause. Gott will mich nicht hier haben. Ich bleibe lieber bei Leuten, wie ich sie kenne. Ich bleibe lieber auf meinem Acker, in meiner koreanischen Familie, Kultur und Gemeinde. Aber ihre alten Gebete lassen sie nicht ruhen. Jesus hat es gebetet und es nagt an Ihnen: „Ihr sollt alle eins sein wie der Vater und ich eins sind.“ Und der Heilige Geist drängt sie, nicht locker zu lassen. Und sie bleiben dran und lassen sich nicht abschrecken von

unserer abweisenden Oberfläche. Und vielleicht werden Sie sich erst einmal nicht zuhause fühlen. Unsere Kultur bleibt Ihnen fremd. Man könnte sagen, Sie ziehen endlose Bahnen über unseren Acker und finden nur Erde. Aber dann entdecken Sie irgendwann plötzlich einen kleinen Schimmer von Gold. Und Sie fangen an zu graben und entdecken einen ungeheuerlichen Schatz. Sie kennen diesen Schatz von Ihrem Acker zuhause, aber dort habe Sie ihn nie so gesehen. Wie sollten Sie auch entdecken, dass Gott Grenzen sprengen kann, wenn Sie immer in Ihren Grenzen bleiben. Wie sollten Sie auch entdecken, dass Gott aus Fremden Geschwister macht, wenn Sie gar keine Fremden treffen. Aber jetzt sind Sie hier und Sie finden einen Schatz. Gott hat einen großen Schatz in unserer Mitte verborgen und Sie dürfen ihn bei uns finden. Und so sieht der Schatz aus: Sie finden Menschen, die wie Sie beten und dem heiligen Geist vertrauen. Sie finden Menschen, die Ihre Geschwister sind, obwohl Sie sie vorher nicht einmal kannten. Sie finden Menschen, die eine andere Muttersprache haben als Sie, aber Sie verstehen ihre Sprache, weil sie mit Ihnen zu demselben Gott beten. Sie ahnen, daß wenn Gott uns zusammen bringt, dann bringt er auch unsere Völker zusammen. Sie spüren, dass Jesus es kann und es tatsächlich auch tut. Er sprengt die Grenzen. Sie merken, wie groß der Schatz ist, den wir vergessen haben.

입장을 바꾸어 여러분께서 우리 독일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주인으로써 아무리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한다 해도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손님이고 이방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을 배워야 하고 새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돌아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길 원하지 않으시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 내 밭에서 살아야지. 내 가족, 내 문화 내 교회가 있는 곳이 낫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처지지 않도록 도와 주십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피상적인 일들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짐처럼 편하게 느낄 수 없고, 문화가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리 가도 보이는 것은 밭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무언가 작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흙을 파헤쳐보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보화를 이미 여러분 밭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아주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끼리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모두 허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외국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외국인들도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훌륭한 보물을 감추어 두셨고, 여러분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으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민족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경계를 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잊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Vor ein paar Wochen saß ich mit einigen deutschen Pfarrer-Kollegen in Krefeld bei einer Fortbildung zum Thema Jugendarbeit in der Gemeinde. Das Gespräch drehte sich immer wieder um dieselben Fragen. Wie soll denn je etwas Neues bei uns passieren? Es ist doch eh nur das möglich, was wir auch schon aus unserer Erfahrung kennen. Dann kam der neue Vikar Ihrer Hanbit Gemeinde einen Tag nach Tagungsbeginn dazu. Eigentlich wollte er schon gar nicht mehr kommen. Und als er mich und meine Pfarrerkollegen sah, dachte er, wäre ich doch besser zuhause geblieben. Er dachte vielleicht: So sind die deutschen Pfarrer eben und wir sind halt anders. Ich bin hier nicht zuhause. Aber dann ist er geblieben und hat ein paar Tage mit uns ausgehalten. Und er hat bei uns den Heiligen Geist entdeckt und ihn uns zugesprochen. Niemals hätten wir uns einfach getraut, auszusprechen, dass wir den Heiligen Geist in unserer Jugendarbeit vermissen. Aber Ihr Vikar hat mit uns nach dem Schatz unter der Erde gesucht, für einen Moment hat er es gewagt. Und wir durften den Schatz sehen, den wir schon vergessen hatten. Und der Heilige Geist hat Grenzen gesprengt und Pfarrer vom Staub befreit. Und am Ende haben die deutschen Pfarrer auch dem koreanischen Vikar die Hände aufgelegt und ihn gesegnet.

몇 주전에 크레펠트에서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청소년 목회를 주제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계속 한가지 문제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곳 쾰른 한빛교회에 새로 오신 김재민 전도사님이 하루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사실은 오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와 저의 동료 목사님들을 보았을 때, 집에 있는 게 나을 뻔 했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목사들은 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 했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며칠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도사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도 우리에게 속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청소년 목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우리와 함께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보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경계를 허셨고 목사님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독일 목사님들은 전도사님께 안수하며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Es ist eine einfache Frage, die mich bewegt: Wie soll ich herausfinden, ob Gott Grenzen sprengen kann, wenn ich immer in meinen Grenzen bleibe. Der Mann in der Geschichte findet den Schatz nur außerhalb seiner Grenzen und dann verändert sich alles in seinem bisherigen Leben.

Wie geht die Geschichte weiter? Der Mensch *fand den Schatz und verbarg ihn*:

Das ist die normale Reaktion jedes Menschen. Das, was ich gefunden habe, muß ich verbergen, damit

kein anderer es bekommen kann. Jeder behält seinen Schatz für sich. Wir Christen kranken daran über alles. Im Leben unserer Gemeinden ist die Geschichte hier oft vorbei. Gott lässt uns einen Schatz entdecken und wir sind ganz erschrocken. Das könnte ja alles verändern. Wenn ich anfangen, so zu denken, dann könnte alles anders werden. Das ist sicher wahr und richtig, aber das wird meine Realität verändern. Dann lieber nicht. Zunächst einmal möchte ich bleiben, wie ich bin und dann soll das Evangelium mir noch etwas sagen dürfen. Aber ein Evangelium, das alles verändert und in Frage stellt, das muss man schnell wieder verstecken.

저를 사로잡는 질문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늘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은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였고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됩니까?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내가 찾은 것을 남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기게 됩니다. 모두 자신을 위해 보화를 숨겨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보화 때문에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보화를 감추고는 다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모두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 놀라고 맙니다. 모든 삶을 바꾸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 사실이고,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면, 그건 곤란하지. 우선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면서 복음을 좀더 들어야 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다시 재빨리 숨겨 버립니다.

Aber die Geschichte geht anders weiter. *In seiner Freude ging er hin und verkaufte alles:*

Die Freude am Evangelium überwindet alle Angst. Die Freude ist der Schlüssel. Wer wirklich den Schatz entdeckt, ist nicht mehr zu stoppen. Der Traum ist wahr. Ja, Jesus kann es und er tut es auch. Jesus sprengt die Grenzen. Die Freude ist der Schlüssel. Wenn ich auf unser Land sehe und spüre, wie Menschen immer mehr nebeneinander her leben, dann brauchen wir Mut, um diese Grenzen zu überwinden. Wenn ich auf unsere Kirchen sehe und spüre, dass wir uns schon daran gewöhnt haben, dass wir als Christen aus allen Völkern nicht gemeinsam, sondern nacheinander Gottesdienst feiern, dann brauchen wir Mut, um es noch einmal neu zu versuchen. Woher soll dieser Mut kommen? Die Freude ist der Schlüssel. Gott hat den alten Traum nicht aufgegeben, er hat Christen aus allen Ländern zusammengeführt und er will Wunder tun, um sie auch als Geschwister zusammenzubringen. Der Schatz liegt heute mitten vor uns. Und wenn uns diese Freude packt, dann haben wir auch den Mut, unsere Heimat zu verlassen, um den Schatz zu heben.

그러나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 기쁨이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

한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진실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허셨고, 기쁨이 그 열쇠입니다. 독일 내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뛰어 넘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우리 몸에 배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기쁨이 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한 형제 자매로 세우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보화는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보물을 찾으려고 향을 떠날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Ich habe einen afrikanischen Freund. Er arbeitet oft mit mir zusammen. Wenn er mit uns tanzt und singt, dann überwindet die Freude alle Grenzen. Diese Freude setzt sich in meinem Herz fest. Ich habe in meiner Kirche nicht gelernt, das Evangelium tanzend zu feiern. Ich habe es bei meinem afrikanischen Freund entdeckt. Diese neue Freude gibt mir Mut, auch wenn die Mauern in meinem Land und in unseren Kirchen unüberwindlich scheinen.

제게 아프리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저와 가끔 일을 같이 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이 기쁨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춤을 추며 복음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제 아프리카 친구에게서 배웠습니다. 설사 우리 나라안에,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담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기쁨 때문에 저가 용기를 얻습니다.

Wie endet die Geschichte, die Jesus erzählt? Der Mann kaufte den Acker:

Das ist interessant. Der Mann konnte nicht nur den Schatz kaufen. Er musste den ganzen Acker kaufen. Wir können uns nicht gegenseitig das für uns schönste aus unserem Glauben und unseren Gemeinden herausnehmen. Wir bekommen den Schatz nicht ohne den Acker. Ich bekomme den Schatz aus dieser koreanischen Gemeinde nicht, wenn ich nicht auch Ihre Lebensumstände und Ihre Kultur mit entdecke und lieben lerne. Es geht nicht nur darum, ob wir etwas nettes aneinander finden. Es geht nicht nur darum, ob die Deutschen Ihre schönen Kirchen für die koreanischen Gemeinden bereitstellen. Und auch nicht nur darum, ob die koreanische Musiker in unserem Weihnachtsoratorium singen. Das sind nur erste Schritte. Wenn wir anfangen, die ganze Kultur des anderen zu lieben, dann werden wir entdecken, dass der Schatz unter seinem Acker vielleicht noch viel größer ist als wir angenommen haben.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그 밭을 샀느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그 보화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밭 전부를 샀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골라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는 발을 제외하고 보물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처지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아무 것도 발견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좋은 것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교회가 한국사람들에게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또 한국 음악인들이 독일교회에서 성탄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첫걸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발에 있는 그 큰 보화를,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ch möchte mit einem Ausblick schließen:

Was würde eigentlich passieren, wenn die vielen verschiedenen Christen in unserem Land es doch noch lernen würden, ihre Schätze zu teilen? Ich glaube, solange wir nicht unsere Grenzen hinter uns lassen, werden wir nie erfahren, wie stark Gottes Macht ist, sie auch hinter uns einzureißen. Wenn ich bei Ihnen dafür bete, dass die deutschen Gemeinden eins werden mit den koreanischen. Und wenn Sie bei uns beten andersherum beten würden, würde das Gebet dann nicht die Mauern zwischen uns einreißen. Wir dürfen die Kraft des Gebetes nicht unterschätzen, weil sie uns verbindet mit der Kraft des Heiligen Geistes. Der Heilige Geist drängt darauf, dass der alte Traum wieder eine Erfahrung wird. Etwas, das wir auf dem Herzen und vor Augen haben.

저는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이 독일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보화를 서로 나누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한, 우리의 경계들을 모두 파하시느라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독일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헐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꿈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Ich möchte Ihnen von einem kleinen Traum erzählen, einer neuen Idee, mit der wir vielleicht gemeinsam ein Zeichen dafür setzen können. Ich bin in einem Team von jungen deutschen Predigern. Wir sind in Krefeld in einem Jugendcamp jedes Jahr Gastgeber für tausende Kinder und Jugendliche. Sie kommen in Schulklassen mit Ihren Lehrerinnen, in Gemeindegruppen mit ihren Pfarrern und auch ganz alleine zu aufregenden Ferienfreizeiten. Wir erzählen ihnen biblische Geschichten und spielen, singen, beten und tanzen mit ihnen. Viele der Kinder und Jugendlichen finden dort auf unserem Acker Gottes Schatz und kommen zum Glauben.

이제 여러분들께 저의 꿈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의 젊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룹의 일

원입니다. 우리는 매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과 함께 오기도 하고, 어떤 그룹은 목사님과 함께 오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며 춤도 추고 게임도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발에 와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Wie wäre es, wenn diese Kinder und Jugendliche nicht nur auf uns als Deutsche treffen würden, sondern neben uns auf 3,4 koreanische Christen in unserem Alter? Deutsche Kinder und Jugendliche hätten plötzlich mitten in Deutschland koreanische Gastgeber. Und gemeinsam würden wir Geschichten von Jesus erzählen, spielen, singen, beten und tanzen. Und die Kinder und Jugendlichen würden zum Glauben kommen und dabei Geschwister aus allen Nationen finden. Sie würden koreanische Freunde finden und erleben, wie vielfältig Gott die Menschen geschaffen hat und sich darüber freuen lernen.

만약에 이 청소년들이 캠프에 와서 우리 같은 독일 목사들뿐 아니라 서, 너 명의 한국교역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겠습니까? 독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독일 땅 한가운데서 한국 주인을 만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말씀을 듣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게임도 할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 올 것이고, 여러 다른 국적을 가진 어린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 친구들을 사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셨나 경험하게 되고 기뻐할 것입니다.

Und der Traum geht noch weiter. Was würde passieren, wenn die Kinder und Jugendlichen gemeinsam mit ihren koreanischen und deutschen Gastgebern gemeinsam ein Haus bauen würden. Wir haben gerade 18 Bauwagen geschenkt bekommen. Und wir bauen einen dieser Bauwagen um. Zu einem koreanisch-deutschen Versöhnungshaus. Einem Haus, das nach koreanischer Kultur und nach deutscher aussieht und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gebaut ist.

꿈은 계속됩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독일과 한국의 교역자들과 함께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최근에 18개의 이동식 집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 중 한대를 한국과 독일의 화목의 방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외모는 독일식이지만 한국적으로 꾸며 보는 것입니다.

Und der Traum geht noch weiter. Was würde passieren, wenn auch noch Gastgeber aus vielen anderen Nationen und Kulturen kommen würden? Und auch sie würden mit den Kindern und Jugendlichen leben, ihren Glauben teilen und gemeinsam Häuser bauen, an denen keiner vorbeisehen kann. Und dann würden wir die Häuser auf die Straße ziehen, um Deutschland zu zeigen, dass die Kinder den Schatz gehoben haben und dass wir zusammen gekommen sind. In einer Zeit, wo jeder sagt, die Realität ist, wir sind verschieden, also bleiben wir auch getrennt. Und gemeinsam würden wir das Evangelium sagen und spüren, wie Jesus die Gesellschaft verändert, weil hunderte Jugendliche, Pfarrer und Lehrerinnen

plötzlich koreanische Freunde haben, mit denen sie ihren Glauben teilen.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 다른 나라들도 함께 주최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함께 지내며 믿음을 나누고, 아무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멋진 집을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서로가 다르니,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였다고 그리고 보화를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 백 명의 청소년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믿음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Und der Traum geht noch weiter. Wir bringen unsere rollenden Häuser auf einen Berg in der Mitte Deutschlands, um dort die Stadt wie ein Licht aufzustellen. Eine Stadt, in der Deutsche, Koreaner, Afrikaner, Südamerikaner zusammen kommen und Gott feiern und das Leben teilen. Ja, vor einigen Monaten hat Gott uns für diesen Traum einen Berg in der Mitte Deutschlands geschenkt und wir müssen keine Miete dafür zahlen. Das ist nur ein kleiner Traum. Wir nennen ihn World Camp, weil die ganze Welt in einem kleinen Camp zusammen kommen kann. Wir würden uns freuen, wenn wir dort eine Grenze überschreiten können, die wir in unseren Kirchen noch nicht überschreiten können. Wir würden uns freuen, wenn wir ein Zeichen für den alten großen Traum setzen könnten, dass Jesus will, dass wir alle eins sind und einander lieben. Wir würden uns freuen, wenn Sie mit uns auch diesen kleinen Traum teilen würden.

꿈을 더 이야기해보면. 이 이동식 집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독일 내 산 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곳은 독일, 한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예, 바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위해서 독일 내에 산을 하나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작은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캠프를 온 세계가 한자리에 모였기에 월드 캠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넘지 못하는 경계를 이곳에서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Noch einmal zum Abschluß die Frage:

Was würde eigentlich passieren, wenn die vielen verschiedenen Christen in unserem Land es doch noch lernen würden, ihre Schätze zu teilen? Ich glaube, die Christen würden gemeinsam die Freude an der Kraft ihres Gottes wieder entdecken und so zum Licht der Welt werden. Amen.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나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또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5. Sermon for Palm Sunday in Hanbit Community Church in Cologne

(켈른 한빛교회 종려주일 설교)

Date: 20th March 2005 (일시: 2005년 3월 20일)

Bible Text: Acts16:25-34 (성경: 행 16:25-34)

Title: The parable of the black stone (제목: 검은 돌의 비유)

Preacher: Rev. Robert Calvert(Scotland International Church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설교자: 로버트 칼버트 목사(네덜란드 로테르담 스코틀랜드 국제교회 담임목사))

I bring you very warm Christian greetings from the Scots International Church in Rotterdam on this Palm Sunday. It is a joy to be worshipping the Lord with you and pastor Choi. My church is an old Scots community from the days of Reformation – over 360 years old – and became multiethnic in the last generation. There are people from more than forty nations in the church, half of my elders are from Africa, the secretary of the Church Council is from Syria and we name different countries every week in our call to worship. We have four other congregations, all with African pastors, worshipping in the same city-centre church. The Korean Methodist Church was one of the first churches to share the building with us until they moved to the Hague a few years ago. Our churches worship in two of the great citie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on this Palm Sunday. Today we tell the story of Jesus entering another great city, Jerusalem. He was worshipped only to be rejected in the week ahead.

오늘 종려 주일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제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의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360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스코틀랜드 교회이며 최근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약 40여 개국에서 온 성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출신의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제직회 비서는 시리아에서 오신 분이며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외에도 같은 예배당에서 다른 네 교회가 또 있습니다. 모두 아프리카 교회들로서 로테르담 시내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감리교회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헤이그로 옮겼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두 큰 도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려 주일이지요. 주님께서는 잠시 많은 우리들의 환영을 받으셨지만 며칠 후 배척을 당하시고 맙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ity divided by wall into four parts. In one part all the people and animals and houses were red, in another green, in another blue and in another yellow. All the people thought their color was the best and they never spoke to each other. But one morning the red people found a great black stone in their midst. They painted it red, but the paint would not stick to it. So one night they threw it over the wall to the green people – and the green people threw it over to the blue – and the blue threw it to the yellow. The stone wouldn't change. It stayed obstinately and beautifully black. But then the people started

to change. They climbed their walls and started to talk about the problem of the stone. And they enjoyed talking, so they started to knock down the walls. Then they used the bricks to build a church, within a great fourfold arch, at the centre of the new city. And the cornerstone of the arch was the great black stone. What makes God's people belong to each other is the fact that they all belong to God. What makes the stones of the 'living house' hold together is their relationship to the 'cornerstone' (1 Peter 2 v.4-5) which gives strength and stability.

옛날에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구역의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모든 집들은 붉은 색이었습니다. 둘째 구역은 초록색, 셋째 구역은 파란색이었고 마지막 넷째 구역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색깔이 가장 좋은 색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른 구역의 사람들과는 전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붉은 색 사람들은 아주 큰 검은 돌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을 붉은 색 페인트로 칠했지만 그 페인트는 곧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검은 돌을 초록색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던져 버렸습니다. 초록색 구역의 사람들은 그 돌을 다시 파란색 구역 사람들에게 던졌고 이 사람들은 다시 노란색 구역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검은 돌은 색깔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검은 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담을 넘어 그 검은 돌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하기를 즐겼고 마침내 벽들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벽돌들로 새로운 도시 중심에 사각형 아치로 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의 모퉁이돌은 물론 그 검은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인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집'의 벽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힘과 안정을 주는 '모퉁이돌'(벧전 2:4-5)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In the 1980s I went to be a pastor in a poor housing area of Glasgow. The people there taught me to be a pastor to the community of 25, 000 people... people broken by life's experiences, mostly unemployed and poorly educated. It took a few years but it was in Glasgow that I first discovered the urban Jesus. Christ does not care for people's social background. Jesus loves the poor and is active in their lives. In Rotterdam, from the mid nineties, I discovered the universal Jesus. The Scots people were a minority ethnic group in their own church and the greatest growth is in the peoples from West Africa! Christ loves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culture of the world and is active in their lives.

1980년대 저는 글래스고우의 빈민가에서 목회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저를 그 지역에 사는 2만 5천명의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실업자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아픈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글래스고우에서 저는 처음으로 '도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로테르담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목회하면서 '보편적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스코

틀랜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오히려 소수 그룹이었고 아프리카 서부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나라와 문화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Today the majority of new disciples are non-white and non-Western. Not surprisingly, they bring very cultural outlooks into the church. We find ourselves welcoming each other in different ways, worshipping in different ways and thinking about church in different ways. We ar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want to fit Christ into our own culture. It is easy to pay lip service to the idea that Jesus cares for the whole world, but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we face is the same as that which faced the disciples of Jesus in the book of Acts: not only to believe but to accept that Jesus is for all the nations. How do we show that? Jesus commande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ow do we do that?

오늘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백인이 아니며 서구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분들이 교회에 새로운 문화적 형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환영하며 예배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 자신의 문화적 틀에 맞추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세계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상에 입술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대한 도전들 중의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것들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 줍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Another question: What was the first church in Europe? Scottish? Dutch? German? Korean? Let's tell the story. Paul received a call to come to Macedonia. Whatever the nature of that call, he answered it and began his church-planting ministry in Europe. No one told him that he had moved continents. No one asked for his passport. But he was in Europe and the first church he planted there was in Philippi with a small bible study group that was meeting by the river. Let's look at what that church was like in Acts 16.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는 무엇이지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한국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유럽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륙을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그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에 있으면서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에 세웠는데 강가에서 모이는 작은 성경공부 그룹 모임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 보십시오.

Consider the social backgrounds of those involved. Lydia is likely to have been a wealthy woman, who made her money in what the 'rag trade'. She certainly had a large enough house to accommodate the four

missionaries in addition to her own household (v.15). The slave girl came from the opposite end of the social spectrum. You could not sink much lower in public estimation than to be a female slave. She owned nothing, not even herself. She had no possessions, rights, liberty or life of her own. Even the money she earned by fortune-telling went straight into her masters' pockets. Then the jailer was socially half-way between the two women. Although he had a responsible post in the local prison, he was still only a subordinate official in government service. One might say that he belonged to the respectable middle class. Lydia came from the top of the social scale, the slave girl came from the bottom and the Roman jailer was one of the sturdy middle-class who made up the Roman civil society. It would be hard to imagine a more disparate group than the business woman, the slave girl and the jailer. Racially,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they were worlds apart. Yet all three were changed by the same gospel and were welcomed into the same church.

이 교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는 부유한 여성으로서 자주 장사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명의 선교사들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15절). 반면에 여종은 정반대의 계급 출신입니다. 여종보다 더 낮은 계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도 권리도 자유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예언을 해서 벌어들인 돈까지도 바로 주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의 간수는 루디아와 여종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감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존경 받는 중산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최 상류층, 여종은 최 하류층 그리고 로마 간수는 로마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간층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우먼과 여종과 간수로 구성된 그룹보다 다 다양한 집단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동일한 한 복음에 의해 변화되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nsider their ethnic backgrounds. Philippi was a very cosmopolitan city, a Cologne or Rotterdam of the Roman Empire. It had been Greek before it was Roman and sat across the great East-West 'Via Egnatia'. Lydia was Asiatic and came from Asia Minor. She was an immigrant in Philippi, not a native. Presumably the slave girl was Greek and a resident. She could have been a foreigner since slaves were imported from everywhere (though there is nothing in the account to indicate this). The jailer was probably like most jailers at that time – a retired soldier or army veteran. Like all officials in the legal administration of a Roman colony, he was doubtless a Roman himself. Each of the three had been brought up in a different national culture. While they were united politically by the Roman Empire, now in Jesus Christ they had found a deeper unity. These three were the foundational members of the Philippian church, admitted into it on the same terms with no distinction. The head of a Jewish household would use the same prayer every

morning, giving thanks that God had not made him a Gentile, a woman or a slave. But here they were redeemed and united in Christ. As Paul wrote to the Galatians,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slave or free, male 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민족적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는 쾰른이나 로테르담과 같이 로마 제국에서 매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는 그리이스 도시로서 ‘비아 에그나치아’라는 대로를 통해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여성으로 빌립보에 사업차 이민 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종은 그리스 사람으로 그 지역 출신일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노예들은 여러 지역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는 아마도 당시의 보통 간수들처럼 퇴역한 군인이거나 예비군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의 법적 제도의 모든 공무원들처럼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로마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민족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하나됨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로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가정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그들을 이방인이나 여성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을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것처럼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

But still the question: “OK, but what can we do?” How do we build diverse fellowships that can witness powerfully to the unity the Gospel brings? It started to happen in Rotterdam when our first West African elder called to ask if we could start an African music group. It became known as the Joyful Singers” and is one of three different cultural worship groups in the church. Churches in the Netherlands as well as Germany can do a lot to help people who are different feel that they belong. We can translate services or add songs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to the liturgy. Why not? It is not our liturgy! It is not the Scots Church or the Korean Church, but God’s family in a changing urban world. In Rotterdam, we have leaders from four continents that lead in prayer and tell what is going on and are generally a contact for newcomers. There is a point in the service called ‘open spot’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share. We show the flags of countries on the wall before the service begins. They say that the kitchen is the centre of the church. When the Korean Methodists were with them I remember lovely smells lingering all day in the hall. If it is too hard to change the culture of the church, one can still share in the activities of churches of other cultures. If you have a good building, churches can invite other Christian communities to use the space as partners.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됨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다양한 성도의 교제를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로테르담 교회에서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한 장로님

께서도 저에게 와서 아프리카 찬양팀을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데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찬양팀은 현재 ‘조이풀 싱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희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화적 예배팀 중의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교회들은 독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도 함께 하나된 소속감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번역하여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것을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코틀랜드 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도 아니라 급변하는 도시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테르담 교회에는 네 개의 대륙에서 온 리더들이 기도를 인도하며 광고하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픈 스팟(open spot)’이라고 불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눕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벽에는 만국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부엌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한인감리교회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예배당 복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교회의 문화를 바꾸기가 어렵다면 다른 문화를 가진 교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예배당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교회들에게도 파트너로서 건물을 함께 사용하도록 초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ut what can we as individuals do? I heard the other day about an old lady in Argentina who said she “could never win a soul to Jesus.” She had been in the church many years but did not have the confidence to give out gospel tracts to people that she did not know. One day she came to understand that God sent his Son and lived among us. He healed people through love and not through gospel tracts. The woman decided she could do the same thing. In front of where she lived was a house for rent. As soon as the new people arrived, she was prepared. She went over with coffee and doughnuts and said, “I’m bringing you something to eat, because I know you’ve just moved, and you don’t have things ready for cooking yet. I’ll come back later to get the dishes – don’t bother to wash them because I know you’re busy. “And by the way, if you want to know about the grocery store, it’s at such-and-such a corner...” She didn’t put a tract under the doughnut. She just brought the food and gave them practical help. After a while she came back to get the dishes. She said’ “If you need something else, I’m here. If you want anything, I’ll be glad to help you.” She never preached about Christ. But a month later the whole family was baptized because of the love she had shown them.

나아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아르헨티나에서 온 나이든 부인이 자신은 “한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 되었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만큼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 건너편에 세를 놓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새로운 입주자가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셔서 음식 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접시는 나중에 다시 가지러 오겠습니다. 바쁘실 테니 설거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 수퍼를 알기 원하시면 저기 저 코너에 있어요...” 그녀는 도넛 밑에 전도지를 넣지도 않았습니 다. 그녀는 그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얼마 후 그녀가 다시 접시를 가지러 와서 말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한 달 후 그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이 아주머니께서 보여 준 사랑으로 인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 다.

The world has changed. We used to do foreign mission by sending people to the farthest corners of the world. Now we do the same by going to our neighbors across the street.

The church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church in Philippi, the first church in Europe was a multiethnic community. Today we are sometimes content to look only for those who are look or behave as we do.

Maybe God has changed the world to change the church!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even in O.T. Israel) was never mean to be just one color or one culture. How are you trying to reach others who are different from you?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먼 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건너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도 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의하면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다인종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우리와 닮았고 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만을 찾는데 만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의 피부색이나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6. Sermon for Hanbit Community Church in Cologne on Oct. 12, 2003 (2003년 10월 12일 설교)

Peter Klass van Open Doors, Holland(피터 끌라스, 네덜란드 오픈 도어스 선교회)

Bijbel: Dan. 3:1-28(성경: 단 3:1-28)

Titel: Wonder in de oven (제목: 풀무불 속에 일어난 기적들)

"Een tijdje geleden was in Noord Korea." Een land wat helemaal gesloten is voor het evangelie, waar 1000den christenen om hun geloof gevangen zitten, omdat ze niet hebben gebogen voor dat beeld enz. Zo'n verhaal lezen we ook in de Bijbel: Dan. 3:1-28. De bijbel heeft heel veel verhalen, waarin mensen, die trouw de Heer willen volgen, problemen krijgen en in verdrukking komen. We lezen (dan) die verhalen, maar kijken vooral hoe het met hen afliep. Zo ook in deze geschiedenis: de vrienden van Daniel komen tenslotte uit de brandende oven, dat je zelfs geen schroeilucht kon ruiken. Dan kun je gemakkelijk tot de conclusie komen: God redt wel uit! Als je gehoorzaam bent, helpt Hij, redt Hij. En God doet dat!

"얼마 전 북한에서는.“ 복음에 대해 전혀 닫혀 있던 나라였지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단 3:1-28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핍박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만 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마침내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Maar het is zo belangrijk dat we in een geschiedenis als deze niet alleen kijken naar het slot, maar juist kunnen we zoveel lessen leren van wat er voor dat slot gebeurde. Ze moesten elke keer beslissingen nemen, ze moesten gehoorzaam en standvastig zijn. Er zal zeker angst geweest zijn. Het ging zeker niet gemakkelijk. Er zijn veel lessen te leren in deze geschiedenis.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있기 전에 배워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결단해야만 했고 순종하면서 믿음에 견고히 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매우 많습니다.

1) Een zeer groot beeld: Nebukadnezar bouwde een zeer groot beeld (27 meter hoog, bijna 3 meter breed). Waarschijnlijk was het een beeld van hemzelf. Ieder moest hier voor buigen, of op de grond liggen en er eer aan bewijzen. Wie dat niet zou doen zou in de vurige oven worden geworpen. Het was een duidelijke verering van een mens die zichzelf als God zag.

1) 매우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높이가 27미터였고 넓이가 거의 3미터였습니다). 아마도 이 신상은 자신을 위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절하거나 바닥에 꿇어앉아 경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2) Geïsoleerde plaats: De Bijbel vermeldt, waardit beeld opgericht werd. Dat was in het dal Dura (3:1). Dura betekent: ommuurde plaats. Dat betekende dus dat de mensen werden gesoleerd, er was een wal of een muur opgetrokken. Mensen werden in een isolementgebracht. Dat zien we ook bij de Lijdende Kerk; mensen die opgesloten worden Ze kunnen niet weg. (Noord Korea, Laos, Iran). De mensen moesten naar het dal Dura komen. Ze werden gedwongen om daar te zijn. Er was geen keuze. Als je niet ging was je je baan kwijt, of zelfs je leven..

2) 소외된 장소: 본문 1절에 보면 이 신상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곳은 두라 평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라’라는 말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으며, 성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고난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단절되어 있어 어디로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북한, 라오스, 이란). 사람들은 이 두라 평지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것입니다.

3) Er was dreiging: Ook de drie vrienden van Daniel waren gedwongen hier te komen en zich neer te buigen voor het beeld van de koning. Maar ze hadden al een besluit genomen. Niet pas toen ze moesten buigen voor het beeld, maar al een lange tijd ervoor. Ze hadden toen al besloten niet de Koninklijke spijs te eten of de wijn te drinken. Wat een les voor ons. Zij hadden een besluit genomen en dat niet pas toen de dreiging kwam. Een soldaat moet ook leren in vredestand; als alles rustig is. Als dan de strijd komt is hij voorbereid. De vrienden stonden sterk omdat ze al lang geleden hadden besloten.

3) 위협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이곳으로 끌려와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기 바로 직전 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결단해 왔던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위협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군인들도 평화로울 때 미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Natuurlijk was het voor hen spannend: Ze wisten dat iedereen zou gaan buigen als de muziek zou losbarsten. Iedereen boog en knielde in aanbidding, maar drie mannen bleven kaarsrecht staan. Zij bogen niet. We lezen in deze geschiedenis slechts van 3 jonge mannen. Maar er waren honderden andere ballingen, die ongetwijfeld ook bij die gebeurtenis aanwezig geweest zijn. We lezen daarover niets. Hebben die anderen wel gebogen? Meegedaan met de massa, uit lijfsbehoud? We weten het niet.

Naamchristenen gaan op in de massa. Ze vallen niet op. Lopen geen gevaar. Maar maken ook geen wonderen mee.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두가 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오직 세 명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세 명의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수백 명의 다른 포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배했을까요? 군중심리에 이끌려 생존하기 위해 절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군중을 따라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 Niet aan het vuur te ontkomen: Er zijn mannen die direct aan de koning vertellen dat de vrienden van Daniel niet hebben gebogen. De koning wordt laaiend en geeft bevel deze mannen te halen. Daar staan ze voor de koning die denkt alle macht op aarde te hebben. Hij vraagt hen: Is het met opzet? Hij wacht niet eens op antwoord maar gaat direct verder: Ik geef jullie nog een tweede kans! De muziek zal nog een keer spelen en buig dan neer. Denk eens aan deze drie mannen. De koning is vreselijk kwaad. Hij meent wat hij zegt. Er lijkt geen ontkomen meer mogelijk. Ik weet dat er op zulke momenten stemmetjes door je hoofd gaan: Grijp die tweede kans, God geeft je die kans, als je buigt doe je dat toch niet met je binnenste, etc.

4) 불을 피하지 않음: 그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직접 참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였고 그 친구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리하였느냐?’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면 절하라.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달리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돼.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겉으로 절하는 척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Maar deze mannen zijn standvastig. Ze wisten het: We kunnen niet ontkomen aan dat vuur. Zij waren bereid de prijs van het lijden te dragen.VB. broeder B. uit Iran: Kerk was gesloten door overheid. Voorganger was vermoord, maar B was ex-moslim die uit die stad kwam. De Kerkeraad vroeg hem te komen. Planken weg, ouders uitgenodigd en klokken geluid. Veiligheidspolitie kwam: waar 2 of 3 vergaderd zijn. Hij was bereid de prijs te betalen; hij wist net zoals Sadrach , Mesach en Abednego dat hij niet aan het vuur kon ontkomen.

그러나 이 청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풀무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

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한 형제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살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그 도시에서 와서 모슬렘으로부터 개종했습니다. 교회의 제직회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나무판자가 벗겨지고 부모들도 초대되었는데 갑자기 노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3명이 모여 있는 곳에 보안경찰이 덮친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Dan lezen we in vers 15b dat alles verandert. Nebukadnezar gaat op een andere manier praten: Indien gij niet aanbidt, zult gij ogenblikkelijk in de brandende vuuroven geworpen worden. En wie is die God, Die u uit mijn hand zou kunnen bevrijden? Nu stelt hij zichzelf op tegenover God. Het antwoord van de drie mannen is duidelijk en moedig. Wat zal er veel door hun gedachten zijn gegaan; ze hebben ongetwijfeld gedacht aan hun familie. Wat zullen ze een strijd gehad hebben. Net zoals nu veel christenen dat hebben die lijden, omdat ze Jezus niet willen verloochenen. Zoals die broeder B. uit Iran/

15절 후반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변한 것을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을 바꿉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며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대답은 분명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큰 영적인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란의 이 형제처럼 말입니다.

Hier is hun antwoord: Wij achten het niet nodig u hierop enig antwoord te geven. Dat klinkt haast beledigend voor de koning! En dan laten ze in vers 17 en 18 zien wat geloof is: "Indien onze God, die wij vereren, in staat is ons te bevrijden, dan zal Hij ons uit de brandende vuuroven, en uit uw macht, o koning, bevrijden; maar zelfs indien niet, het zij u bekend, o koning, dat wij uw goden niet vereren, en het gouden beeld dat gij hebt opgericht, niet aanbidden."

여기에 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왕을 분명히 모독하는 것이지요! 17-18절에서 그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Hier staat niet: Als wij vragen aan God, dan moet Hij het ook doen? Nee: zij zeggen maar zelfs indien niet. Met deze woorden leggen ze hun hele situatie in de handen van God. Als God het anders wil doen dan wij willen, zullen we Hem toch getrouw blijven. Geloof legt in vertrouwen terug in de handen van

God. Geloof is niet: Je krijgt wat je graag wil ontvangen.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그들은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하실지라도, 그 분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Dan worden ze in de oven geworpen. De Bijbel zegt: Ze werden gebonden. Met hun kleren aan werden ze in de oven geworpen. Gebonden! Geen mogelijkheid meer om te bewegen! Zo het vuur in! En dan komen de wonderen: **1e wonder** - God laat niet alleen God komt Zelf in hun nood, hun angst, hun gevaar. Als de dienaren van de koning kijken zien ze niet 3 mannen, maar 4. En de vierde omschrijven ze als een zoon van de goden! Was het Jezus? Was het een engel? We weten het niet, maar hoe dan ook: God laat niet alleen! Uit Iran en ook Noord Korea horen we verhalen dat Jezus zichzelf openbaart in tijden van grote nood.

그러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박 당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은 채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묶인 채!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와 공포, 그들의 위험 속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보니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분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e wonder - Vrijheid omdat God er is. Ze waren gebonden in de oven geworpen, maar nu wandelen ze in de oven. In hun nood, in het vuur, gaf God hen vrijheid omdat Hij bij hen was. Ze konden wandelen. Dus het vuur had hun touwen en ketenen verteerd, maar hun haar, hun kleren hadden zelfs geen brandlucht. Ze waren midden in het vuur en ongedeed. God beschermde hen. We moeten het niet onderschatten. Het zal heel zwaar voor ze zijn geweest en onmogelijk om te dragen, maar God was bij hen. Ze moesten door dit vuur, ze moesten door dit lijden, zodat de koning zou zien wie de God was, die de drie mannen uit zijn hand kon redden.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제 그들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극한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결박과 쇠사슬은 없애버렸지만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은 전혀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한 가운데

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니다. 이러한 시련은 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었으며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불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왕은 진정 이 세 청년들을 전능하신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니다.

Gebed nodig. Geloofsgenoten moeten soms door veel lijden gaan, opdat de mensen om hen heen zullen zien wie God is. In de kerk van broeder B in Iran komen elke dag 2 tot 3 moslims tot geloof! Deze broeders en zusters die lijden hebben ons gebed nodig. Gebed, soms in tranen om onze geloofsgenoten. (zie blad en gebedskalender) Zullen wij standvastig zijn?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지들은 가끔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란에 있는 B 형제의 교회에서 매일 2-3명의 모슬렘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는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 동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편지 등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확고히 서 있습니까?

Er zijn veel lessen in deze geschiedenis. Wij denken misschien. Hier is geen vervolging en hier komt geen vervolging. Het is gevaarlijk om zo te denken. Zullen wij, net als deze drie vrienden van Daniel, net als onze vervolgte broeders en zusters van de Lijdende kerk, standvastig zijn en staan op de rots, als ook wij in situaties komen, waar het kiezen voor Jezus ons alles zal kosten?

이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여기에는 핍박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고난 받는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Zie Rom. 8:31-39 "In" alle dingen meer dan overwinnaar. Niet "buiten". De vraag is dus niet: Ben ik bereid om voor Jezus te sterven, Maar: Ben ik bereid om voor Jezus te leven. Wie in tijden van voorspoed voor de Heer leeft, Zal in tijden van tegenspoed zijn nabijheid ervaren. Altijd, overal. Amen. 롬 8:31-39을 보면 “이 모든 일”에“(in dem allem)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바깥”이 아닙니다. 모든 일 안에서 입니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니다. 편안할 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말입니니다. 아멘.

7. Predigt von Ulrich Parzany in der Hanbit Community Church Köln am 30.10.2005

(2005년 10월 30일 울리히 파르차니 목사의 켈른 한빛교회 설교)

Text: Johannes 17, 20-21 (성경: 요 17:20-21)

Titel: Dynamische Einheit (제목: 역동적 하나됨)

Jesus betet: „Ich bitte nicht allein für sie (die Jünger), sondern auch für die, die durch ihr Wort an mich glauben werden, damit sie alle eins seien. Wie du, Vater, in mir bist und ich in dir, so sollen auch sie in uns sein, damit die Welt glaube, das du mich gesandt hast.“ (Johannes 17, 20-21)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Stellen Sie sich vor, Sie sind in einer großen Firma angestellt. Sie gehen zufällig über den Flur auf der Vorstandsetage. Eine Bürotür steht offen. Sie hören die Stimme ihres Abteilungsleiters, der mit dem obersten Chef der Firma redet. Sie hören Ihren Namen. Es geht um Ihre Beförderung. Die beiden Herren sprechen darüber, wie Sie wirkungsvoll eingesetzt werden könnten. Und Sie haben alles mitgehört!

여러분들이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연히 회사에서 사장님 방 앞을 지나는데 방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당신 부서의 부장님과 사장님이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들리고 승진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고, 당신은 그 모든 이야기를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So ähnlich geht es mir beim Lesen dieses Bibeltexes. Gottes Sohn Jesus Christus spricht mit Gott, dem Vater. Wir dürfen zuhören. Sie sprechen über uns. Sie reden darüber, welche Position wir haben und wie wir wirkungsvoll in dieser Welt eingesetzt werden können. Das ist aufregend. Jesus hat ein strategisches Ziel mit uns. Das will er erreichen durch Dynamische Einheit.

저는 이 성경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두 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며 우리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와 함께 전략적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내믹한(역동적인) 하나됨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1. Wird Jesus vom Vater erhört?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Jesus bittet den Vater um die Einheit seiner Jünger. Ist er erhört worden? Keine Frage, das Gebet des Sohnes wird vom Vater erhört. Die Einheit seiner Jünger ist also bereits eine Wirklichkeit. Wir müssen sie nicht erst schaffen, sie ist uns von Jesus geschenkt. Im Apostolischen Glaubensbekenntnis bekennen die Christen seit 1500 Jahren: „Ich glaube an die heilige, christliche Kirche, die Gemeinschaft der Heiligen...“.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에게 제자들이 하나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동안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민사옴나이다”

Aber ist die Christenheit nicht gespalten, zerstritten und uneinig? Ja, es gibt verschiedene Kirchen, Konfessionen und Organisationen. Und nicht alle gehen freundlich miteinander um.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서로 나뉘지고 갈라지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도 가지각색이고 종파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늘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Aber die Organisationen sind nur die Baugerüste, nicht der Bau selbst. Entscheidend ist, ob von diesen Gerüsten aus die eine Kirche, die eine weltweite Gemeinde des Jesus Christus gebaut wird oder nicht. Baugerüste sind nicht um ihrer selbst willen da. Sie können verschieden sein. Das ist egal, solange auf ihnen an dem Haus Gottes aus lebendigen Steinen gebaut wird.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한 건물을 이루는 뼈대(부분)일 뿐 그 건물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뼈대들로 한 교회, 즉 세계적인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뼈대들은 그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산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위에 세워지는 것이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Diese eine, wahrhaftige Gemeinde des Jesus Christus existiert tatsächlich.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2. Wie sollen wir uns die Einheit vorstellen?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Die Einheit des Vaters und des Sohnes ist unvorstellbar tief und eng. Wir glauben nicht an drei Götter, sondern an den einen heiligen Gott, der sich als der Vater, der Sohn Jesus Christus und der Heilige Geist offenbart.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기록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Der Schöpfer und Erhalter des Universums offenbart sich uns Menschen in Jesus Christus. Er trägt unser Versagen und unsere Schuld ans Kreuz. Er erlöst und versöhnt uns mit Gott. Und Gott, der Heilige Geist wohnt in unserem Leben. Nicht nur unser Geist, auch unser Körper sollen der Tempel, die Wohnung des Geistes Gottes sein, sagt die Bibel. (1. Kor. 6,20)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ie sollen wir uns das vorstellen? Ist das Wasser im Eimer? Ist der Eimer im Wasser? Ist Jesus in uns? Sind wir in Jesus? Wir können es uns nicht anschaulich vorstellen. Es ist ein tiefes Geheimnis, aber es ist Tatsache.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동이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속에 놓여있는 양동기와 같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Die Ehe ist die engste Verbindung von zwei Menschen. Und doch bleiben die beiden unabhängige Personen. Es gibt bei uns Menschen keine ähnliche Einheit wie die zwischen Jesus und uns, wenn wir ihm vertrauen.

사람들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Paulus sagt: „Ich bin mit Christus gekreuzigt... Ich lebe. Doch nicht ich, sondern Christus lebt in mir.“ (Galater 2, 19 – 20)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Und in 1. Korinther 12 beschreibt Paulus die Gemeinde der Christen als den Körper des Jesus Christus. Jeder, der zu Jesus gehört und ihm folgt, ist mit allen anderen Christen so eng verbunden wie die Körperteile und Organe in einem Leib. Sie leben in einer Abhängigkeit voneinander. Sie sind aufeinander

angewiesen. Sonst können sie nicht leben.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두, 한 몸의 각 지체들과 몸의 각 기관들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3. Was ist das Ziel der Einheit?(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Die Einheit der Christen ist nicht Selbstzweck. Sie hat einen Zweck und ein Ziel: Damit die Welt glaubt, dass der Vater den Sohn Jesus gesandt hat. Jesus will eine dynamische Einheit. Sie soll sich kraftvoll nach vorne bewegen.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분명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이내믹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Wirkungsvolle Mission ist der Zweck der Einheit der Christen. Es geht um Gottes Mission. Was bedeutet „Mission“. Mission ist das aus dem Lateinischen kommende Fremdwort für Sendung. Der Vater hat den Sohn Jesus gesandt. Das ist Gottes Mission zur Rettung der Welt.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Miss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Jesus erklärt in seinem Gebet, dass er seine Jünger in die Mission Gottes mit hinein nehmen will (Johannes 17, 18). Am Auferstehungstag sagt er es seinen Jüngern noch einmal: „Wie mich der Vater gesandt hat, so sende ich euch.“ (Joh. 20,21)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 21:20)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Jetzt wird auch klar, warum Jesus die Einheit der Christen will. Gottes Mission hängt davon ab, dass der Sohn Jesus ganz eng mit dem Vater verbunden ist, der ihn sendet. In dieser Verbindung liegt die Kraft und Vollmacht.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될 것을 원하셨는지 분명해 지셨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나된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바로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Genauso wichtig ist es, dass die Christen ganz eng mit Jesus und miteinander verbunden sind. Nur so können sie sich ergänzen und unterstützen wie die Organe und Glieder eines Körpers.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몸의 기관과 각 지체들처럼 상호 보완하고 돕는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nn ein Bein oder ein Arm oder der Magen nicht mit dem Rest des Körpers verbunden sind, dann ist der ganze Körper behindert. Er liegt krank im Bett. Er kann den anderen Menschen keinen Dienst tun. Er ist ganz mit sich selbst beschäftigt. Er kann die Mission Gottes nicht erfüllen.

만약 다리나 팔 또는 위장이 몸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이기에 자리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Die Einheit in einer Gemeinde ist die Voraussetzung für wirksame Verkündigung des Evangeliums an Nichtchristen. Viele Gemeinde sind durch Streit gelähmt. Oder sie sind dadurch behindert, dass einige Körperteile ihre Mitarbeit verweigern.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몇몇 지체들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nn wir aber eine Stadt wie Köln, ein Land wie Deutschland oder Korea und die Welt erreichen wollen, dann ist die Einheit der Christen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Wir auf das Zusammenwirken des weltweiten Leibes Christi angewiesen.

우리가 켈른과 같은 한 도시를, 또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한 나라를 또 전세계를 복음화하기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예수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Ich bin sehr froh, dass Christen aus allen Teilen der Welt nach Deutschland gekommen sind. Viele haben die Gewissheit, dass Jesus sie als seine Missionare, seine Botschafter gesandt hat. Ihr seid nicht nur dazu gesandt, um die Menschen aus eurem Heimatland zu betreuen. Das ist auch nötig. Jesus hat euch gesandt, damit ihr mithelft, den Millionen Deutschen, die Jesus nicht kennen, das Evangelium zu sagen.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에 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일에 사는 한국사람들만 돌보라고 이곳

에 보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독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Wir brauchen euch! Wir danken euch, wenn ihr die deutsche Sprache lernt. Wir danken euch, dass ihr die müden Christen in den deutschen Gemeinden herausfordert. Zündet sie an mit eurem Gebet und eurer Liebe zu Jesus und zu den Menschen.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독일어를 배우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독일교회의 지친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그들에게 불을 붙여 주십시오.

Ich weiß, dass Jesus in Korea auf wunderbare Weise sein Volk baut und vermehrt. Ich weiß, dass sich seit vielen Jahren koreanische Christen als Missionare in alle Welt senden lassen.

저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확장시켜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한국그리스도인들이 전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hr seid in ein Land gekommen, in dem die meisten zwar Mitglieder von christlichen Kirchen sind. Aber sie kennen Jesus nicht. Sie folgen ihm nicht. Es ist schwer, ihr Interesse zu wecken, weil sie meinen, dass sie alles wissen. Aber sie kennen Jesus nicht.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곳 독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ProChrist 2006 ist ein Teil der Mission in Deutschland und in den europäischen Nachbarländern. Ich danke euch, wenn ihr durch euer Gebet mitkämpft. Wir brauchen eure Hilfe. Viele Gemeinden in Deutschland haben noch nicht begriffen, wie wichtig die Aufgabe ist, den Menschen Jesus zu verkündigen.

ProChrist 2006은 독일과 유럽의 인근국가들을 위한 선교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설교자: Claudia Waehrisch-Oblau 목사

본문: 엡 2:14-22(Eph. 2, 14-22)

제목: 그리스도인의 하나됨(Die Einheit der Christen)

일시: 2005년 6월 5일 쾰른 한빛교회 6주년 기념주일 한독 연합예배

Liebe Gemeind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ls Pfarrer Choi mich zu dieser Predigt einlud, sagte er mir, mein Thema solle „die Einheit der Christen“ sein. Aber ich habe ich einmal nachgesehen, was im deutschen liturgischen Kalender die Predigt- und Lesetexte für den heutigen Sonntag sind. Und siehe da: Die neutestamentliche Lesung steht in Eph. 2, 14-22. Da geht es um die Einheit der Christen, und ich hatte meinen Text. Ich möchte aus diesem Text vier Gedanken hervorheben, und darüber mit Ihnen nachdenken.

최목사님으로부터 오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독일 교회력에 이번 주일 설교본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적혀 있더군요.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 셈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Der Ausgangspunkt: Abgrenzung!

1. 첫 출발점은 경계입니다!

„Er, Christus, ist unser Friede.“ So beginnt der Text. Was das aber bedeutet, erschließt sich erst danach. Hier geht es nämlich nicht um inneren Frieden, nicht um Seelenfrieden. Nein, der Epheserbrief beschreibt mit schonungslosen Worten eine unschöne Konfliktsituation. Eine Situation, in der es um Abgrenzung geht. „Scheidewand“, „Zaun“, „Feindschaft“ sind hier die Stichworte. Als Mittel der Abgrenzung dient das Gesetz. Und so erfolgt dann eine Trennung in diejenigen, die „draußen“ sind – nämlich „Fremdlinge“, „Beisassen“, und die, die drinnen sind, nämlich „Bürger“, „Heilige“ – also Erwählte.

본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안 또는 영혼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서는 불미스러운 갈등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벽, 담, 원수와 같은 단어들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편을 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밖에 있는 자들 즉 외인, 손들과,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시민이요 성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Hier wird nichts beschönigt. Denn es gab im frühen Christentum einen ganz tiefen Graben zwischen

Juden- und Heidenchristen. Offensichtlich hat man sich gegenseitig beschimpft: „Ihr, die ihr ‚Vorhaut‘ genannt wurdet von der sogenannten Beschneidung“, steht in Vers 11. Die Judenchristen fühlten sich überlegen. Sie gehörten schließlich schon zu Gottes von Anfang an erwähltem Volk! Sie nahmen die Nachfolge ernst. Sie hatten das Gesetz und die Beschneidung, um es aller Welt klarzumachen, dass sie nicht wie die anderen waren! Und jetzt kamen die ‚Heidenchristen‘ dazu. Fremde, die sich einfach nicht anpassen wollen. Die alles das, womit sich doch das erwählte Volk von den anderen unterschied, nicht wichtig fanden. Die sich weder dem Gesetz noch der Beschneidung unterziehen wollten. Wie sollte man denn jetzt noch unterscheiden, wer dazu gehört und wer nicht?

성경은 어떠한 것도 좋은 말로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당으로 불리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손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할 율법과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순순히 적응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주께 속한 자이고 누가 속하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Ein Konflikt, der uns nicht betrifft? Oh doch! Diesen Konflikt gibt es immer noch – in vielen verschiedenen Formen. Weil Abgrenzung offensichtlich etwas sehr Menschliches ist. Weil wir immer neue Regeln und Gesetze erfinden, die wir als Zäune benutzen können, um zu unterscheiden, wer dazu gehört und wer nicht. Ich glaube, dass bei aller missionarischen Offenheit solche Zäune auch in unseren Gemeinden existieren – ausgesprochen oder unausgesprochen. Denken Sie doch einmal einen Moment darüber nach: Wer ist für Sie ein ‚richtiger Christ‘? Da gibt es Regeln, bestimmte Verhaltensweisen, bestimmte Glaubensansichten – wer sich daran hält, gehört dazu. Wer sich nicht daran hält, dem begegnen wir mit Misstrauen. Da denken wir in unserem tiefsten Herzen, dass die ‚doch noch keine richtige Christin‘ ist.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서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류의 갈등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누어 누가 우리 편인지 구분 짓기 위해, 담(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과 규칙들을 새롭게 계속 만듭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 내에 열린 선교활동 가운데도 –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 이러한 담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또 이렇게 행동해야 하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Also: in der Beschreibung des Epheserbriefs können wir uns durchaus wiederfinden. Wir haben vermutlich alle etwas von diesen Judenchristen, auch wenn unsere Argument anders aussehen. Vielleicht so: Wir sind die Einheimischen. Uns gehört das Gebäude. Wir waren zuerst da. Die anderen sollen sich integrieren – also uns anpassen. – Oder so: Wir haben den tieferen Glauben. Wir beten viel mehr. Wir haben das größere missionarische Engagement. Wir wollen diesem Land Erweckung bringen – die anderen sollen uns ähnlicher werden.

에베소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내용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입니다. 건물도 우리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통합되어야, 적응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으로 선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야 합니다.

Und umgekehrt haben sicher viele von Ihnen auch schon die Erfahrung gemacht, ausgeschlossen worden zu sein. Ansprüchen nicht zu genügen. Die Sprache, die Regeln nicht zu verstehen. Nicht zu passen. Und sich dann draußen vor dem Zaun zu finden. Und damit bin ich bei meinem zweiten Gedanken:

또는 이와 반대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언어나 법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벽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2. Das Evangelium: Der Abbruch der Grenze

2. 둘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경계들을 허무는 복음입니다.

Von Abgrenzung und Konflikt habe ich gerade gesprochen. Ich bin froh, dass die Bibel da so schonungslos ehrlich ist. Denn uns in der Kirche fällt es nicht leicht, Konflikte auszutragen. Wir wünschen uns Frieden, dass sich alle miteinander vertragen. Wenn es Streit gibt, haben wir das Gefühl, versagt zu haben.

저는 방금 당을 짓는 것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이 진실하게 숨김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잘 이해하며 화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Da ist es gut zu sehen, dass die Bibel viel von Streit und Konflikten in der Gemeinde weiß. Im Grunde geht es in allen Paulusbriefen um nichts anderes. Streit ist der Normalfall, weil die Kirche des Neuen Testaments aus so unterschiedlichen Menschen bestand.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좋

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Streit, Abgrenzung ist die Ausgangssituation. Aber es bleibt eben nicht dabei. Ich finde es überaus bemerkenswert, dass im Epheserbrief auf die schonungslose Konfliktbeschreibung nun aber kein Appell folgt. Das hieße ja auch, diesen Konflikt schön zu reden. Ein „Nun vertragt euch aber mal schön!“, ein: „Öffnet euch für die Fremden!“ würde nämlich bedeuten, dass es eigentlich ganz einfach ist. Dass man sich nur ein bisschen anstrengen muss, um den Konflikt zu beizulegen. Nein, der Epheserbrief weiß, dass es nicht so einfach ist. Der Zaun ist fest, die Scheidewand undurchdringlich. Bitterkeit und Angst auf beiden Seiten lassen sich nicht durch moralische Appelle überwinden!

그들의 처음 시작 상황은 싸움과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에베소서에서 그러한 갈등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갈등을 좋게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서로 잘 참으십시오’라든지 또는 ‘타인을 위해 마음을 여십시오’하는 것들은, 아마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벽은 단단하고, 담은 철관 같습니다. 양쪽의 고통이나 두려움은 윤리적인 호소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Nein, Christus ist da viel radikaler! Er betätigt sich erst einmal als Abbruchunternehmer. Ganz ohne unser Zutun hat er die Scheidewand des Zaunes, die Feindschaft abgebrochen. Das Gesetz, die Regeln, nach denen getrennt wurde, ist abgetan. Das heißt: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 벽을 허물고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우리를 나누고 있던 율법과 규범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Wenn Sie sich vor allem auf der Seite derjenigen sehen, die ausgegrenzt werden, dann heißt das: Die Mauer ist weg, sie gehören jetzt dazu! Sie sind nicht länger ausgeschlossen! Wenn Sie sich aber auf der Seite derjenigen wiedergefunden haben, die abgrenzen, dann sind Sie vielleicht erschrocken. Das, woran Sie sich festhalten, das, was Sie benutzen, um sich selbst drinnen und andere draußen zu halten – die Unterscheidungen, die Abgrenzungen – alles das hat Jesus Ihnen aus der Hand geschlagen.

여러분들이 외인으로 있었다면, 담이 허물어진 지금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편을 나누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처음에 여러분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모두 허무신 것입

니다.

„Christus kam und verkündigte als frohe Botschaft Frieden euch den Fernen und Frieden den Nahen.“ Die gleiche Botschaft für alle! Das gilt für die, die drinnen sind, und für die, die draußen waren. Der Epheserbrief betont, dass der Abbruch für beide Seiten Frieden bedeutet. Das ist nur möglich, weil die alte Feindschaft „getötet“ ist! Die vorher draußen waren, brauchen nicht länger bitter zu sein. Und die vorher drinnen waren, müssen keine Angst haben. Das, was war, ist tot, kann nicht mehr länger wirken und bestimmen. Frieden treibt Angst und Bitterkeit aus. Egal also, auf welcher Seite Sie sich finden: Christus hat Ihnen Frieden gebracht. Den Frieden, angekommen zu sein. Nicht mehr fremd zu sein, nicht mehr nur geduldet. Oder den Frieden, sich nicht mehr abgrenzen zu müssen. Nicht eifersüchtig darauf achten zu müssen, dass alles ‚richtig‘ ist. Und damit sind wir beim dritten Gedanken:

17절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답을 허신 것이 양쪽 모두에게 화평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원수된 것을 없앴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밖에 있던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에 안에 있던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죽었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몰아냅니다. 어떤 편에 속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서는 화평을 가져오셨고 이미 화평이 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편을 나눌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려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3. Aus zwei mach eins oder: Neues wird aufgebaut

3. 세 번째는 이 둘을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지으셨습니다.

Der Frieden begann mit dem Abbruch. Der Zaun, die Trennung, die Abgrenzungen wurden abgerissen, eingerissen, aufgelöst. Die Regeln, die vorher galten, sind abgetan. Der schmerzhafteste Abbruch ist nötig, damit Raum wird für Neues. Und dieses Neue ist so umwälzend, so radikal, das der Epheserbrief es in immer neuen Anläufen beschreibt. Es geht um nicht weniger als eine neue Schöpfung: „Er hat beide Teile zu *einem* Ganzen gemacht.“ *Ein* neuer Mensch ist aus den zwei voneinander so erbittert abgegrenzten Parteien entstanden, *ein* einziger Leib. Das, was sich vorher gegenseitig ausschloss, ist nun zu einer einzigen Einheit geworden.

화평은 허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벽을 세우고, 나누고 구분 짓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소멸됩니다. 예전에 유효하던 규칙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다소 고통스럽지만 허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어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 돌로 새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완고하게 돌로 나뉘어져 있던 것으로 한 몸을, 한 새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서로 배타적이던 돌을 이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Und damit es ganz klar wird, wird noch einmal die alte Abgrenzung hervorgeholt: „Ihr seid nun nicht mehr Fremde und Beisassen“ – Beisassen sind die geduldeten Bewohner, „Gastarbeiter“, diejenigen, die nur willkommen sind, solange sie nützlich sind. Nein, ihr seid jetzt „Mitbürger der Heiligen und Hausgenossen Gottes“! Also noch einmal: Wenn Sie sich eben auf der Seite der Ausgrenzenden wiedergefunden haben, dann müssen Sie das genau hören: Diejenigen, die Sie nicht dabei haben wollten, sind jetzt Ihre Mitbürger und Hausgenossen. Und falls Sie sich vorhin eher bei den Ausgegrenzten wieder gefunden haben, dann müssen auch Sie das genau hören: Sie haben jetzt das Bürgerrecht! Es gehört Ihnen! Keiner kann Sie mehr herauswerfen!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나그네는 제한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는 시민을 뜻합니다. 독일의 Gastarbeiter와 같이 필요 가치가 있을 때만 환영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편을 나누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에 이방인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요 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Nach dem Abbruch der Mauer beginnt ein Neubau, nämlich der Bau des heiligen Tempels Gottes. Der Epheserbrief beschreibt ihn so: Der Eckstein, der entscheidende Stein, ohne den das Gebäude sofort zusammenbrechen würde, ist Christus selbst. Das Fundament bilden dann die Apostel und Propheten. Und alle anderen, egal woher sie kommen, werden als Steine in diesen lebendigen, heiligen Bau eingefügt. Er ist noch nicht fertig. Er wächst noch heran. Aber kein Stein wird verworfen. Jede und jeder findet einen Platz in diesem Bau. Egal, ob dekorativ oder eher verborgen. Egal ob klein oder groß, schwach oder stark.

벽을 허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건축,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 그것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은 - 그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 살아있고 거룩한 전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돌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든, 크든 작든,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Wunderschöne, dramatische, großartige Bilder! Aber wie passen Sie eigentlich zu unserem Alltag? Damit sind wir bei meinem letzten Gedanken:

정말 아름답고 극적이며 훌륭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 Mit Gottes Augen sehen

4.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In Christus hat etwas umwerfend Neues begonnen. Das atemberaubende Projekt des *einen* Tempels Gottes. Und wir müssen aufpassen, dass wir das nicht in zu kleine Münze herunterrechnen. Wir reden, wenn es um ökumenische Zusammenarbeit geht, gern von „versöhnter Verschiedenheit“. Und meinen damit oft nicht mehr, als dass wir nebeneinander her leben und uns möglichst nicht stören. Dass jede und jeder von uns so bleiben darf, wie wir vorher waren, und wir uns einfach gegenseitig in Ruhe lasse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동전 몇 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간의 협력을 이야기할 때 “화목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가 함께 살면서 최대한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상, 다른 아무 의미가 없이 사용 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서로 상대방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말입니다.

Aber ich glaube nicht, dass wir den Epheserbrief so lesen dürfen. Es ist unglaublich radikal, was hier steht! Wir müssen es genau wahrnehmen. Wir müssen die großartige Vision aushalten! Denn was der Epheserbrief hier beschreibt, das ist die Wahrheit. Das ist die Wirklichkeit. „So isses“, würde man bei mir in Essen sagen. So und nicht anders.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혁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비전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so isses – 조 이스에스 – 제가 사는 Essen에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Wo wir nur das Klein-Klein sehen, den mühsamen Alltag und die nervigen Konflikte – da hat Gott eine ganz andere Perspektive! Schauen Sie doch die Wirklichkeit Ihrer Gemeinden mal mit Gottes Augen an! Mit den Augen des Baumeisters, der seinen fantastischen Tempel langsam wachsen sieht! So ein Perspektivenwechsel ist wunderbar: Denn dann sehen Sie plötzlich, wie die vielen kleinen, schwierigen Schritte der Zusammenarbeit ein ganz wichtiger Teil in diesem Bauprozess sind. Und wie das, was aus der Nähe eher rau und ungehobelt aussieht, für das Ganze eine tragende Bedeutung hat. In Gottes Augen ist die Zusammenarbeit von Philippus und Hanbit viel, viel schöner als in Ihren eigenen Augen. Gott freut

sich daran viel mehr, als Sie es sich vorstellen können!

작은 것을 작게 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겨운 일상과 신경을 건드리는 갈등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다운 성전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건축자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꾸어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고 작은 그러나 어려운 한걸음 한걸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거칠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빛 교회와 필립투스 교회의 협력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Und darum will ich meine Predigt auch nicht mit einem Appell beenden. So nach dem Motto: „Nun setzen Sie es bitte um!“ Als ob erst unsere Aktionen die Wirklichkeit Gottes in unsere Wirklichkeit übersetzen würden!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Nein, meine Bitte an Sie ist: Rufen Sie sich Gottes Perspektive, die Vision des Epheserbriefs regelmäßig vor Augen! Gott hat die Mauern zwischen Ihnen längst abgebrochen. Der Neubau es wunderbaren Tempels hat längst begonnen. Die Verschiedenheiten, das Fremde, Unterschiedliche, was Sie aneinander wahrnehmen – es ist nur vorläufig. Gott hat Sie bereits zusammengefügt. Die Fundamente sind gelegt, der Eckstein hält das Ganze erdbebenfest zusammen – das können Sie nicht mehr kaputt kriegen, selbst wenn Sie es wollen.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에베소서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의 벽을 이미 오래 전에 허무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 낯선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서로 다른 점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터가 이미 놓였고 모퉁이 돌이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 해도 말입니다.

Und wenn Sie regelmäßig an diesen Tempel denken, dann werden Sie merken, wie sich Ihr Alltag ganz von allein verändert. Wenn Sie sich und Ihre Gemeinde mit den Augen Gottes sehen, dann können Sie plötzlich ganz anders reagieren. Nicht weil Sie müssen. Nicht weil Sie sich anstrengen. Nein, sondern weil Gottes Geist es in Ihnen bewirkt. Sie müssen sich nicht selbst ändern – Gott hat Sie längst verändert. Wir müssen die Einheit nicht machen. Sie ist schon da – können Sie sie sehen? Amen.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이 성전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저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됨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주요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참고 문헌(한국어)

국민일보 2004년 12월 20일자

김인수, “해방 후 한국교회사 10대 사건”, 목회와 신학, 2005년 8월호.

김태익,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후예’,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509/200509080379.html>

박성원, “타자(他者)속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others)” 제 유럽 한인교회 협력 증진을 위한 신학협의회(Geneva, 2003)에서 발표된 논문

박용규, 평양 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박용규, *한부선 평전: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서울: 그리심, 2004), 414.

변하삼, “45년 만에 합친 교회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웠다’: 교단, 기득권 모두 포기하고 손 잡아...지역사회 떳떳한 교회상 자리매김” www.newsjoy.co.kr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장동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86-287.

손인웅, ‘하나’로 가는 한국 교회, *월간 디사이플*, 2004년 10월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46-47.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6-18.

이동원, *쉽게 풀어 쓴 로마서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1)

이승균, “이단 나침반 왜 휘었을까? 한국교회 분열과 정체성 위기, 상업적 언론과 만나 ‘이단 포용론’ 만개”, www.newsjoy.co.kr

이재정,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칼 운동” user.chollian.net/~ikch0102/nm4-5.htm 및 김홍수,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논찬”, user.chollian.net/~ikch0102/nm4-6.htm.

주도홍, „독일 통일 전 동서독 교회의 역할: "특별한 유대관계"(die besondere Gemeinschaft)를 중심으로” (mission.ms98.net/main.htm)

최덕성,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2005)

최인식, “한국교회는 분열의 이미지를 넘어라”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p. 89.

평화신문 “교회 분열의 역사와 일치를 위한 노력들” 2001. 12. 26.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주일공동설교문, “교회 일치의 근거와 목적” 2004년 10월 31일, www.churchr.org

하용조, *하나됨의 열망: 에베소서 강해* (서울: 두란노, 1999)

참고 문헌(외국어)

Barth, Karl *Kirchliche Dogmatik*, III. 1. III. 2 (Zürich: Theologische Verlag Zürich), 1979.

Bavink, Herman *The Doctrine of God* trans. by William Hendriksen (Grand Rapids: Baker, 1979)

Cadogan Guides, ITALY, 1988

Called to be One in Christ, ed. by Michael Kinnamon and Thomas F. Best, Faith and Order Paper 127, (Geneva: WCC, 1985), p. viii-ix.

Cressey, Martin “Living Today Towards Visible Unity”, *Living Today Towards Visible Unity: Fif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of United and Uniting Churches*, ed. by Thomas F. Best, Faith and Order Paper No. 142, (Geneva: WCC Publications, 1988), xi.

Eins! Gemeinsam Glauben – Miteinander handeln, Kein Wunschtraum: Einheit leben.

Encyclopaedia Britannica 2004 (CD-ROM)

Forest, J. “Seeking ‘costly unity’: Bridging the gap”. *One World* (1993) no. 185, p. 88. *Koinonia and Justice, Peace and Creation: Costly Unity* ed. by Thomas F. Best and Wesley Granberg-Michaelson (Geneva: WCC, 1993).

Gemeinsam unterwegs: Lieder und Texte zur Ökumene, Ökumenischer Kirchentag.

Hahn, Udo *Das 1x1 der Ökumene: Das Wichtigste über den Dialog der Kirch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haus, 2003)

Kahl, Werner "A theological perspective – The common missionary vocation of mainline and migrant churches" (Utrecht, 2001).

Leuenberger Texte Heft 1, (Frankfurt am Main: Verlag Otto Lembeck, 1995) lkg.jalb.de/lkg/lkg/start.php.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 Holt and Company, 1929)

Idea Spectrum: Nachrichten und Meinungen aus der evangelischen Welt

Idea Spektrum, Chronik des Jahres 2003, No. 7/03(supplement zu Spektrum Nr. 50/2003), p. 13.

Die Kirche Jesu Christi: Der reformatorische Beitrag zum ökumenischen Dialog ueber die kirchliche Einheit, Im Auftrag des Exekutivausschusses fuer die Leuenberger Kirchengemeinschaft(Gemeinschaft reformatorischer Kirchen in Europa)/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Contribution of the Reformation towards Ecumenical Dialogue on Church Unity*, By ord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the Leuenberg Church Fellowship, Leuenberger Texte Heft 1, (Frankfurt am Main: Verlag Otto Lembeck, 1995)

Park, S.M. *The Unity of the Church* (diss. Amsterdam: Vrije Universiteit, 2005).

Programm 2003, Ökumenischer Kirchentag, p. 8.

Strauch, Peter "Von Weite und Grenze geistlicher Einheit: Weshalb die "Einheit in Christus" bei der Evangelischen Allianz oberste Priorität hat.(영적 하나됨의 넓이와 한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는 이유), *Eins*, (Die Evangelischen Allianz in Deutschland, 2004년 3월), pp. 11-13.

Volf, Miroslav *Trinität und Gemeinschaft: Eine ökumenische Ekklesiologie* (Mainz: Grünewal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영문판은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7).

Rudolf Westerheide, *Eins: Wie wir als Christen glaubwürdig werden*(하나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을만한 사람들이 되는가), (R. Brockhaus Verlag: Dormagen, 2004)

카세트/CD 및 인터넷 사이트

하용조, Power Wave 성령축제 카세트 테이프.

anglicansonline.org/basics/Chicago_Lambeth.html#Lambeth%20Conference%20of%201888%20Resol
“Basic Principles of the Attitud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oward the Other Christian Confessions” *adopted by the Jubilee Bishops' Council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ugust 14, 2000.*
orthodoxeurope.org/page/7/5/1.aspx

www.cec-kek.org/index.shtml

www.cofe.anglican.org/info/ccu/england/methodists

www.ead.de

www.ev-gemeinde-koeln.de

www.heiligenlexikon.de/index.htm?Literatur/Augsburger_Bekenntnis.htm

www.impulstour.de

www.kirche-koeln.de

koelnbonn.fc2web.com

www.koelner-dom.de

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DAB&qnum=905627&kscookie=1

www.kukminilbo.co.kr

minjok.or.kr/main/show_news.asp?newsuid=711

www.oekt.de

www.opendoors.nl

Opendoors 기도 CD

www.pckunity.or.kr

www.pkn.nl

www.placenetwork.org

www.protestantchurch.nl

www.stanet.ch/APD/news/204.html

www.vemission.org

www.warc.ch

www.warc.ch/miu/koreur.html